

# 국내외 건설시장 전망 및 현안 이슈

## - 건설 CEO 설문조사 결과 -

2015. 10

김민형 · 이홍일 · 최석인

## <차 례>

제1장 설문조사의 개요 .....	1
제2장 국내외 건설시장의 전망과 이슈 .....	5
1. 국내 건설시장의 중장기 전망 .....	5
2. 국내 건설시장의 세부 부문별 전망 .....	9
3. 해외 건설시장 수출 목표 및 진출 의지 .....	24
제3장 건설산업 현안 과제와 건설업 경영 전략 .....	29
1. 건설 제도 및 정책 개선 과제 .....	29
2. 건설 환경 변화에 따른 건설 경영 전략 .....	35
3. 건설산업의 기술 혁신 방향 및 장애 요인 .....	40
4. 건설 CEO의 경영 스타일 및 자질 .....	42
제4장 건설산업 주요 이슈의 변화 .....	45
1. 시기별 건설산업의 주요 이슈 .....	45
2. 주요 이슈에 대한 인식의 변화 .....	53
<부록 1> 설문조사 결과 .....	57
<부록 2> 설문조사서 .....	111

## 〈표 차례〉

<표 I-1> 설문조사 응답 업체 및 최고 경영자의 특성 .....	2
<표 II-1> 업체 규모별 국내 건설시장 중장기 전망 .....	6
<표 II-2> 업체 규모별 국내 건설시장 회복 기간 전망 .....	7
<표 II-3> 업체 규모별 향후 국내 건설수주액 최고치 경신 가능성 전망 .....	9
<표 II-4> 업체 규모별 공공 건설시장 규모에 대한 중장기 전망 .....	11
<표 II-5> 업체 규모별 공공 건설시장의 비중 변화 전망 .....	12
<표 II-6> 업체 규모별 향후 5년 간 민자 건설시장에 대한 전망 .....	14
<표 II-7> 업체 규모별 향후 주택 건설시장 회복세 전망 .....	16
<표 II-8> 업체 규모별 주택 건설시장 회복 방해 요인 인식 .....	18
<표 II-9> 업체 규모별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 참여 의향 .....	19
<표 II-10> 업체 규모별 유지보수시장의 중장기 전망 .....	21
<표 III-1> 업체 규모별 입·낙찰 정책에 대한 평가 .....	30
<표 III-2> 업체 규모별 산업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평가 .....	32
<표 III-3> 업체 규모별 2015년 주요 경영 방침 .....	36
<표 III-4> 경영자 유형별 향후 5년 주요 경영 전략 .....	38
<표 IV-1> 건설산업 이슈의 변화(1996~2015) .....	55
<표 IV-2> 건설산업(시장)의 미래 전망(1996~2015) .....	56
<표 IV-3> 건설기업의 생존 전략에 대한 시기별 응답 결과 .....	57
<표 IV-4> 건설 CEO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때에 대한 시기별 응답 결과 .....	58

## 〈그림 차례〉

<그림 II-1> 국내 건설시장 규모에 대한 중장기적 전망 .....	5
<그림 II-2> 국내 건설시장 회복 기간 전망 .....	7
<그림 II-3> 향후 국내 건설수주액의 역대 최고치 경신 가능성 .....	8
<그림 II-4> 공공 건설시장 규모에 대한 중장기 전망 .....	10
<그림 II-5> 공공 건설시장의 비중 변화 전망 .....	11
<그림 II-6> 향후 5년 간 민자 건설시장에 대한 전망 .....	13
<그림 II-7> 향후 5년 후 민자 건설시장 규모에 대한 전망 .....	14
<그림 II-8> 향후 주택 건설시장 회복세 전망 .....	15
<그림 II-9> 주택 건설시장 회복 방해 요인 .....	17
<그림 II-10>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 참여 의향 .....	19
<그림 II-11> 유지보수시장의 중장기 전망 .....	20
<그림 II-12> 북한 건설시장에 대한 진출 계획 .....	22
<그림 II-13> 북한 시장 진출시 유망한 분야 1+2+3순위 종합 .....	23
<그림 II-14> 북한 시장 진출시 정부 지원 1+2순위 종합 .....	23
<그림 II-15> 해외 건설시장 진출 계획 .....	24
<그림 II-16> 선호하는 해외 시장 진출 권역 1순위 .....	25
<그림 II-17> 중동시장의 예상 퇴조 시기 .....	25
<그림 II-18> 해외 시장에서 유망한 건설상품 1순위 .....	26
<그림 II-19> 해외 시장에서 유망한 건설상품 1+2+3순위 종합 .....	27
<그림 II-20> 해외 시장에 대한 건설 CEO의 강조 전략 .....	27
<그림 II-21> 해외 시장에서 기업 경쟁력을 좌우할 역량 1+2순위 종합 .....	28
<그림 III-1> 현 정부의 입·낙찰 정책에 대한 평가 .....	29
<그림 III-2> 현 정부의 적정 공사비 확보 정책에 대한 평가 .....	30
<그림 III-3> 현 정부의 산업 구조조정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	31
<그림 III-4> 현 정부의 주택/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	32
<그림 III-5> 건설업계의 최대 현안 이슈(순위 종합) .....	34
<그림 III-6> 건설산업 장기 비전 수립시 정부가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 .....	35
<그림 III-7> 2015년 가장 중요한 경영 방침 .....	36

<그림 Ⅲ-8> 향후 5년 생존에 가장 중요한 경영 전략 .....	37
<그림 Ⅲ-9> 향후 사업 및 조직 구조조정 계획 여부 .....	38
<그림 Ⅲ-10> 향후 5년 간 건설산업을 주도할 기술 혁신 .....	40
<그림 Ⅲ-11> 건설 기술 개발시 장애 요인 .....	41
<그림 Ⅲ-12> CEO 취임 후 가장 두드러진 Life Style 변화 .....	42
<그림 Ⅲ-13> 건설 CEO로서 가장 자랑스러웠을 때 .....	43
<그림 Ⅲ-14> 건설 CEO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 .....	44

## 요 약

### 제1장 설문조사의 개요

- 본 설문조사는 2014년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으로 상위 500위 이내 업체의 최고 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 총 67인의 응답 결과가 있었는데, 2014년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으로 100위 내 18인, 101~200위 17인, 201~300위 12인, 300위 초과 20인이 응답하였음.
- 본 설문조사의 문항은 건설 CEO의 경영 스타일, 건설산업 이슈, 국내 건설시장, 해외 건설시장, 그리고 남북 문제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총 33개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음.
- 설문조사 결과 분석은 2015년에 조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지난 15년간 건설산업 내의 각종 이슈에 대한 건설 CEO들의 인식 변화를 비교 분석함.
- 연구원은 1996년, 2001년, 2006년, 2011년에도 건설 CEO 100인에 대해 유사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비교 가능한 항목에 한하여 주요 이슈에 대한 인식의 변화 내용을 분석함.

### 제2장 국내외 건설시장의 전망과 이슈

#### 1. 국내 건설시장의 중장기 전망

- 국내 건설시장 규모의 중장기 전망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55.2%가 중기적으로 현재 규모 유지 후 장기적으로는 축소할 것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응답 비중을 기록하였음.

- 국내 건설시장의 최근 회복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2015년까지 회복세 지속 이후 회복세 주춤’으로 응답한 비중이 38.8%를 기록해 가장 높았음.
- 2016년까지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응답 비중은 32.8%, 2017년까지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응답 비중은 20.9%를 기록해 비교적 높은 편이었음.
- 반면, 2018년, 2019년까지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응답 비중은 모두 5% 미만에 그쳤음.
- 결국 응답자들은 현재의 시장 회복세가 향후 3년 이상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 2. 국내 건설시장의 세부 부문별 전망

- 공공 건설시장의 중장기 전망에 대해 질문한 결과, 단기적으로 현재 시장 규모 유지 후 차기 정부에서 축소될 것이라는 응답 비중이 40.3%로 가장 높았음.
- 두 번째로는 향후 지속적으로 공공 시장 규모가 축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25.4%의 비중을 기록했음.
- 그러나, 현재의 공공 시장 규모 유지, 단기적으로 공공 시장 축소 후 차기 정부에서 증가 등의 응답 비중도 각각 23.9%, 7.5%를 기록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음.
- 향후 5년 동안 민자 건설시장 전망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37.3%가 2, 3년 간 침체 지속 후 회복세 시작으로 응답해 가장 높은 응답 비중을 기록했음.
- ‘2016년부터 회복세 시작’으로 응답한 비중은 20.9%, ‘올해부터 회복세 시작’은 7.5%의 응답 비중을 기록했음.
- 최근 정부의 비교적 전향적인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로 긍정적 전망이 다소 우세한 가운데, 회복 시작은 1~3년 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인 견해였음.

- 그러나, ‘향후 5년 동안 침체 지속’으로 응답한 비중도 34.3%를 기록해 부정적 시각도 적지 않았음.
- 주택 건설시장이 향후 언제까지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질문한 결과, 향후 1, 2년 간 회복세를 보이고 이후 회복세가 주춤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였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6년까지 회복세를 지속한 이후 회복세가 주춤할 것이라는 응답 비중이 41.8%를 기록해 가장 높았음.
  - 2015년 연말까지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응답 비중도 34.3%를 기록해 두 번째로 높았고, 다음으로는 2017년까지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응답 비중이 14.9%를 기록했음.
- 향후 유지보수시장의 중장기 전망에 대해 응답자의 64.2%가 중장기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응답했음.
  - 중장기적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는 응답 비중이 16.4%를 기록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였으나,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는 응답 비중과는 격차가 매우 컸음.
  - 그 외 답변에 대한 응답 비중은 매우 낮아 응답자들은 대체적으로 향후 유지보수시장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음.
- 북한 시장의 경우, 응답 대상 CEO의 46%가 진출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진출 계획이 없다’는 응답도 53.7%로 조사됨. 다만, 1~100위 이내의 기업 CEO의 북한 진출 의향은 72.2%로 전체 응답의 경향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북한 시장 진출시 유망 분야 1순위는 도로(56.7%)인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도시 및 신도시 개발(9.0%), 발전소 및 송전 시설(7.5%), 주택(7.5%) 등의 순으로 집계됨.



- 정부의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는 사업 위험성 해소를 위한 지원(65.7%)과 원활한 건설 활동을 위한 3통(통행·통관·통신) 문제 해결(14.9%)을 강조함.

### 3. 해외 건설시장 수출 목표 및 진출 의지

- 해외 건설시장으로의 신규 진출 의향(14.9%)은 2011년(29%)에 비해 저조함.
  -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 계획이 전혀 없다’고 답변한 비중이 71.6%를 차지하였으며, 이미 진출한 경우는 13.4%인 것으로 나타남.
- 동남아시아(45.5%)가 가장 진출하고 싶은 권역인 것으로 조사됨. 다음으로는 인도 및 중앙아시아(18.2%), 중동(9.1%) 순이었음.
- 해외 시장에서의 주요 전략은 수주보다는 수익성 확보 전략(40.3%)이 우선시됨. 다음으로, 공종과 지역의 다변화(25.5%), 도급 사업 이외에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16.4%)의 중요성을 피력하였음.
  - 다만, 대형 건설기업 CEO의 경우는 지역 및 공종 다변화와 수익성 확보 전략을 동등하게 강조
- 유망 상품으로는 여전히 석유화학 플랜트(25.4%)를 지목함. 다음으로 발전소(20.9%), 도로 및 교량(11.9%) 순이었음.
  - 유망 상품의 1~3순위를 종합할 경우에는 신도시 개발, 도로 및 교량, 석유화학 플랜트 순으로 순위가 바뀌었음.
- 건설 CEO들은 해외 건설시장에서 프로젝트 기획 및 관리 능력(43.9%)을 가장 중요한 경쟁력으로 꼽음.
  - 사업 창출 능력과 시공 능력이 각각 14.9%인 것으로 나타남. 한편, 해외 시장 경쟁력의 1순위와 2순위를 종합할 경우에는 협력 체계 구축(현지화 등)의 중

요성도 매우 강조되었음.

### 제3장 건설산업 현안 과제와 건설업 경영 전략

#### 1. 건설 제도 및 정책 개선 과제

- 현 정부의 입·낙찰 정책에 대한 평가 결과, 미흡하다는 답변이 32.8%인 반면에 우수는 10.4%에 그침.
  - 이는 종합심사낙찰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등 정부 정책들이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있다고 느끼지 못했기 때문으로 이러한 인식은 시공능력 순위별로 별 차이가 없었음.
- 적정 공사비 확보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도 미흡하다는 의견이 32.8%, 우수하다는 의견은 9%에 그침.
  - 이는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실적공사비가 실제 공사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데 따르는 결과로 시공능력순위별로 큰 차이가 없었음.
- 현 정부의 산업 구조조정 관련 정책 또한 29.9%가 미흡하다고 응답하였고, 우수하다는 응답은 6%에 그침. 특히, 시공능력순위 하위 업체일수록 미흡하다고 지적함.
  - 이는 지속된 국내 공사 물량의 감소 추세 속에 낙찰률 상승을 목적으로 한 부적격 업체의 증가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서, 향후 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함을 암시함.
- 현 정부 출범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가장 관심을 기울인 주택·부동산 관련 정책은 우수하다는 응답이 22.4%로, 미흡하다는 의견(16.4%)보다 다소 높았음.

- 특히 시공능력순위 상위 업체일수록 주택·부동산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음. 이는 담합 등으로 공공공사 참여가 제한된 대형사들의 경우 민간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규제 완화의 체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임.
- 현재 건설업계의 최대 현안 과제는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의 지속(52.2%), 종합심사제 등 입·낙찰 제도의 합리적 개선(37.3%) 및 대중소 지역중소 업체 보호와 부실·부적격 업체의 건설시장 퇴출(23.9%)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적정 공사비 확보는 수익성과 직결됨으로써 업체의 생존을 결정하는 문제이므로 업체의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건설업체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었음.
  - 다만, 대중소 지역 업체 보호는 지역 간에 응답에 다소 차이가 있어 서울/수도권 기업(37.3%)보다는 지역 업체의 응답 비중이 높았음(62.7%).
  - 시공능력순위별로 대기업은 입·낙찰제도 등의 정책 제도에, 중견기업은 부동산 정책, 그리고 소기업은 약자 보호 정책에 관심이 높았음.

## 2. 건설 환경 변화에 따른 건설 경영 전략

- 2015년도 가장 중요한 경영 방침을 조사한 결과 지속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31.3%)과 현장관리 역량 강화(31.3%)로 나타남.
  - 다음으로는 자금관리 강화(17.1%)와 핵심 부서 위주의 조직 개편 및 인력 슬림화(11.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시공능력순위별로는 1~100위 업체들의 경우 자금관리 강화(22.2%), 101~200위 업체들은 현장관리 역량 강화(47.1%)의 응답 비중이 높았음.
- 향후 5년 간 중장기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은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37.3%)와 생산성 향상을 통한 원가 절감(31.3%)이었음.
  - 이 외에 공격적 수주(10.4%), 해외 시장 진출(7.5%)과 기술 개발(9.0%)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원가 절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공공공사의 지속적인 수익성 하락과 어닝 쇼크(earning shock)에 기인한 해외건설의 수익성 하락 등으로 건설업체들의 수익성이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임.
- 2015년에 사업 및 조직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82.1%를 차지함.
- 일부 구조조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 확대하고자 하는 부서로는 시공능력순위와 관계없이 주택사업 부서와 개발사업 부서라고 응답함.
- 축소하고자 하는 부서는 공공사업 부서이며, 통폐합하고자 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없다고 응답함.

### 3. 건설산업의 기술 혁신 방향 및 장애 요인

- 건설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건설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향후 5년 간 건설산업을 주도할 건설 기술혁신으로는 녹색 건설기술(32.8%)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다음으로는 신공법 및 생산 프로세스 기술(23.9%), 첨단 시설 구축 기술(초고층 시설, 초장대교량 등)(11.9%)의 순으로 나타남.
- 다만, 1~100위 기업의 경우 다른 순위 기업과 달리 첨단 정보화 기술을 향후 건설산업을 주도할 기술 혁신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높았음.
- 건설기술 개발시 장애 요인으로는 장기간에 걸친 투자 회수 부담(38.8%)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산업 기준과 제도의 문제(17.9%), 기술 개발을 반영하지 못하는 입찰 방식(14.9%) 등이 그 뒤를 이음.
- 시공능력순위별로 보면 101~200위 기업은 기술 개발을 반영하지 못하는 입찰 방식(35.3%)이, 그리고 300순위 초과 기업은 실패에 대한 부담이 기술 개발의 장애 요인으로 크게 작용함.
- 이를 볼 때, 일단 신기술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면 업계로 확산될 수 있는 경

로 개발을 통하여 기술 개발에 따른 투자 회수를 지원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음.

#### 4. 건설 CEO의 경영 스타일 및 자질

- CEO 취임 후 가장 두드러진 변화로는 경제와 금융에 대한 관심 증대(35.8%)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업무 상대 혹은 각종 모임의 증대(32.8%)였음.
  - 이는 한 기업의 CEO는 전체 경제 흐름 속에서 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라는 것을 대변함.
  - 시공능력순위 하위 집단으로 갈수록 업무 상대 혹은 각종 모임 증가의 비중이 높았으며, 1~200위는 경제와 금융에 대한 관심이 다른 집단보다 높았음.
- 건설 CEO로서 가장 자랑스러웠을 때는 흑자 시현으로 회사 규모가 확대되었을 때(43.3%)로 이는 5년 전인 2010년 조사 결과와 동일함.
  - 다음으로는 완공 시설물 입주자들로부터 감사와 격려를 받을 때(31.3%)라고 응답하여 CEO들은 기업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 자긍심을 느끼고 있었음.
- 건설 CEO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 능력(53.7%)과 리더십(25.4%)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는데, 이 역시 5년 전인 2010년 조사 결과와 동일함.
  - 직원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일은 시대와 관계없이 CEO가 해야만 하고, CEO만이 할 수 있는 일임을 시사함.
  - CEO 유형별로 살펴보면 창업 경영인은 리더십(41.7%)이라는 응답이 높았으며, 외부 영입 경영인은 비전 제시 능력(90.0%)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이었음.

## 제4장 건설산업 주요 이슈의 변화

### 1. 시기별 건설산업의 주요 이슈

- 1996년도 건설산업 5대 이슈는 시장 개방, 부도, 담합, 부실 시공, 해외건설 등이었음.
  - 1997년도부터 발효 예정인 정부조달협정의 여파로 인해 국내 건설시장의 개방 문제가 당시 건설업계의 최대 현안 이슈로 부각되었고, 부도와 담합, 해외 진출 등도 커다란 이슈로 부상함.
  - 한편, 성수대교 붕괴(1994), 삼풍백화점 붕괴(1995) 등은 부실 시공 방지 문제를 부각시킴.
-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06년도 건설 CEO들의 5대 이슈는 주택/부동산 규제, 입·낙찰제도의 합리적 개선, 건설산업 규제 개혁, 양극화 해소, 해외건설 진출로 해외건설을 제외하면 모두 바뀜.
  - 당시 최대 현안 이슈는 주택/부동산 규제로서, 이는 정부의 주택 및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가격 안정을 위한 규제 강화가 당시 건설산업의 최대 시장인 주택 관련 시장의 위축을 초래했기 때문임.
  - 또한, 당시 최저가낙찰제도가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확대 적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았으며, 기존의 불합리한 업역 또는 산업 활동 규제를 완화하는 사회적 요구 등에 기인하여 일반/전문 건설업의 통합 작업이 추진됨.
  - 시장 상황 악화에 따른 중소 업체 수주 물량의 지속적 감소에 따라 대중소 업체 간의 양극화 심화가 주요 이슈로 대두됨.
- 2010년도에 건설 CEO들이 선정한 5대 현안 이슈는 최저가낙찰제 등 입·낙찰제도의 합리적 개선, 대중소·경향 간 양극화 해소, 주택/부동산 규제 완화, 부실·부적격 업체의 건설시장 퇴출, 건설업체 부도 방지 및 경영난 해소로 한 가

지 이슈를 제외하고는 5년 전과 유사함.

- 대부분의 상황들이 5년 전과 유사하게 전개되었는데, 특히 주택경기 침체 및 전월세 가격 급등에 대응하고자 내놓은 거래 활성화 대책에 대한 반응이 미미하자 건설업계에서는 지속적인 주택/부동산 규제 완화를 요구함.
- 동시에 페이퍼 컴퍼니 등 부실·부적격 업체에 대해 등록 말소 등 강제 퇴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었으며, 유동성 악화 방지를 위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만기 연장 등과 같은 정부 지원책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음.

- 2015년도 5대 이슈는 종합심사제 등 입·낙찰제도의 합리적 개선, 적정 공사비 확보, 부실/부적격 업체의 건설시장 퇴출, 지역 중소 업체 보호, 부도 방지/경영난 해소와 분양가상한제 등 주택·부동산 시장 잔존 규제 완화로 지적됨.
- 2010년과 비교하면, 2순위를 차지한 적정 공사비 확보를 제외하고는 순위에서 차이가 있을 뿐 주요 이슈는 유사함.
- 특히 입·낙찰 제도의 경우 이슈가 되는 구체적인 제도는 종합심사제로 변화하였으나, 최대 이슈가 입·낙찰 제도의 합리적 개선이라는 점은 동일함.
- 적정 공사비 확보는 실적공사비의 부작용 개선을 위하여 최근 수년간 업계가 주창하는 최대의 화두임.

## 2. 주요 이슈에 대한 인식의 변화

- 건설산업(시장)의 미래 전망은 긍정적(1996) → 부정적(2006) → 중도적(2010) → 부정적(2015)으로 변화
- 응답 결과를 추세적으로 볼 때, 최근 수년간 시장이 축소될 것이라는 예측이 더욱 강해진 경향을 띠고 있음.
- 2015년의 조사 결과 시장의 확대 추세를 전망하는 CEO는 9%에 지나지 않으며, 총 응답자의 73.1%는 시장이 축소될 것이라고 응답하여 향후 수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 향후 5년 간 건설기업의 주요 생존 전략으로는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가 여전히 중요하나 비중은 낮아졌으며, 원가 절감도 수익성 못지않게 중요한 전략으로 대두됨.
  - 응답 경향을 볼 때 수익성이 향후 건설업체의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임.
  - 해외 시장 진출은 어닝 쇼크와 최근 주택시장의 재부상에 따른 영향 등으로 2010년 20.2%에서 2015년에는 7.5%로 하락함.
- 건설 최고 경영자로서 가장 자랑스러웠을 때에 대한 응답은 15년 동안 변함없이 '흑자 시현으로 회사가 성장하였을 때'였음.
  - 다음 2, 3, 4위가 모두 국내외 완공 시설물에 대한 입주민과 대중의 감사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건설 CEO로서의 자긍심은 본인 자신의 직위에 대한 만족감보다는 자신이 CEO로 있는 기업이 수행한 일에 대한 보람에 있음을 알 수 있음.



## 제 1 장 설문조사의 개요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건설산업의 경영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산업의 발전을 현업에서 리드하고 있는 건설 최고경영자들을 대상으로 건설업계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sup>1)</sup>
- 본 설문조사는 2014년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으로 상위 500위 이내 업체의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 2015년 2월 24일부터 2015년 4월 20일까지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총 67인의 응답 결과가 있었음.
  - 설문 응답자 수가 67인이란 점을 감안해 설문 응답 결과를 전체 건설 CEO의 견해로 해석하는 것은 어려우며 해석상에 주의를 요함.
- 설문 응답에 참여한 최고경영자의 소속 건설업체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 2014년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으로 100위내 18개사, 101~200위 17개사, 201~300위 12개사, 300위 초과 20개사로 집계되었음.
  - 기업 소재지 기준으로는 수도권 25개사, 충청권 13개사, 호남권 11개사, 경상권 18개사로 조사됨.
  - 응답자의 연령은 60세 이상 24명, 50대 32명, 49세 이하가 11명임.
  - 한편,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창업 경영인 24명, 2·3세 경영인 15명, 외부 영입 경영인 10명, 자체 승진 경영인 18명으로 조사됨.
- 설문조사와 통계 처리는 조사전문업체인 (주)다빈치리서치코리아가 담당하였으며, 연구원의 연구진은 설문조사의 문항을 작성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1) 본 설문조사의 핵심 내용은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CERIK 저널」 2015년 5월호 특집으로 수록하였음.

<표 1-1> 설문조사 응답 업체 및 최고 경영자의 특성

구 분			사례 수
①	연령	49세 이하	11
		50~59세	32
		60세 이상	24
	회사와의 관계	창업 경영인	24
		2, 3세 경영인	15
		외부 영입 경영인	10
		자체 승진 경영인	18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100위	18
		101~200위	17
		201~300위	12
		301~400위	10
		401~500위	10
②	기업 소재지	수도권	25
		충청권	13
		강원권	0
		호남권	11
		영남권	18

- 본 설문조사의 문항은 건설 CEO의 경영 스타일, 건설산업 이슈, 국내 건설시장, 해외 건설시장, 남북 문제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총 3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설문조사 결과 분석은 2015년에 조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지난 15년 간 건설산업 내의 각종 이슈에 대한 건설 CEO들의 인식 변화를 비교 분석함.
- 연구원은 1996년, 2001년, 2006년, 2011년에도 건설 CEO 100인에 대해 유사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비교 가능한 항목에 한하여 주요 이슈에 대한 인식의 변화 내용

을 분석함.

- 설문조사의 분야별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자료집은 4개의 장으로 구분하였고, 부록에서는 2015년도 설문조사의 통계 내용을 수록하였음.
- 1장은 설문조사의 개요와 분석 방법을 소개
- 2장은 국내외 건설시장의 전망과 이슈를 분석
  - 국내 건설산업의 미래와 중장기 전망, 해외 건설시장 전망 및 유망 상품 등
- 3장은 건설산업 현안 이슈와 건설 경영 전략에 관한 이슈를 분석
  - 건설 제도 및 정책 개선 과제, 건설업 경영과 관련하여 경영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등을 분석
- 4장은 건설산업 주요 이슈의 변화에 대해 분석
  - 1996년부터 2015년까지 비교 가능한 건설산업 내 주요 이슈에 대해 건설 CEO들의 인식의 변화를 살펴봄.



## 제 2 장 국내외 건설시장의 전망과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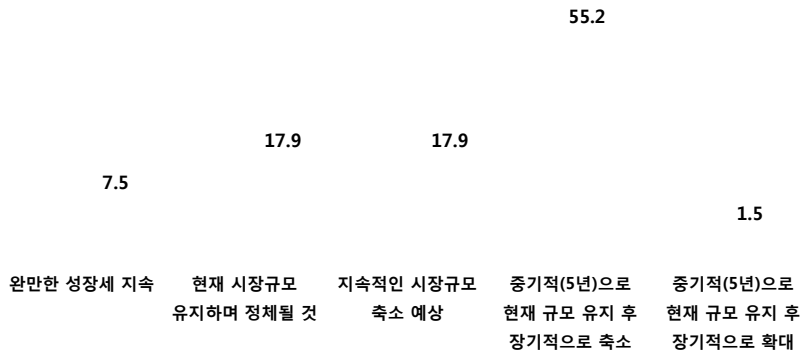
### 1. 국내 건설시장의 중장기 전망

#### ○ 국내 건설시장 규모의 중장기 전망

- 건설 CEO들에게 국내 건설시장 규모의 중장기 전망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55.2%가 ‘중기적으로 현재 규모 유지 후 장기적으로는 축소할 것’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응답 비중을 기록하였음.
- 반면, 응답자의 7.5%, 1.5%만이 각각 ‘향후 완만한 성장세 지속’, ‘중기적으로 현재 규모 유지 후 장기적으로 확대’라고 응답했음.
- 결국 응답자들은 국내 건설시장 규모의 중장기 전망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1> 국내 건설시장 규모에 대한 중장기적 전망

(단위 : %)



주 : 응답자 수는 67명임.

- 국내 건설시장 규모의 중장기적 전망에 대한 응답 결과를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그룹별로 구분해 살펴본 결과, 순위에 상관없이 모든 그룹에서 동일하게 현재 시장 규모 유지 후 장기적으로는 축소할 것이라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음.
- 결국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응답자들은 단기적으로는 국내 건설시장이 현재 규모를 유지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00위 초과 업체의 경우 완만한 성장세 지속, 중기적으로 현재 규모 유지 후 장기적 확대와 같은 낙관적 전망에 대한 응답 비율이 0.0%를 기록해 가장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1> 업체 규모별 국내 건설시장 중장기 전망**

(단위 : 명, %)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구분	응답자 수	완만한 성장세 지속	현재 시장 규모 유지/정체	지속적인 시장 규모 축소	중기적 현재 규모 유지 후 장기적 축소	중기적 현재 규모 유지 후 장기적 확대	합계
1~100위	18	5.6	16.7	22.2	55.6	0.0	100.0
101~200위	17	17.6	17.6	11.8	52.9	0.0	100.0
201~300위	12	8.3	16.7	8.3	58.3	8.3	100.0
300위 초과	20	0.0	20.0	25.0	55.0	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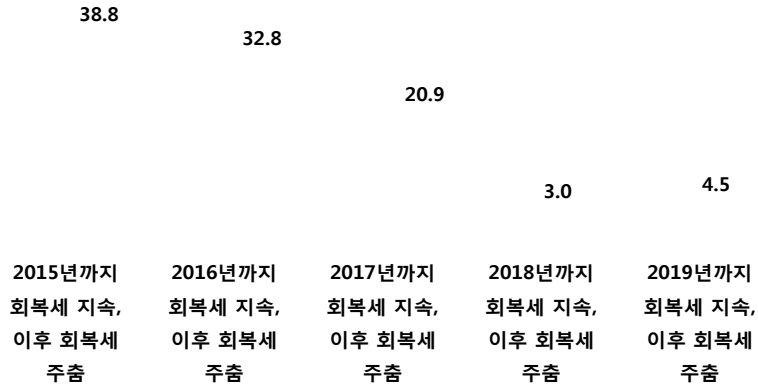
#### ○ 국내 건설 수주 회복 기간 전망

- 건설 CEO들에게 국내 건설시장의 회복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2015년까지 회복세 지속 이후 회복세 주춤’으로 응답한 비중이 38.8%를 기록해 가장 높았음.
- 2016년까지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응답 비중은 32.8%, 2017년까지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응답 비중은 20.9%를 기록해 비교적 높은 편이었음.
- 반면, 2018년, 2019년까지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응답 비중은 모두 5% 미만에 그쳤음.

- 결국, 응답자들은 현재의 시장 회복세가 향후 3년 이상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 <그림 II-2> 국내 건설시장 회복 기간 전망

(단위 : %)



주 : 응답자 수는 67명임.

- 국내 건설시장 회복 기간 전망에 대한 응답 결과를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그룹별로 분석한 결과, 1~100위 업체는 2016년까지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음.

### <표 II-2> 업체 규모별 국내 건설시장 회복 기간 전망

(단위 : 명, %)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구분	응답자 수	2015년까지 회복세 지속, 이후 회복세 주춤	2016년까지 회복세 지속, 이후 회복세 주춤	2017년까지 회복세 지속, 이후 회복세 주춤	2018년까지 회복세 지속, 이후 회복세 주춤	2019년까지 회복세 지속, 이후 회복세 주춤	합계
1~100위	18	38.9	61.1	0.0	0.0	0.0	100.0
101~200위	17	35.3	23.5	29.4	0.0	11.8	100.0
201~300위	12	16.7	33.3	41.7	0.0	8.3	100.0
300위 초과	20	55.0	15.0	20.0	10.0	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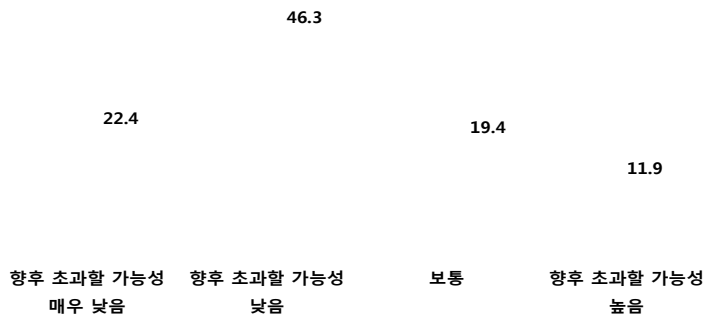
- 101~200위 업체는 전체 응답 결과와 거의 유사했으나, 2019년까지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응답 비중이 타 순위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편임.
- 201~300위 업체는 2017년까지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아 다소 더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300위 초과 업체는 2015년까지만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응답이 55.0%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가장 부정적 시각을 지닌 것으로 판단됨.

### ○ 향후 국내 건설 수주의 2007년 수주액(역대 최고치) 경신 가능성

- 국내 건설 수주액은 2007년 127.9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주택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6년 간 침체가 지속되어 2013년 수주액이 11년래 최저치인 91.3조원을 기록했음.
- 그러나, 이후 회복세를 보여 국내 건설 수주액이 2014년 107.5조원을 기록했고, 2015년에도 현재까지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음.
- 건설 CEO들에게 향후 국내 건설 수주의 2007년 수주액(역대 최고치) 경신 가능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향후 국내 건설 수주액이 역대 최고 수준이었던 2007년 수준을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응답자들은 전망했음.

### <그림 II-3> 향후 국내 건설 수주액의 역대 최고치 경신 가능성

(단위 : %)



주 : 응답자 수는 67명임.



- 응답자의 46.3%가 2007년 수주액을 초과할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했음.
-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응답한 비중도 22.4%에 달해 다수의 응답자들은 향후 국내 건설 수주가 역대 최고치인 2007년의 수준을 상회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음.
- 대다수 응답자들이 국내 건설시장의 회복세가 단기간에 그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향후 국내 건설 수주액도 기존 역대 최고치인 2007년의 127.9조원을 넘어서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판단됨.
- 향후 국내 건설 수주의 2007년 수주액(역대 최고치) 경신 가능성에 대한 응답 결과를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그룹별로 분석한 결과, 300위 초과 업체 CEO들의 85%가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응답해 가장 부정적이었음.
- 1~100위 업체들의 CEO도 77.7%가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응답해 300위 초과 업체들 다음으로 가장 부정적이었음.
- 한편, 101~200위 업체들의 CEO 응답 결과에서는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 비중이 23.5%를 기록해 가장 긍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3> 업체 규모별 향후 국내 건설 수주액 최고치 경신 가능성 전망**

(단위 : 명, %)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구분	응답자 수	초과할 가능성 매우 낮음	초과할 가능성 낮음	보통	초과할 가능성 높음	합계
1~100위	18	33.3	44.4	16.7	5.6	100.0
101~200위	17	17.6	29.4	29.4	23.5	100.0
201~300위	12	0.0	58.3	25.0	16.7	100.0
300위 초과	20	30.0	55.0	10.0	5.0	100.0

## 2. 국내 건설시장의 세부 부문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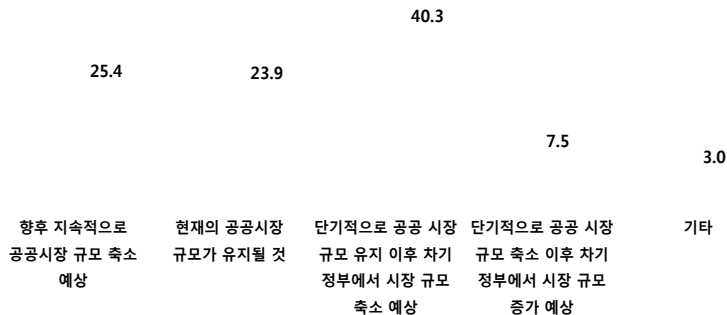
### ○ 공공 건설시장 전망

- 다음으로 건설 CEO들에게 국내 건설시장을 더 세분해 향후 전망에 대해 질문했음.

- 먼저, 공공 건설시장의 중장기 전망에 대해 질문한 결과, 단기적으로 현재 시장 규모 유지 후 차기 정부에서 축소될 것이라는 응답 비중이 40.3%로 가장 높았음.
- 두 번째로는 향후 지속적으로 공공 시장 규모가 축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25.4%의 비중을 기록했음.
- 그러나, 현재의 공공 시장 규모 유지, 단기적으로 공공 시장 축소 후 차기 정부에서 증가 등의 응답 비중도 각각 23.9%, 7.5%를 기록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음.
- 작년부터 최근까지 정부에서 거시경제 침체를 극복하고자 SOC 예산을 확대하고, 공공 기업 투자를 확대하는 등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다소 긍정적 응답을 유도한 것으로 판단됨.
- 종합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전망하기 어려우나, 단기적으로는 공공 시장 규모가 최소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음.

#### <그림 II-4> 공공 건설시장 규모에 대한 중장기 전망

(단위 : %)



주 : 응답자 수는 67명임.

- 한편, 공공 건설시장 규모의 중장기 전망에 대한 응답 결과를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그룹별로 분석한 결과, 101~200위 업체 CEO의 응답 결과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전체 응답 결과와 유사하게 현재 시장 규모 유지 후 차기 정부에서 축소될 것으로 전망한 응답 결과가 가장 비중이 높았음.
- 특히 1~100위 업체 CEO의 61.1%가 현재 시장 규모 유지 후 차기 정부에서 축소

될 것으로 전망해 전체 응답 결과와 가장 유사했음.

<표 II-4> 업체 규모별 공공 건설시장 규모에 대한 중장기 전망

(단위 : 명, %)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구분	응답자 수	지속적으로 공공시장 규모 축소	현재의 공공시장 규모 유지	단기적으로 공공 시장 규모 유지 이후 차기 정부에서 축소	단기적으로 공공 시장 규모 축소 이후 차기 정부에서 증가	기타	합계
1~100위	18	16.7	16.7	61.1	0.0	5.6	100.0
101~200위	17	35.3	35.3	23.5	5.9	0.0	100.0
201~300위	12	8.3	33.3	33.3	16.7	8.3	100.0
300위 초과	20	35.0	15.0	40.0	10.0	0.0	100.0

#### ○ 공공 건설시장의 비중 변화 전망

- 다음으로 건설 CEO들에게 향후 공공 건설시장의 비중 변화에 대해 질문한 결과, '약 30% 내외 수준으로 비중 유지'라고 응답한 비중이 64.2%로 가장 높았음.

<그림 II-5> 공공 건설시장의 비중 변화 전망

(단위 : %)



주 : 응답자 수는 67명임.

- 두 번째로는 20% 내외 수준으로 비중 축소라고 응답한 비중이 17.9%를 기록했는데, 첫 번째 응답 비중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었음.
- 결국 대다수의 CEO들은 향후에도 공공 건설시장이 국내 건설시장에서 현재와 같은 비중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공공 건설시장의 비중 변화 전망에 대한 응답 결과를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그룹별로 살펴본 결과, 순위 그룹에 관계없이 모든 그룹의 CEO들이 약 30% 내외 수준으로 비중 유지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음.
- 결국 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다수의 CEO들은 향후에도 공공 건설시장이 국내 건설시장에서 현재와 같은 비중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표 II-5> 업체 규모별 공공 건설시장의 비중 변화 전망

(단위 : 명, %)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구분	응답자 수	약 50% 내외 수준으로 비중 확대	약 40% 내외 수준으로 비중 확대	약 30% 내외 수준으로 비중 유지	약 20% 내외 수준으로 비중 축소	약 10% 내외 수준으로 비중 축소	합계
1~100위	18	0.0	0.0	77.8	22.2	0.0	100.0
101~200위	17	11.8	11.8	64.7	11.8	0.0	100.0
201~300위	12	0.0	16.7	66.7	8.3	8.3	100.0
300위 초과	20	5.0	20.0	50.0	25.0	0.0	100.0

#### ○ 민자 건설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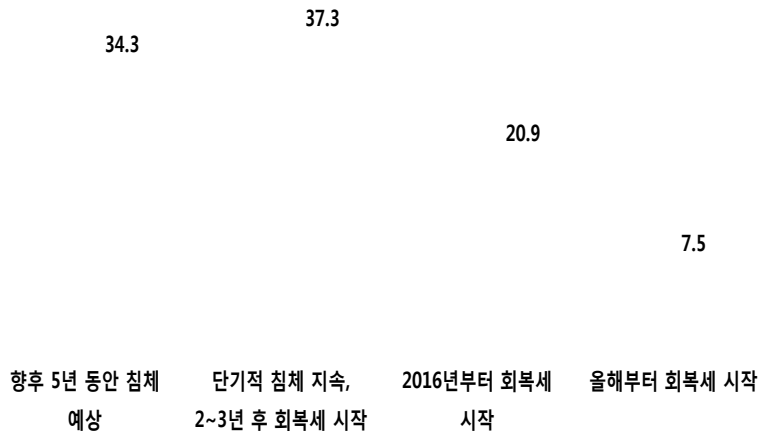
- 최근 정부는 공공 재정이 제한적인 가운데 경기 부양, 공약 사업 추진을 위해 민자 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이에 향후 5년 동안 민자 건설시장 전망에 대해 질문하였음.
- 그 결과, 응답자의 37.3%가 ‘단기적 침체 지속, 2~3년 후 회복세 시작’으로 응답해 가

장 높은 응답 비중을 기록했음.

- 2016년부터 회복세 시작으로 응답한 비중은 20.9%, 올해부터 회복세 시작은 7.5%의 응답 비중을 기록했음.
- 최근 정부의 비교적 전향적인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로 긍정적 전망이 다소 우세한 가운데, 회복 시작은 1~3년 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인 견해였음.
- 그러나, 향후 5년 동안 침체 지속으로 응답한 비중도 34.3%를 기록해 부정적 시각도 적지 않았음.

### <그림 II-6> 향후 5년 간 민자 건설시장에 대한 전망

(단위 : %)



주 : 응답자 수는 67명임.

-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그룹별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1~100위 그룹에 속한 건설 CEO들의 61.1%가 '단기적인 침체 후 회복세 시작'으로 응답하여 가장 두드러진 비중을 보였음.
- 시공능력평가액 순위가 낮은 그룹에 속한 CEO일수록 향후 5년 동안 침체에 응답한 비중이 높아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일수록 민자시장 회복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우세한 편이었음.

<표 II-6> 업체 규모별 향후 5년 간 민자 건설시장에 대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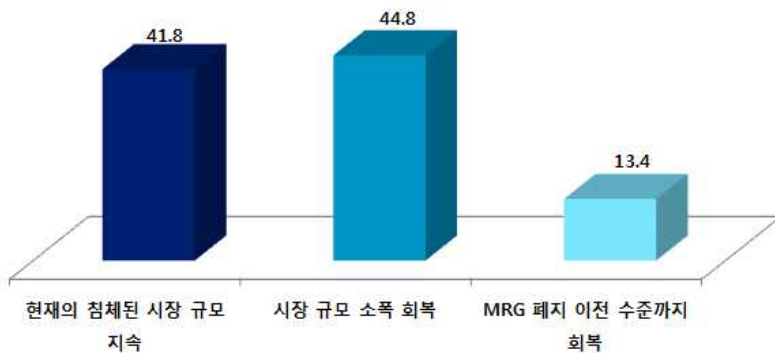
(단위 : 명, %)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구분	응답자 수	향후 5년 동안 침체 예상	단기적 침체 지속, 2~3년 후 회복세 시작	2016년부터 회복세 시작	올해부터 회복세 시작	합계
1~100위	18	22.2	61.1	11.1	5.6	100.0
101~200위	17	29.4	29.4	23.5	17.6	100.0
201~300위	12	41.7	16.7	33.3	8.3	100.0
300위 초과	20	45.0	35.0	20.0	0.0	100.0

- 한편, 향후 5년 후 민자 건설시장 규모에 대한 전망에 대해 질문한 결과, ‘시장 규모 소폭 회복’으로 응답한 비중이 44.8%를 기록해 가장 응답 비중이 높았음.
- 현재 침체된 시장 규모가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 비중도 41.8%를 기록하여 상당히 높았음.
- 반면, MRG 폐지 이전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응답한 비중은 13.4%에 그쳤음.

<그림 II-7> 향후 5년 후 민자 건설시장 규모에 대한 전망

(단위 : %)



주 : 응답자 수는 67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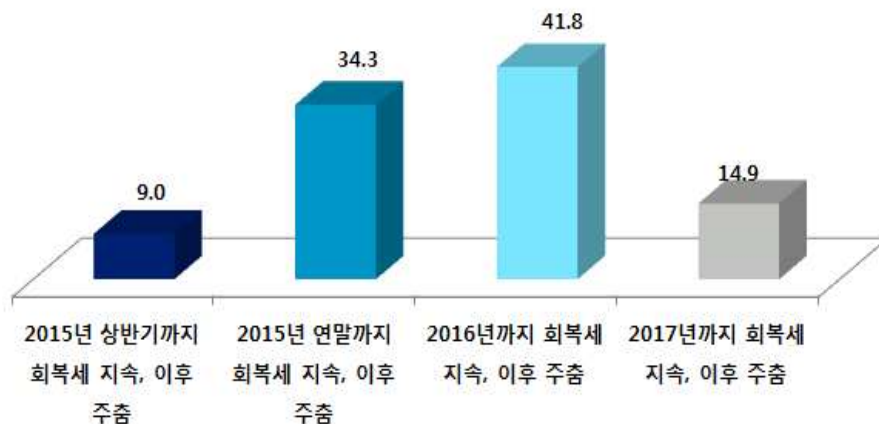
- 결국 향후 민자 건설시장이 회복되더라도 시장 규모는 완만한 속도로 회복될 것으로 다수의 CEO들이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주택시장 전망

- 최근 주택시장은 수도권의 신규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이에 건설 CEO들에게 주택 건설시장이 향후 언제까지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질문하였음.
- 그 결과, 향후 1, 2년 간 회복세를 보이고 이후 회복세가 주춤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였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6년까지 회복세를 지속한 이후 회복세가 주춤할 것이라는 응답 비중이 41.8%를 기록해 가장 높았음.

<그림 II-8> 향후 주택 건설시장 회복세 전망

(단위 : %)



주 : 응답자 수는 67명임.

- 2015년 연말까지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응답 비중도 34.3%를 기록함으로써 두 번째로 높았고, 다음으로는 2017년까지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응답 비중이 14.9%를 기록하였음.
- 반면, 2015년 상반기까지만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비관적인 응답 비중은 9.0%에 그쳤음.

- 결국 응답자들은 최근 주택 건설시장의 회복세가 초단기적으로 끝나지는 않고, 올해 연말이나 내년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했음.
- 그러나, 2017년까지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 주택 건설시장의 회복세가 2년을 초과하여 장기화될 것으로는 보는 견해는 적었음.
- 한편,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그룹별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순위 그룹에 상관없이 2015년 또는 2016년까지 주택 건설시장의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응답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음.
- 201~300위 업체 CEO들의 25.0%가 2017년까지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응답해 상대적으로 장기 회복세에 대한 전망 의견이 가장 많았음.
- 반면, 1~100위 업체 CEO들은 5.6%만이 2017년까지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응답해 상대적으로 장기 회복세에 대해 가장 부정적이었음.

#### <표 II-7> 업체 규모별 향후 주택 건설시장 회복세 전망

(단위 : 명, %)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구분	응답자 수	2015년 상반기까지 회복세 지속, 이후 주춤	2015년 연말까지 회복세 지속, 이후 주춤	2016년까지 회복세 지속, 이후 주춤	2017년까지 회복세 지속, 이후 주춤	합계
1~100위	18	5.6	38.9	50.0	5.6	100.0
101~200위	17	0.0	35.3	47.1	17.6	100.0
201~300위	12	16.7	25.0	33.3	25.0	100.0
300위 초과	20	15.0	35.0	35.0	15.0	100.0

#### ○ 주택시장 회복 방해 요인

- 다음으로, 향후 주택 건설시장의 회복세가 지속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에 대해 질문하였음. 그 결과, 1순위 방해 요인으로 가장 많이 응답된 것이 응답 비중 25.4%를 기록한 가계부채 문제로 나타났음.
- 다음으로는 국내의 거시경제 회복세 부진 및 저성장 지속이 응답 비중 19.4%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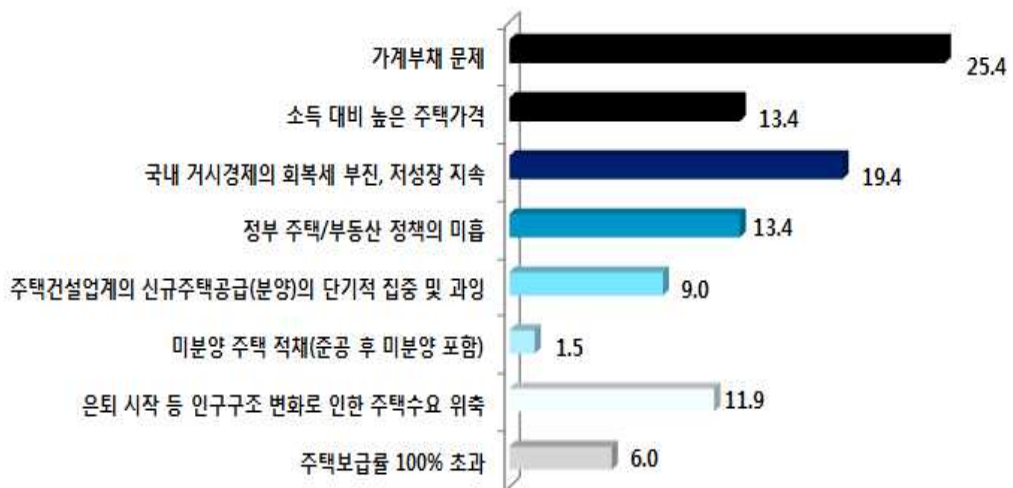


해 두 번째로 지목되었음.

- 정부 정책의 미흡은 13.4%를 기록했는데, 최근 잇단 부동산 대책 발표 등의 영향으로 가계부채, 저성장 지속 등의 요인보다는 응답 비중이 낮았음.
- 그러나 정부 정책과 달리 가계부채, 저성장 지속 등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향후 주택 건설시장의 회복세를 좀 더 지속시키기 위한 해법 마련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예측케 함.

<그림 II-9> 주택 건설시장 회복 방해 요인

(단위 : %)



주 : 응답자 수는 67명이며, 1순위 응답 비중임.

- 한편,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그룹별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순위 그룹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매우 심각한 방해 요인으로 지적하였음.
- 다만, 1~100위 업체의 CEO들은 가계부채 문제보다는 국내 경제의 회복 부진과 저성장 지속, 인구 구조의 변화 요인 등을 가장 심각한 방해 요인으로 인식(각각 33.3%로 응답)하고 있었음.

<표 II-8> 업체 규모별 주택 건설시장 회복 방해 요인 인식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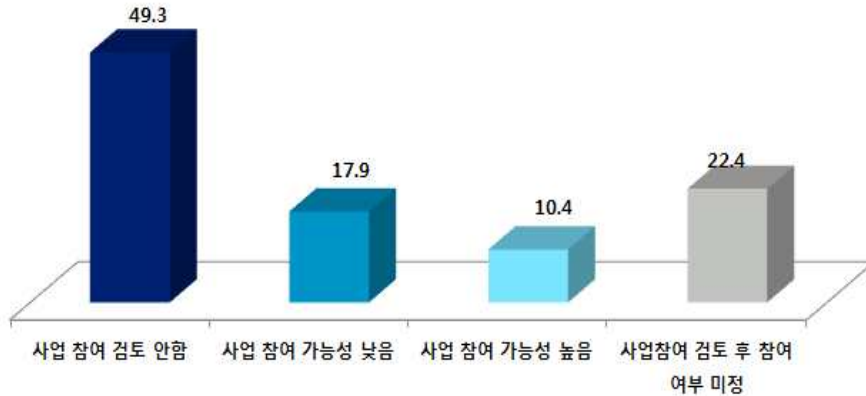
구 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구분			
	1~100위	101~200위	201~300위	300위 초과
응답자 수	18	17	12	20
가계부채 문제	22.2	23.5	25.0	30.0
소득 대비 높은 주택가격	0.0	17.6	25.0	15.0
국내 거시경제의 회복세 부진, 저성장 지속	33.3	11.8	16.7	15.0
정부 주택/부동산 정책의 미흡	5.6	17.6	16.7	15.0
주택건설업계의 신규 주택 공급(분양)의 단기적 집중 및 과잉	5.6	5.9	16.7	10.0
미분양 주택 적체 (준공 후 미분양 포함)	0.0	0.0	0.0	5.0
베이비부머 은퇴 시작 등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주택 수요 위축	33.3	5.9	0.0	5.0
주택보급률 100% 초과	0.0	17.6	0.0	5.0
합계	100.0	100.0	100.0	100.0

### ○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 참여 의향

- 최근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이에 설문조사를 통하여 건설 CEO들에게 동 사업에 대한 참여 의향을 질문했음.
- 그 결과, 응답자의 10.4%가 사업 참여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고, 현재 사업 참여 검토 중이나 참여 여부는 미정이라는 응답이 22.4%를 기록했다.
- 사업 참여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중이 49.3%를 기록한 것을 볼 때 응답자의 약 50%가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참여를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응답자의 17.9%는 참여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해 검토 기업의 절반 가까이는 사업 참여에 부정적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임.

<그림 II-10>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 참여 의향

(단위 : %)



주 : 응답자 수는 67명임.

-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그룹별로 살펴보면, 1~100위 사이 기업 CEO들이 상대적으로 가장 긍정적으로 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100위 이하 기업 CEO들의 응답에서는 참여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중이 급격히 떨어졌음.
- 다만, 101~200위 사이 기업의 CEO들은 현재 사업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나 결정을 내리지 못한 응답 비중이 29.4%를 기록해 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II-9> 업체 규모별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 참여 의향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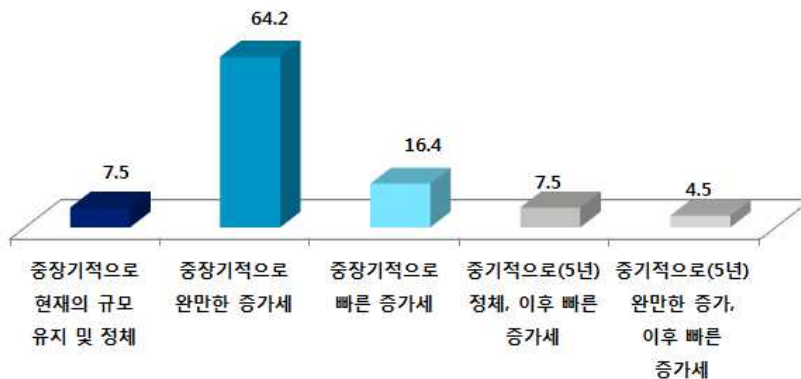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구분	응답자 수	사업 참여 검토 안함	사업 참여 가능성 낮음	사업 참여 가능성 높음	사업 참여 검토 후 참여 여부 미정	합계
1~100위	18	27.8	16.7	22.2	33.3	100.0
101~200위	17	58.8	5.9	5.9	29.4	100.0
201~300위	12	58.3	25.0	8.3	8.3	100.0
300위 초과	20	55.0	25.0	5.0	15.0	100.0

## ○ 유지보수시장의 중장기 전망

- 국내 건설시장은 중장기적으로 신축 위주에서 유지보수 위주로의 변화가 예상됨. 이에 건설 CEO들이 이러한 국내 건설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질문하였음.
- 향후 유지보수시장의 중장기 전망에 대해 응답자의 64.2%가 중장기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응답했음.
  - 중장기적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는 응답 비중이 16.4%를 기록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였으나,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는 응답 비중과는 격차가 매우 컸음.
  - 그 외 답변에 대한 응답 비중은 매우 낮아 응답자들은 대체적으로 향후 유지보수 시장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음.

<그림 II-11> 유지보수시장의 중장기 전망

(단위 : %)



주 : 응답자 수는 67명임.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기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유지보수시장은 2020년까지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점점 증가세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었음.<sup>2)</sup>

2) 이홍일, 박철한, '국내 건설투자의 중장기 변화 추이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이슈포커스 2014-11, 2014. 7. 10, pp.35~36.

- 중기적으로는 설문 응답과 차이가 없으나, 장기적으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그룹별로 살펴보면, 순위 그룹에 상관없이 유지보수시장이 중장기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음.
- 세부적으로는 101~200위, 300위 초과 기업의 CEO들이 중장기적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는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 유지보수시장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시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10> 업체 규모별 유지보수시장의 중장기 전망**

(단위 : 명, %)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구분	응답자 수	중장기적으로 현재의 규모 유지 및 정체	중장기적으로 완만한 증가세	중장기적으로 빠른 증가세	중기적으로 (5년) 정체, 이후 빠른 증가세	중기적으로 (5년) 완만한 증가, 이후 빠른 증가세	합계
1~100위	18	0.0	66.7	11.1	16.7	5.6	100.0
101~200위	17	0.0	64.7	23.5	11.8	0.0	100.0
201~300위	12	8.3	75.0	8.3	0.0	8.3	100.0
300위 초과	20	20.0	55.0	20.0	0.0	5.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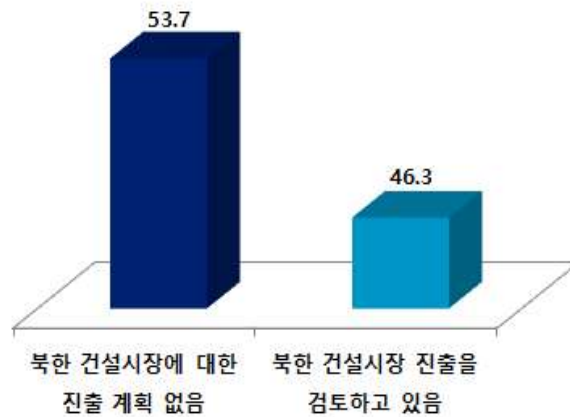
#### ○ 북한 건설시장

- 북한 건설시장 진출 계획 여부에 대한 것으로 응답 건설 CEO 가운데 46.3%가 북한 건설시장에 대한 진출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에 진출 계획이 없다는 응답도 53.7%가 있었음. 다만, 1~100위 이내 기업 CEO들의 북한 건설시장 진출 의향은 72.2%로 나타나 전체 응답의 경향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북한 건설시장 진출시 유망한 분야 1순위는 도로(56.7%)인 것으로 조사됨. 다음으

- 로 도시 및 신도시 개발(9.0%), 발전소/송전 시설(7.5%), 주택(7.5%) 순으로 집계됨.
- 1+2+3순위까지 집계해본 결과, 도로의 선호도는 여전하였으나 다음으로 철도/전철(2위), 발전소/송전 시설(3위), 도시 및 신도시 개발(4위), 산업단지 조성(5위), 주택(6위)으로 우선순위가 다소 변경되었음.

<그림 II-12> 북한 건설시장에 대한 진출 계획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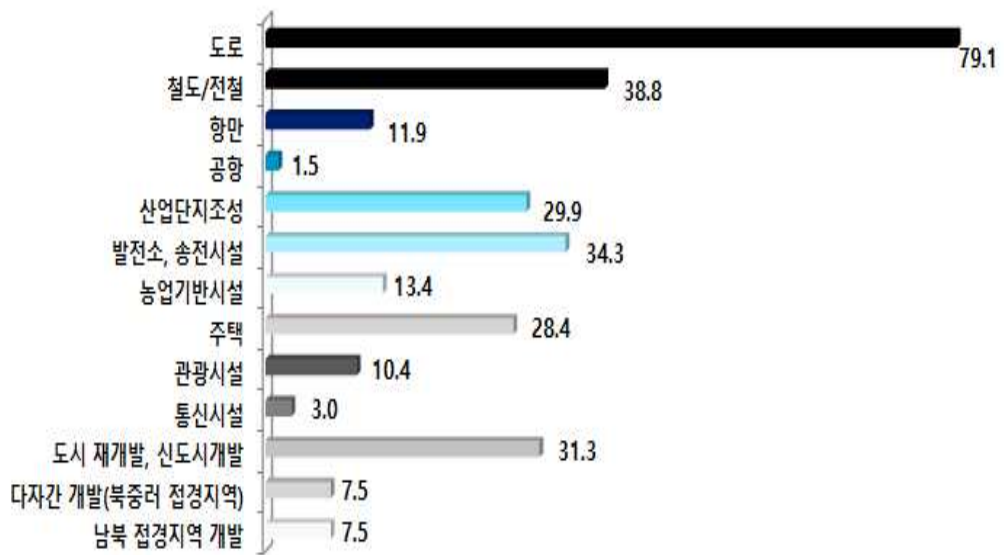


주 : 응답자 수는 67명임.

- 기업 유형별로 보았을 때 모든 기업이 도로를 가장 유망한 분야로 응답함. 1~100위의 기업에서는 도로(61.1%), 철도/전철과 다자간 개발(11.1%) 순으로 조사되었음.
  - 101~200위 기업의 경우 도로(52.9%), 발전소(11.8%), 그리고 송전 시설과 도시 개발(11.8%) 순으로 집계됨.
- 북한 건설시장 진출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CEO들은 사업 위험성 해소를 위한 지원(65.7%)을 1순위로 강조하였음. 다음으로 원활한 건설 활동 수행을 위한 3통(통행, 통관, 통신) 문제 해결(14.9%)을 지목함.
  - 중요한 지원 정책 1+2순위를 종합했을 경우, 사업성(경제성)에 대한 정부의 지원(3위)과 민간투자사업 추진시 북한 당국과의 협상 및 협약 사항 이행에 관한 지원(4위)도 강조됨.

<그림 II-13> 북한 시장 진출시 유망한 분야 1+2+3순위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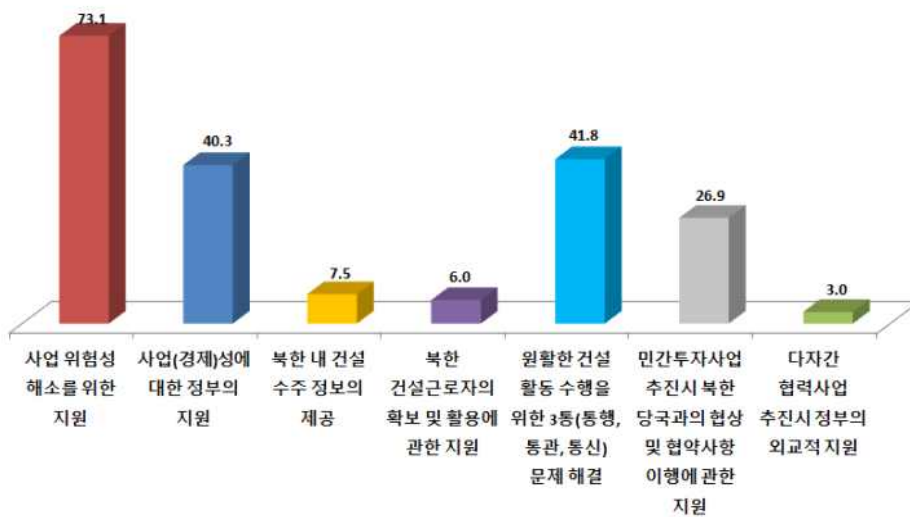
(단위 : %)



주 : 응답자 수는 67명임.

<그림 II-14> 북한 시장 진출시 정부 지원 1+2순위 종합

(단위 : %)



주 : 응답자 수는 67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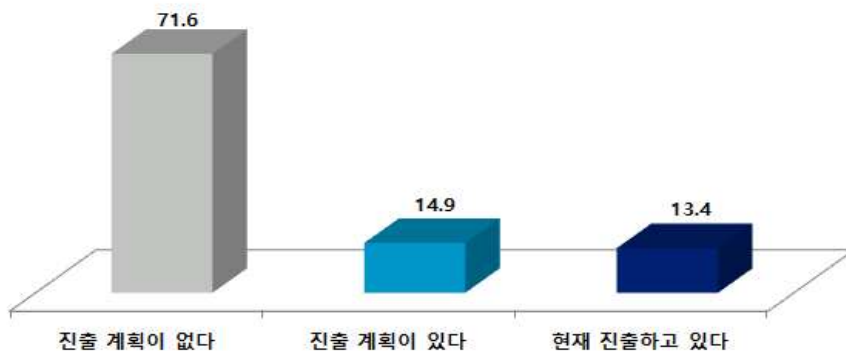
### 3. 해외 건설시장 수출 목표 및 진출 의지

#### ○ 희망 시장 권역 및 시장 전망

- 해외 건설시장 진출 의향에 대하여 물은 결과, 응답한 건설 CEO의 14.9%는 진출 계획이 있는 것으로 답함.
- 반면에 ‘계획 없음’이라고 답변한 CEO는 71.6%, 이미 진출한 경우는 13.4%였음.
- 참고로 2011년 조사 결과에서는 진출 계획이 있다는 답변이 29%, 계획이 없는 경우가 45%, 이미 진출한 기업은 26%였음.
- 기업 규모간에도 차이가 있었는데, 1~100위 기업은 진출 계획이 있는 기업이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남. 반면에 101위 이하 기업에서는 76.5% 이상의 응답자가 진출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음.
- 해외건설 진출의 의지가 다소 퇴보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해외 건설시장의 경쟁 심화와 리스크 등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림 II-15> 해외 건설시장 진출 계획

(단위 : %)



주 : 응답자 수는 67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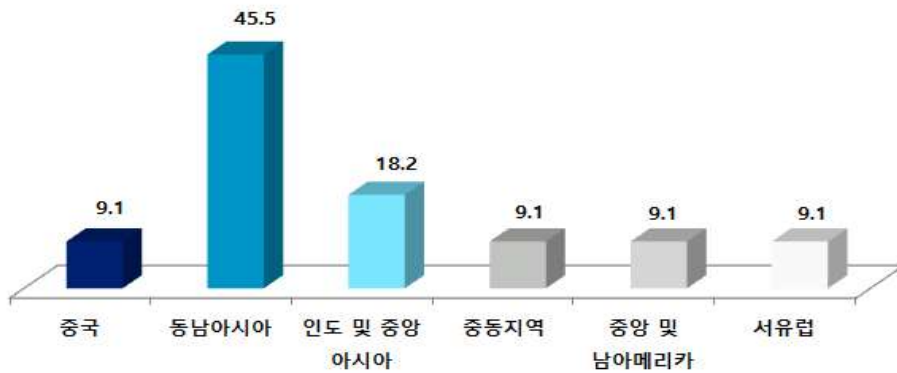
- 신규로 가장 먼저 진출하고자 하는 해외 시장의 권역은 동남아시아로 45.5%가 응답하였음. 다음으로 인도 및 중앙아시아(18.2%), 중동(9.1%) 순이었음.



- 2011년 조사하여 나타난 인도 및 중앙아시아(20.7%), 중국과 중동(17.2%)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 것으로 조사됨.
- 새롭게 개척해야 할 권역도 마찬가지로 동남아시아, 인도 및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순으로 조사되었음.

<그림 II-16> 선호하는 해외 시장 진출 권역 1순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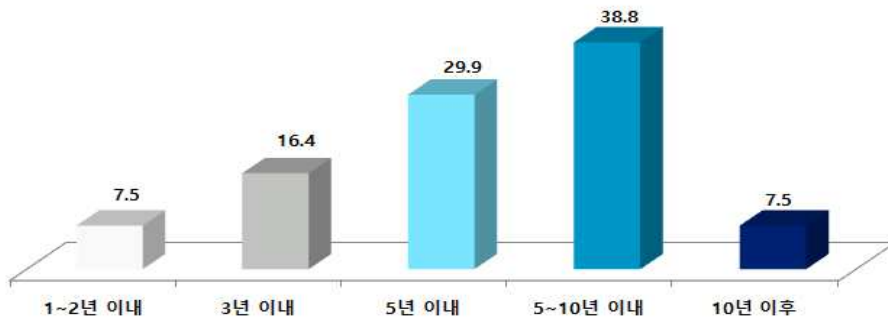


주 : 응답자 수는 67명임.

- 한편, 중동 시장의 퇴조 시기는 5~10년 이내(38.8%)와 5년 이내(29.9%)일 것으로 가장 많이 예상하였음.

<그림 II-17> 중동시장의 예상 퇴조 시기

(단위 : %)



주 : 응답자 수는 67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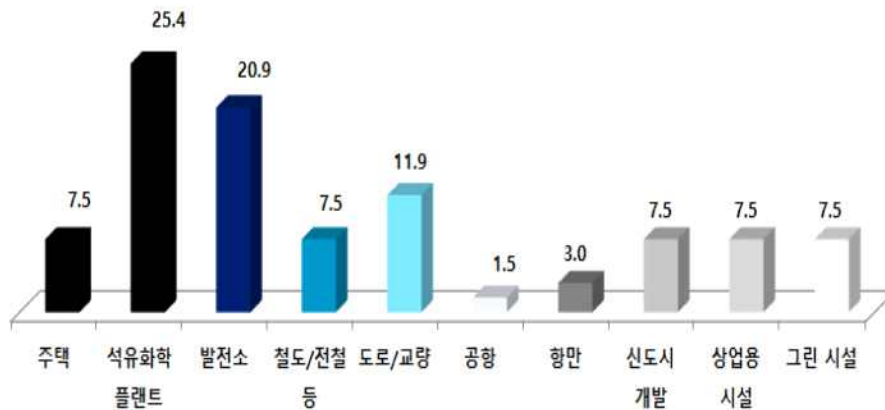
- 종합하면 응답자의 약 93%가 10년 이내에 중동 시장의 퇴조 시기를 예상한 것으로 집계됨.
- 기업 규모별로는 201~300위 기업의 CEO가 다른 기업군의 CEO보다는 중동 시장의 퇴조 시기가 좀 더 일찍 올 것으로 예상하였음. '5년 이내'를 꼽은 비중이 전체의 83.4%를 차지함.

## ○ 해외 건설시장의 유망 상품과 국내 건설기업의 전략

- 해외 시장에서 유망한 건설 상품으로는 여전히 석유화학 플랜트(25.4%)를 지목하였음. 다음으로 발전소(20.9%), 도로/교량(11.9%) 순으로 집계됨.

<그림 II-18> 해외 시장에서 유망한 건설상품 1순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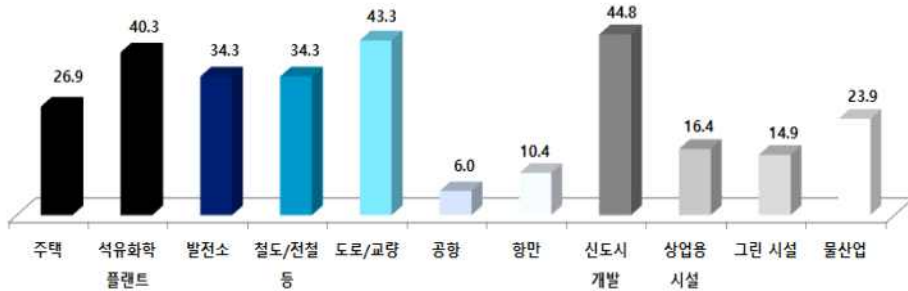


주 : 응답자 수는 67명임.

- 여기서 유망한 상품 1, 2, 3순위를 종합할 경우 유망 상품의 순위가 달라짐. 신도시 개발이 1순위를 차지하였고, 도로/교량이 2순위, 그리고 석유화학 플랜트가 3순위를 차지하는 등 순위가 변화하였음.
- 이러한 조사 결과는 2011년 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나왔으나 비중 측면에서는 그 중요성이 과거에 비해 더욱 강조되었다고 할 수 있음.

<그림 II-19> 해외 시장에서 유망한 건설상품 1+2+3순위 종합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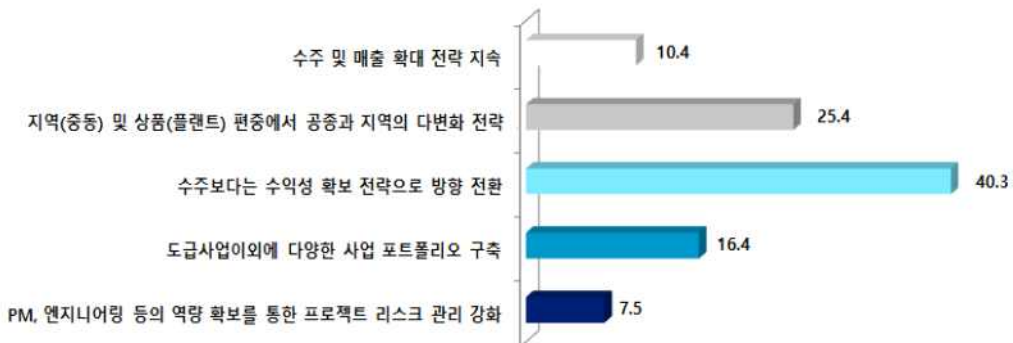


주 : 응답자 수는 67명임.

- 해외 시장에 대한 국내 건설기업의 전략은 수주보다는 수익성 확보(40.3%)로 방향 전환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다음으로 공종과 지역의 다변화(25.4%), 도급 사업 이외에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16.4%)의 중요성을 피력하였음.
- 참고로 조사 대상 CEO 가운데 1~100위 기업의 소속 CEO는 지역 및 공종 다변화와 수익성 확보 전략을 동등하게 강조한 바 있음.

<그림 II-20> 해외 시장에 대한 건설 CEO의 강조 전략

(단위 : %)



주 : 응답자 수는 67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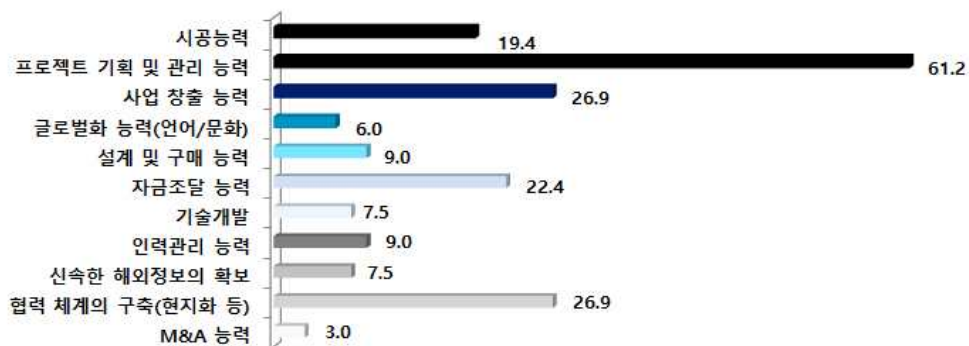
- 시공능력평가액 순위별로 살펴보면, 1~100위 기업에서는 지역 및 상품 편중에서 공종과 지역의 다변화 전략과 수익성 확보 전략으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

견이 각 44.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201~300위 기업에서는 50% 이상이 수익성 확보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응답함.
- 301~400위 기업에서는 도급 사업 이외에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한 다와 수주 및 매출 확대 전략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30%로 가장 높게 조사됨.
- 해외 시장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기술 역량은 2011년의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기획 및 관리 능력(49.3%)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다음으로 사업 창출 능력과 시공 능력이 각각 14.9%인 것으로 나타남.
- 중요한 역량을 1순위와 2순위를 종합하여 집계하여도 프로젝트 기획 및 관리 능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음. 다만, 협력 체계의 구축(현지화 등)도 차순위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1~100위 기업군에서는 글로벌화 능력(16.7%)이 타 기업 군에 비해 강조된 역량으로 조사됨.
- 101~200위 기업군에서는 신속한 해외 정보의 확보(17.6%), 인력관리 능력(11.8%) 이 강조됨.

<그림 II-21> 해외 시장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역량 1+2순위 종합

(단위 : %)



주 : 응답자 수는 67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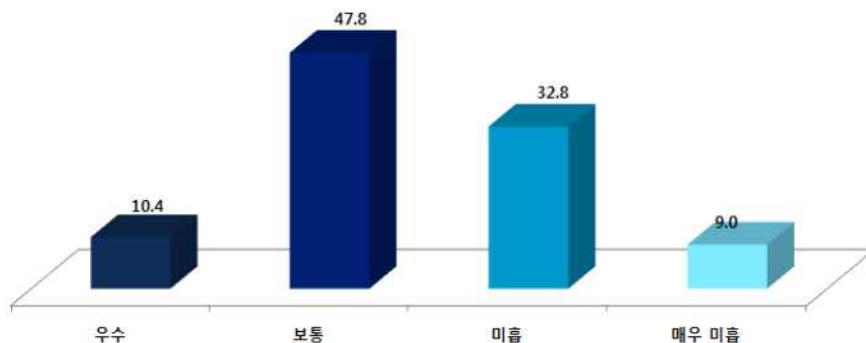
## 1. 건설 제도 및 정책 개선 과제

## ○ 현 정부의 입·낙찰 정책에 대한 평가

- 현 정부의 입·낙찰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미흡하다는 응답이 32.8%인 반면, 우수하다는 응답은 10.4%에 그쳤음.
-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 과제에 대한 응답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종합심사낙찰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등 정부 정책들이 건설업체 입장에서 실효성이 있다고 느끼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 이를 시공능력순위별로 살펴보면, 1~100위와 201~300위권 건설업체들 모두 입·낙찰 정책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상위권 건설업체뿐 아니라 중위권 건설업체 모두 정부의 입·낙찰 정책을 만족스럽지 못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lt;그림 III-1&gt; 현 정부의 입·낙찰 정책에 대한 평가

(단위 : %)



주 : 응답자는 67명임.

<표 III-1> 업체 규모별 입·낙찰 정책에 대한 평가

(단위 :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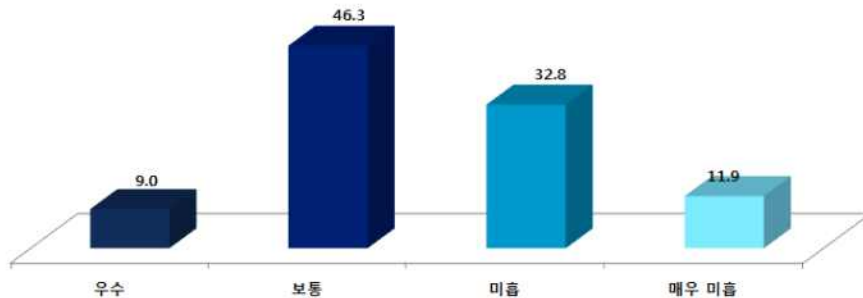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구분	사례 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계	5점 평균
전체	(67)	10.4	47.8	32.8	9.0	100.0	2.60
1~100위	(18)	22.2	22.2	44.4	11.1	100.0	2.56
101~200위	(17)	11.8	64.7	17.6	5.9	100.0	2.82
201~300위	(12)	0.0	33.3	50.0	16.7	100.0	2.17
300순위 초과	(20)	5.0	65.0	25.0	5.0	100.0	2.70

○ 현 정부의 적정 공사비 확보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 다음으로 적정 공사비 확보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도 미흡하다는 의견이 32.8%를 차지한 반면, 우수하다는 의견은 9%에 그치고 있음.

<그림 III-2> 현 정부의 적정 공사비 확보 정책에 대한 평가

(단위 : %)



주 : 응답자는 67명임.

- 이는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공공공사 적정성 제고를 위한 기존의 실적공사비가 실제 공사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데 따르는 결과인 것으로 보임.
- 이러한 결과는 기업 규모별로도 비슷하였는데, 시공능력평가 1~100위, 101~200위, 201~300위권 건설업체 모두 과반수 이상이 적정 공사비 확보 관련 정책이 미흡하

다고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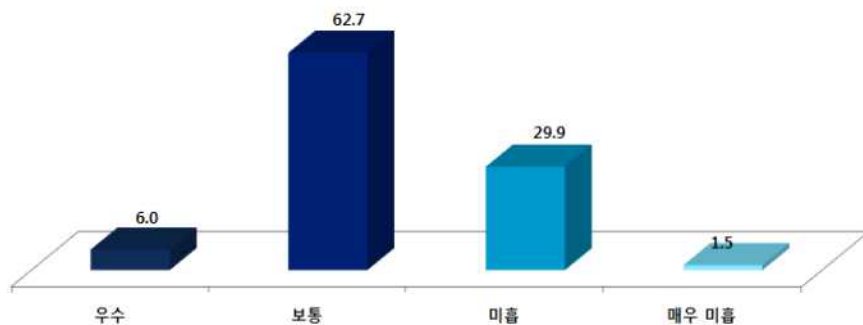
- 최근 공공공사 공사비 적정성 제고를 위해 실적공사비제도를 개선하여 표준시장단가가 새로이 도입됨. 새롭게 도입된 표준시장단가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향후 공공공사의 적정 공사비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 현 정부의 산업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평가

- 현 정부의 산업 구조조정 관련 정책 또한 29.9%가 미흡하다고 응답한 반면, 우수하다는 응답은 6%에 그침.
- 시공능력순위별로 살펴보면 1~200위까지의 건설업체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20%대인 반면, 201~300위 건설업체는 41.7%를 차지해 하위 업체일수록 산업 구조조정 정책의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었음.

<그림 III-3> 현 정부의 산업 구조조정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단위 : %)



주 : 응답자는 67명임.

- 계속되는 금융위기와 부동산시장 침체로 2008년 이후 국내 공사 물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낙찰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부적격 업체들이 증가하는 상황에 따라 부실 부적격 업체의 퇴출이 건설산업의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도 부적격 업체에 대한 실사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설문조사 결과에서와 같이 관련 정책의 실효성은 낮은 상황임.

- 따라서 향후 산업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망됨.

### <표 III-2> 업체 규모별 산업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평가

(단위 :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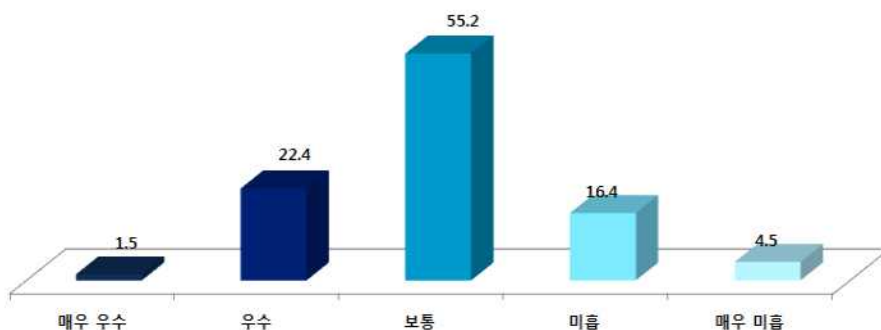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구분	사례 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계	5점 평균
전체	(67)	6.0	62.7	29.9	1.5	100.0	2.73
1~100위	(18)	5.6	66.7	27.8	0.0	100.0	2.8
101~200위	(17)	5.9	64.7	29.4	0.0	100.0	2.8
201~300위	(12)	8.3	50.0	41.7	0.0	100.0	2.7
300순위 초과	(20)	5.0	65.0	25.0	5.0	100.0	2.70

#### ○ 현 정부의 주택·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

- 한편, 현 정부 출범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가장 관심을 기울인 주택·부동산 관련 정책의 경우에는 전자의 두 정책과 달리 우수하다는 응답이 22.4%로 미흡하다는 의견(16.4%)보다 다소 높았음.

### <그림 III-4> 현 정부의 주택/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단위 : %)



주 : 응답자는 67명임.



- 특히, 시공능력순위 1~100위의 건설업체의 경우 우수하다는 의견이 45.5%인 반면, 101~200위 업체는 미흡하다가 23.5%로 우수보다 더 높아 상위 업체일수록 현 정부의 주택·부동산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시사함.
- 이는 대형 건설업체들의 경우 최근 몇 년 간 입찰담합 문제로 상대적으로 공공공사 참여율이 낮아 민간 주택·부동산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의 실효성을 더 크게 체감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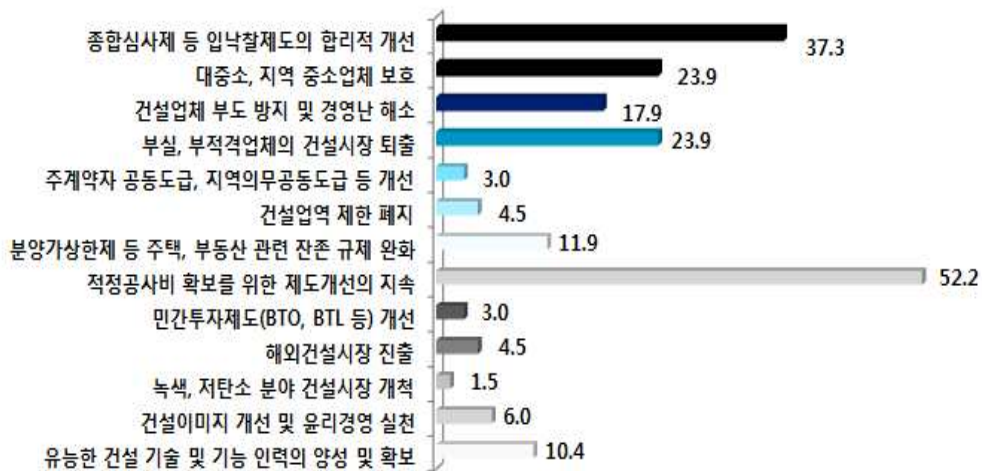
### ○ 현 시점에서의 건설업계 최대 현안 과제(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 현재 건설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최대 현안으로 상위와 하위 건설업체 모두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의 지속(52.2%)을 지적하였음. 다음으로는 종합심사제 등 입·낙찰 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37.3%로 2순위를 기록했으며, 대중소 지역 중소업체 보호와 부실·부적격 업체의 건설시장 퇴출이 각기 23.9%로 3순위를 차지함.
- 설문조사 결과와 같이 적정 공사비 확보는 수익성과 직결됨으로써 업체의 생존을 결정하는 문제이므로 업체의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건설업체에게 중요한 사항임을 알 수 있음.
- 종합심사제 등 입·낙찰 제도의 합리적 개선(37.3%)도 규모에 관계없이 중요한 이슈로 꼽혔는데, 이는 공공공사를 수주하는 데 있어 입·낙찰 제도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결과임.
- 다만, 3순위로 꼽힌 부실·부적격 업체의 건설시장 퇴출은 물량이 점차 감소하는 상황에서 건설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대다수 건설업체가 공감하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대중소 지역 업체 보호는 지역간에 다소 차이가 있는 이슈로서 응답 기업 중 서울/수도권 기업(37.3%)보다는 지역 업체가 다수를 차지(62.7%)하여 나타난 결과로도 풀이될 수 있을 것임.
- 건설업계 최대 현안의 경우 시공능력순위별로는 다소 차이를 보였음. 다만, 업체의 규모나 업종에 상관없이 최대 현안은 각종 건설 관련 규제의 개선과 잔존 규제의 완화라는 것을 알 수 있음.

- 상위 건설업체의 경우 입·낙찰 정책 제도에 대한 문제를 중요 현안으로 선정한 반면, 건축을 주로 하는 중견 업체의 경우 부동산 관련 정책을 중요 현안으로 선정함.
- 시공능력순위 하위 건설업체는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중요 현안으로 꼽음.

<그림 III-5> 건설업계의 최대 현안 이슈(순위 종합)

(단위 : %)



주 : 응답자는 67명으로 복수 응답임.

## ○ 정부의 건설산업 중장기 비전 수립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

- 전술한 바와 같이 현 정부의 건설 정책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응답 CEO 들의 43.3%는 향후 정부가 건설산업의 중장기 비전 수립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으로는 건전하고 일방의 손실을 강요하지 않는 사업 환경 조성이라고 응답함.
- 이는 그간 건설업계에 일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갑을 관행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를 대변하는 결과임.
- 이러한 갑을 관행은 건설산업 내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하므로 그 고리 단절을 위해서는 공사의 출발점인 발주자로부터 적정한 공사비를 지급하는 한편, 발주자나 기타 갑의 관행으로 공기 지연, 공사비 증액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새로운 관행과 문화의 정착이 시급함.

### <그림 III-6> 건설산업 장기 비전 수립시 정부가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

(단위 : %)



주 : 응답자는 67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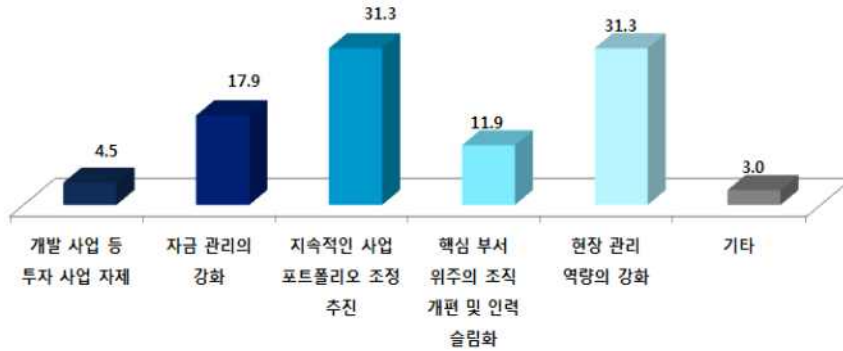
## 2. 건설 환경 변화에 따른 건설 경영 전략

### ○ 2015년 가장 중요한 경영 방침

- 2015년도 경영 전략으로 무엇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응답 건설 CEO들이 2015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영 방침으로는 지속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31.3%)과 현장관리 역량 강화(31.3%)인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는 자금관리 강화(17.1%)와 핵심 부서 위주의 조직 개편 및 인력 슬림화(11.9%)의 순을 나타냄.
- 기업 규모별로는 시공능력 1~100위 업체들의 경우 자금관리 강화라는 응답 비중이 22.2%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개발 사업 등 투자 사업을 자제한다는 의견이 나타나지 않아 200위권 미만 기업들과는 차이를 보임.
- 이는 시공능력 1~100위 업체들의 경우 최근 분양시장의 호조로 주택시장 진출을 위해 현금의 필요성이 증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 101~200위 업체들은 현장관리 역량 강화라는 응답이 47.1%로 가장 높았음.
- 이 외에 기타 의견으로는 경제 흐름을 주시하여 자금 사정, 수주량을 결정하겠다는 의견과 회사의 집중력을 키우겠다는 의견이 있음.

<그림 III-7> 2015년 가장 중요한 경영 방침

(단위 : %)



주 : 응답자는 67명임.

<표 III-3> 업체 규모별 2015년 주요 경영 방침

(단위 : 건, %)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구분	업체 수	개발사업 등 투자 사업 자제	자금 관리의 강화	지속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추진	핵심 부서 위주의 조직 개편 및 인력 슬림화	현장 관리 역량의 강화	기타	계
전체	(67)	4.5	17.9	31.3	11.9	31.3	3.0	100.0
1~100위	(18)	0.0	22.2	38.9	16.7	22.2	0.0	100.0
101~200위	(17)	0.0	11.8	17.6	17.6	47.1	5.9	100.0
201~300위	(12)	8.3	16.7	33.3	8.3	25.0	8.3	100.0
300순위 초과	(20)	10.0	20.0	35.0	5.0	30.0	0.0	100.0

#### ○ 중기(향후 5년) 경영 전략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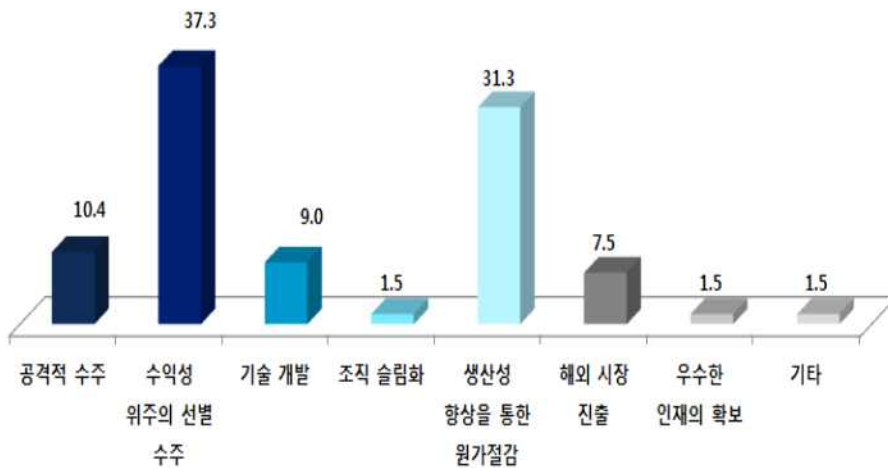
- 단기적으로는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과 현장관리 역량의 강화가 중요한 경영 전략 이라면, 응답 건설 CEO들이 생각하는 향후 5년 간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경영 전략은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37.3%)와 생산성 향상을 통한 원가 절감(31.3%)인 것으로 나타난.
- 이 외에 공격적 수주라는 응답은 10.4%, 해외 시장 진출과 기술 개발은 각기 7.5%

와 9.0%로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였음.

- 특히,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와 수익성과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원가 절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최저가낙찰제도와 실적공사비 등에 따른 공공공사의 지속적인 수익성 하락과 어닝 쇼크(earning shock)로 대표되는 해외건설의 수익성 하락 등에 기인하여 건설업체들의 수익성이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 2014년도 상반기 상장 건설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1.4%에 불과했으며, 매출액 세전이익률과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각기 -3.0%와 -6.8%를 기록한 실정임. 이는 현재 건설업계에서 수익성 제고가 얼마나 중요한 화두인지를 대변해줌.

<그림 III-8> 향후 5년 생존에 가장 중요한 경영 전략

(단위 : %)



주 : 응답자는 67명임.

- 이를 경영자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창업 경영인과 2, 3세 경영인은 생산성 향상을 통한 원가 절감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응답한 반면, 외부 영입 경영인과 자체 승진 경영인은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를 생존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략이라 응답함.

<표 III-4> 경영자 유형별 향후 5년 주요 경영 전략

(단위 :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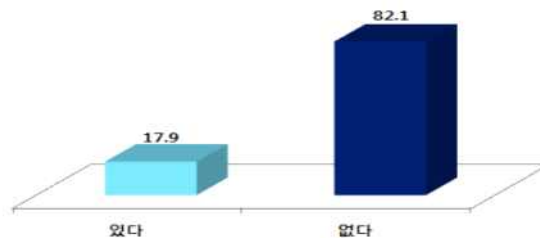
경영자 유형	사례 수	공격적 수주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	기술 개발	조직 슬림화	생산성 향상을 통한 원가 절감	해외 시장 진출	우수한 인재 확보	기타	계
전체	(67)	10.4	37.3	9.0	1.5	31.3	7.5	1.5	1.5	100.0
창업 경영인	(24)	8.3	20.8	12.5	4.2	37.5	12.5	4.2	0.0	100.0
2, 3세 경영인	(15)	20.0	33.3	6.7	0.0	40.0	0.0	0.0	0.0	100.0
외부 영입 경영인	(10)	0.0	70.0	10.0	0.0	20.0	0.0	0.0	0.0	100.0
자체 승진 경영인	(18)	11.1	44.4	5.6	0.0	22.2	11.1	0.0	5.6	100.0

#### ○ 사업 및 조직 구조조정 계획

- 앞서 설문조사 결과 지속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이 2015년도 주요 전략이라는 응답이 많았음. 이에 따라 과연 2015년에 건설업계에 사업 및 조직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지속되며 구조조정 대상 부문은 어디인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 그 결과 응답 CEO의 82.1%가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여 전술한 질문과는 다소 상이한 결과를 나타냄.

<그림 III-9> 향후 사업 및 조직 구조조정 계획 여부

(단위 : %)



주 : 응답자는 67명임.

- 시공능력순위별로 보면 1~100위와 201~300위 사이 기업들의 경우 사업 구조조정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각기 22.2%와 25.0%로 타 순위 업체들에 비하여 다소 높게 나타남.
  - 경영자 유형별로는 2, 3세 경영인(20.0%)과 자체 승진 경영인(22.2%)의 경우 창업 경영인(16.7%)이나 외부 영입 경영인(10.0%)보다 구조조정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기업의 경우 확대하고자 하는 부서로는 시공능력 순위와 관계없이 주택사업 부서와 개발사업 부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이러한 응답은 CEO의 회사와의 관계나 시공능력평가액과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남.<sup>3)</sup>
- 이는 2014년 중반 이후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부동산시장 상승세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됨.
- 한편, 가장 축소하고자 하는 부서는 공공사업 부서라고 응답함.<sup>4)</sup>
- 시공능력평가액 순위별로 살펴보면, 1~100, 101~200위 기업과 201~300위 기업이 축소하고자 하는 부서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300순위 초과 기업에서는 축소하고자 하는 부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통폐합하고자 하는 부서에 대한 조사 결과, 건설 CEO 대다수가 없음으로 응답함.<sup>5)</sup>
- 사업 및 조직 구조조정 계획에 있어서 통폐합이나 폐지는 큰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개발사업, 플랜트 사업 부서를 중심으로 통폐합 및 폐지를 희망하는 기업이 일부 있었음.
- 폐지 또는 분리(spin-off)하고자 하는 부서에 대한 질문 결과, 응답 업체 총 11개사 중 해외사업 부서와 공공사업 부서를 분리하겠다는 응답이 각각 36.4%, 18.2%로 나타남.

3) 전체 응답 업체 수가 12개사밖에 되지 않아 기업 규모별 및 CEO 유형별 분석은 생략함.

4) 여기서 조직 및 사업의 확대 및 축소를 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의 수가 각기 12개사와 11개사였음.

5) 전체 응답 업체가 11개사에 불과하여 기업 유형별 분석 등은 생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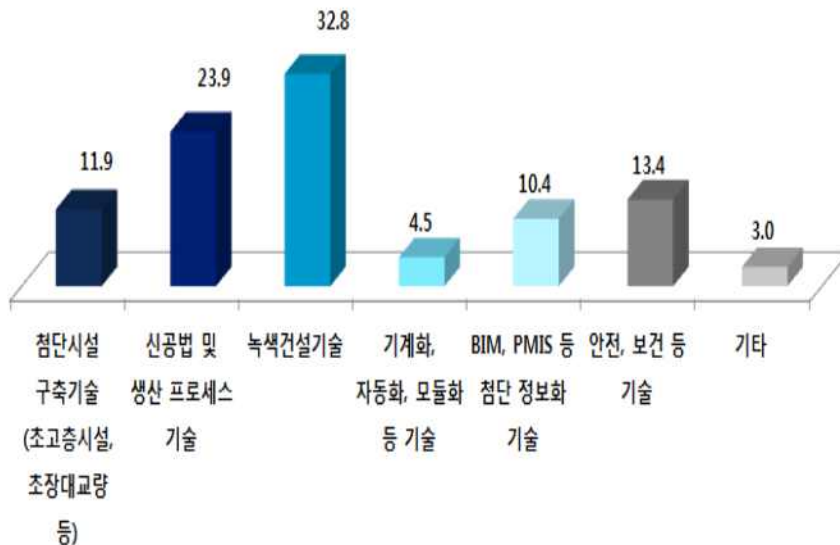
### 3. 건설산업의 기술 혁신 방향 및 장애 요인

#### ○ 향후 5년 간 건설산업을 주도할 건설 기술 혁신

- 인재와 더불어 향후 건설산업 경쟁력의 핵심을 좌우할 건설기술 개발 현황으로 ‘향후 5년 간 건설산업을 주도할 건설 기술 혁신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녹색 건설 기술이라는 응답이 32.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다음으로는 신공법 및 생산 프로세스 기술(23.9%), 첨단시설 구축 기술(초고층 시설, 초장대교량 등)(11.9%)의 순을 나타냄.
- 시공능력평가액 순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1~100위 기업에서는 다른 순위의 기업과 달리 첨단 정보화 기술을 앞으로 건설산업을 주도할 기술 혁신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음.

<그림 III-10> 향후 5년 간 건설산업을 주도할 기술 혁신

(단위 : %)



주 : 응답자는 67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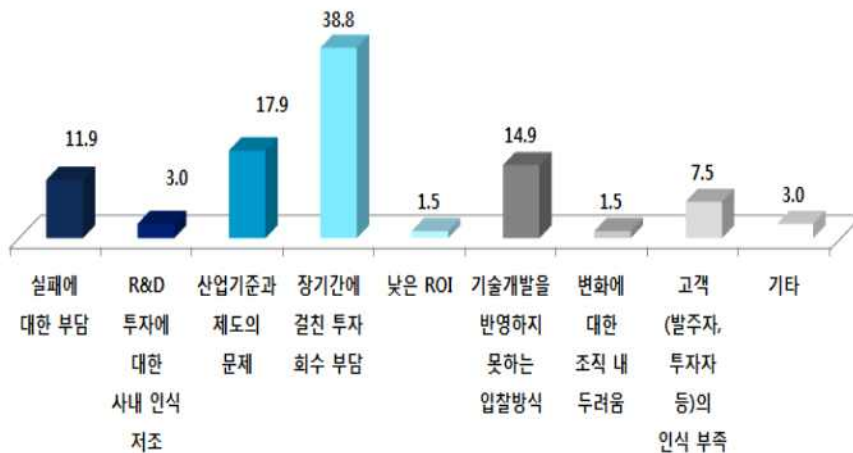


## ○ 건설기술 혁신의 장애 요인

- 마지막으로, 건설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하여 건설 기술 개발시 장애 요인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장기간에 걸친 투자 회수의 부담(38.8%)이 가장 중요한 장애 요인으로 나타났음.
- 다음으로는 산업 기준과 제도의 문제(17.9%), 기술 개발을 반영하지 못하는 입찰 방식(14.9%)의 순을 나타내었음.
- 다만, 이는 시공능력순위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101~200위 기업에서는 기술 개발을 반영하지 못하는 입찰 방식이라는 응답이 35.3%로 가장 많았으며, 300순위 초과 기업에서는 실패에 대한 부담도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이와 같이 볼 때, 건설산업에서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개발된 신기술이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단 기술 검증이 이루어지면 업계로 확산될 수 있는 경로를 개발하여 기술 개발에 따른 투자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III-11> 건설기술 개발시 장애 요인

(단위 : %)



주 : 응답자는 67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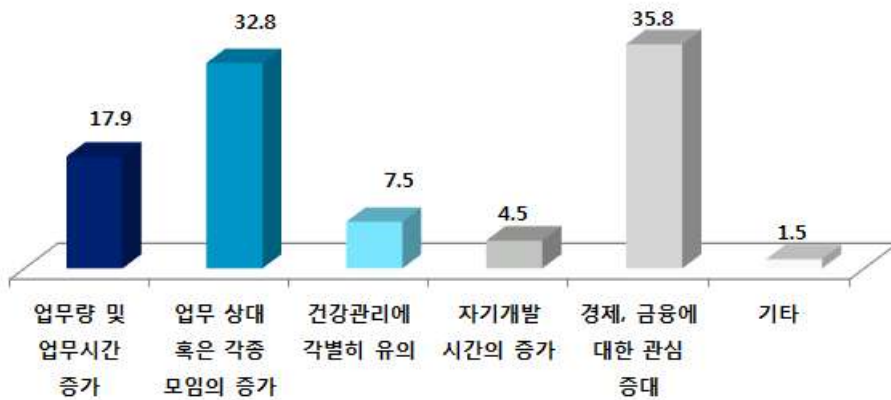
#### 4. 건설 CEO의 경영 스타일 및 자질

##### ○ 건설 CEO 취임 이후 라이프스타일 변화

- CEO 취임 후 가장 두드러진 변화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 CEO들의 경우 경제 및 금융에 대한 관심 증대(35.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업무 상대 혹은 각종 모임의 증대(32.8%)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2> CEO 취임 후 가장 두드러진 Life Style 변화

(단위 : %)



주 : 응답자는 67명임.

- 이는 한 기업의 CEO가 되었다는 것은 기업의 특정 부문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닌 전체 경제 흐름 속에서 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라는 것을 대변함.
- 또한, 정보 습득 및 관계 관리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CEO의 활동 중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을 보여줌.
- 이러한 경향은 CEO의 유형별로, 그리고 기업의 규모별로 다소 차이가 있어 외부 영입 경영인의 경우 업무 상대 혹은 각종 모임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창업 경영인은 경제 및 금융에 대한 관심이 커짐을 가장 큰 변화로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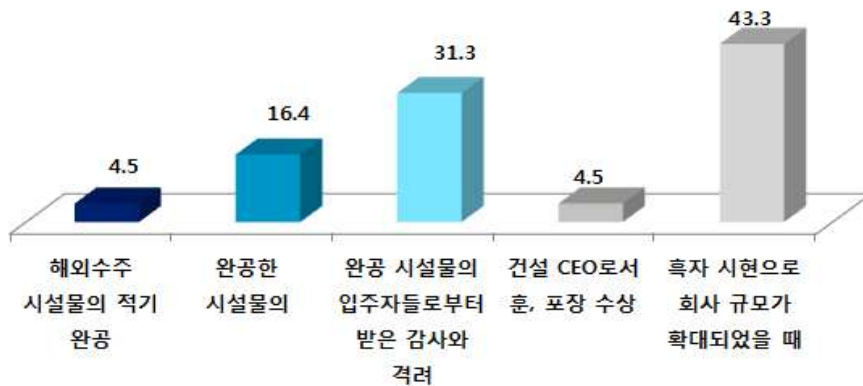
- 시공능력순위별로는 하위 집단으로 갈수록 업무 상대 혹은 각종 모임의 증가를 꼽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1~100위, 101~200위는 경제 및 금융에 대한 관심이 다른 집단보다 크게 나타났음.

### ○ 건설 CEO로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때

- 다음으로, 건설 CEO들이 어떤 때 가장 큰 자긍심을 느끼는 것일까를 조사한 결과, 건설 CEO로서 가장 자랑스러웠을 때는 뭐니 뭐니 해도 ‘흑자 시현으로 회사 규모가 확대되었을 때’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43.3%).
- 다음으로는 완공 시설물의 입주자들로부터 감사와 격려를 받을 때(31.3%)라고 응답해 훈/포상 등 CEO들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보다는 기업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때 자긍심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음.

<그림 III-13> 건설 CEO로서 가장 자랑스러웠을 때

(단위 : %)



주 : 응답자는 67명임.

### ○ 건설 CEO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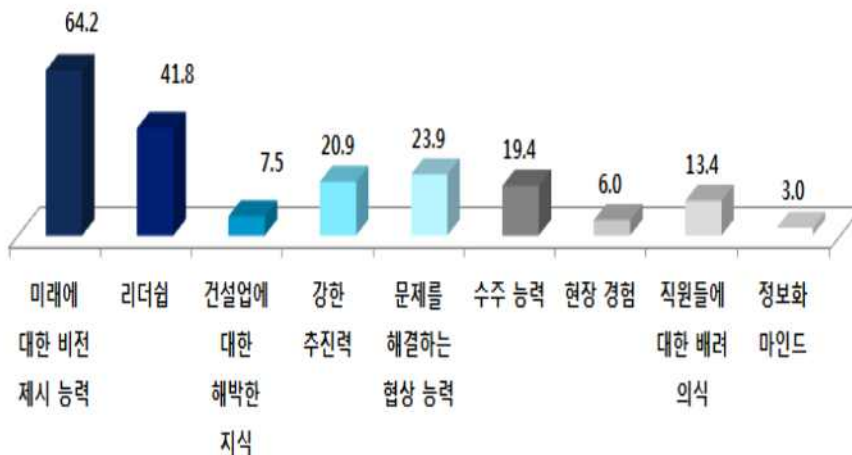
- 건설 CEO로서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인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미래에 대한 비

전 제시 능력(64.2%)이라는 응답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리더십(41.8%)이라고 응답함.

- 이러한 응답은 5년 전의 2010년 조사에서도 동일하였음.
- 이와 같이 볼 때, 건설업에 대한 지식, 협상력, 수주 능력, 직원에 대한 배려 등은 다른 임원이나 실무진에 의해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직원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갖고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일은 시대와 관계없이 기업의 CEO가 해야만 하고 또한 CEO만이 할 수 있는 일임을 시사함.
- CEO 유형별로는 창업 경영인은 리더십을 가장 중요한 자질로 보는 경우가 41.7%로 다른 집단보다 높은 반면, 외부 영입 경영인은 비전 제시 능력을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 응답한 경우가 90.0%로 압도적이었음.

<그림 III-14> 건설 CEO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

(단위 : %)



주 : 응답자는 67명으로 복수 응답임.

## 제 4 장    건설산업 주요 이슈의 변화

### 1. 시기별 건설산업의 주요 이슈<sup>6)</sup>

#### ○ 1996년도 건설산업 5대 이슈 : 시장 개방, 부도, 담합, 부실 시공, 해외건설

- 1996년 5월에 건설 CEO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건설시장 개방, 부도, 담합, 부실 시공, 해외건설 등 다섯 가지 이슈가 당시 건설업계의 최대 현안이었음.
- 첫째, 1997년도부터 발효 예정인 정부조달협정의 여파로 인한 국내 건설시장 개방 문제가 당시 건설업계의 최대 현안 이슈로 부각되었음.
- 당시 건설업계 최고경영자들의 45% 정도가 시장 개방 여파로 건설업계의 경영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였고,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분야로는 감리와 엔지니어링 등 우리 건설업계의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들을 꼽았음.
- 둘째, 1996년도 당시 건설업계 최고 경영자의 30% 가까이가 부도 위기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었음.
- 1980년대 후반기부터 진행된 건설 면허 개방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기업들이 유동 자금의 부족 등으로 부도 위기에 처하는 사태가 자주 발생하였음.
- 이러한 건설업의 부도 위기 사태에는 기업들의 경영상의 대응 능력 부족과 더불어 연대 보증으로 인한 연쇄 도산 등 제도적인 요인의 문제점도 크게 작용하였음.
- 셋째, 건설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고착화돼 온 담합 관련 이슈 역시 당시 건설업계가 직면한 최대 현안이었음.
- 전통적으로 건설업계는 담합을 건설산업 활동의 특성을 반영하는 자율조정 행위로

6) 1996년, 2006년 및 2010년의 주요 이슈는 박용석·이홍일·최석인(2010), 「국내·외 건설시장 전망 및 현안 이슈 - 건설 CEO 100인 설문조사 결과」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한 것임.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여 왔음.

- 그러나, 건설시장 개방의 여파와 함께 공정 경쟁의 시장 질서에 위배되는 담합 관행을 척결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건설업계의 수주 관행을 변화시키는 계기를 만들기 시작하였음.
- 이에 대하여 건설업계는 담합 문제를 풀기 위하여 정부의 비현실적인 공사 예정가격제 등 입·낙찰과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였음.

- 넷째, 대형 건설 사고를 비롯한 부실 시공 방지 문제가 당시 건설업계의 최대 현안 중 하나였음.

- 당시 연이어 터진 성수대교 붕괴(1994), 삼풍백화점 붕괴(1995) 사고 등으로 건설산업은 사회적 신뢰 기반을 상실할 정도의 위기에 처하고 있었음.
- 건설 CEO들은 대형 붕괴 사고에 대한 책임 의식을 통감하면서도 건설 활동의 복잡한 특성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시공업체 탓만으로 돌리는 사회적 관행에 대하여 억울해하는 심정도 표출하였음.

- 다섯째, 건설시장 개방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건설업체의 해외 시장 진출이 주요 이슈가 되었음.

- 당시 1980년대 이후 침체되었던 해외건설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건설산업의 경쟁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음.
- 중동 일변도를 탈피하여 중국과 동남아 시장을 개척하는 한편, 시공 중심에서 기획, 설계, 사업관리 등 종합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음.

#### ○ 2006년도 5대 이슈 : 주택/부동산 규제, 입·낙찰 제도, 건설산업 규제, 양극화, 해외건설 등

-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06년도에 건설 CEO들이 선정한 5대 현안 이슈는 주택/부동산 규제 완화, 입·낙찰 제도의 합리적 개선, 건설산업 규제 완화, 대중소 기업간 양극화 해소, 그리고 해외 건설시장 진출 등이었음.

- 1996년도의 5대 현안 이슈와 비교하면 해외건설 한 가지 부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바뀌었음.
- 2006년에 건설 CEO들이 선정한 최대 현안 이슈는 주택/부동산 규제였음.
  - 건설 CEO들의 19.9%(복수 응답 기준)가 주택/부동산 규제를 당시 건설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지적하고 있었음.
  - 이는 정부의 주택 및 부동산의 투기 억제와 가격 안정을 위한 주택/부동산 규제 강화가 당시 건설산업의 최대 시장인 주택 관련 시장의 위축을 초래했기 때문임.
  - 업체 규모별로는 특히 매출액 2,000억~7,000억원 미만의 중견 업체들이 주택/부동산 규제를 가장 심각한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었음(27.7%).
- 건설 CEO들은 최저가낙찰제 등 입·낙찰 제도의 합리적 개선(19.6%)을 두 번째의 중요한 현안으로 꼽고 있었음.
  - 이는 최저가낙찰제도가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건설업계의 수주 물량 감소와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는 현상을 반영한 것이었음.
  - 업체 규모별로는 특히 매출액 500억원 미만 규모의 업체 가운데서 입·낙찰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비중이 높았음(23.9%).
  - 건설업계는 지나친 가격 경쟁 위주에서 품질 경쟁 위주로 입·낙찰 제도를 전환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었음.
- 당시 건설 CEO들은 건설산업에 대한 규제 개혁 요구(14.1%)를 세 번째 건설업 현안으로 선정함.
  - 당시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존의 불합리한 업역 또는 산업 활동 규제를 완화하자는 사회적 요구가 높은 가운데 정부는 일반/전문 건설업의 통합 작업 등을 추진 중에 있었음.
- 대중소 업계 간의 양극화 해소(10.7%)를 네 번째의 현안 이슈로 선정함.
  - 건설산업에서도 대중소 업체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중소 업체들의 수주 물량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었음.

- 전반적으로 건설시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 건설업체의 경쟁력이 취약한 데 따른 현상으로 볼 수 있음.
- 업체 규모별로 보면, 매출 규모가 작은 500억원 미만 업체(16.4%)와 500억~2,000억원 미만 업체(14.7%)의 양극화 해소 요구가 높은 반면, 2,000억~7,000억원 미만(9.6%), 7,000억원 이상(1.5%) 업체들은 반대로 그 비중이 낮게 나타났음.

- 해외 건설시장 진출(5.5%)이 다섯 번째로 중요한 건설업계의 현안으로 선정됨.
- 해외 건설시장 진출은 1996년도에 이어 2006년도에 건설업계의 5대 현안으로 선정된 유일한 부분임.
- 해외 건설시장 진출은 특히 매출액 7,000억원 이상 업체의 경영자들이 주요 현안 이슈로 선정하고 있었음(12.1%).
-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건설업계는 국내 건설시장의 성장 한계를 돌파하기 위하여 해외 시장 진출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음.
- 이 밖에도 5대 현안에는 들지 못하지만 건설 이미지 개선 및 윤리경영(5.2%)과 국내 신 건설시장 개척(4.8%) 등이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었음.

#### ○ 2010년도 5대 이슈 : 입·낙찰 제도, 양극화, 주택/부동산 규제, 부실·부적격 업체의 건설시장 퇴출, 건설업체 부도 방지 및 경영난 해소

- 2010년도에 건설 CEO들이 선정한 5대 현안 이슈는 최저가낙찰제 등 입·낙찰 제도의 합리적 개선, 대중소 간·경향 간 양극화 해소, 주택/부동산 규제 완화, 부실·부적격 업체의 건설시장 퇴출, 건설업체 부도 방지 및 경영난 해소 등이었음.
- 2006년도의 5대 현안 이슈와 비교해보면, 건설산업 규제 완화를 제외하고 대부분 유사함.
- 건설 CEO들이 선정한 최대 현안 이슈는 최저가낙찰제 등 입·낙찰 제도의 합리적 개선(23.3%)이었음.
- 최저가낙찰제도가 2012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확대 적용될 예정임에 따



라 건설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었음.

- 특히, 중소 업체의 수주 영역까지 최저가낙찰제가 확대 적용됨에 따라 낙찰률 저하에 따른 채산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었음.

- 대중소 간, 경향 간 양극화 해소(12.3%)가 두 번째로 중요한 현안으로 꼽힘.

- 2006년 조사에서도 양극화 해소는 5대 현안 이슈로 선정되었는데, 5년여의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건설산업 내 중요한 현안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었음.
- 건설산업 내에서 대중소, 경향 간의 양극화 현상에 따라 지역 및 중소 업체들의 수주 물량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었음.
- 당시 부동산 및 주택 시장 침체, 공공 건설투자 감소 등의 영향으로 건설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 대기업에 비해 수주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 건설업체들에게서 경영 애로가 발생하고 있었음.

- 세 번째 중요한 현안으로 주택/부동산 규제 완화(11.7%)가 지적됨.

- 2010년 말 현재, 주택경기 침체로 인해 미분양 적체와 투자금 미회수 등 주택건설사의 경영 위기 초래
- 당시 주택경기 침체 및 전월세 가격 급등에 대응하고자 정부는 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미미
- 건설업계에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전매 제한 폐지, 소형주택 의무비율 폐지 등의 보다 근본적인 주택/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었음.
- 특히 매출액 5,000억원 이상 업체의 경우 주택/부동산 규제 완화가 18.4%로 그 중요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음.

- 건설 CEO들은 건설산업의 네 번째 중요한 현안으로 부실·부적격 업체의 건설시장 퇴출(10.3%)을 꼽았음.

- 건설 CEO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를 포함하여 건설업 자격 미달인 부실·부적격 업체에 대한 등록 말소 등 강제 퇴출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함.

- 다섯 번째 중요한 현안으로 건설업체 부도 방지 및 경영난 해소(9.3%)를 지적함.
- 당시 부동산/주택 경기 침체와 공공 건설 수주 감소 등 건설경기의 전반적 침체로 자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여 건설업체의 부도 가능성이 증가함.
- 건설업체는 유동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만기 연장 등과 같은 정부 지원책을 요구함.
- 이 밖에도 5대 현안에는 들지 못하지만 해외 건설시장 진출(6.7%), 녹색·저탄소 분야 건설시장 개척(5.3%), 민간투자제도 개선(5.0%), 유능한 건설 기술 인력의 양성 및 확보(5.0%) 등이 새로운 이슈로 부각됨.
- 매출액 5,000억원 이상 업체들의 경우 ‘녹색·저탄소 분야 건설시장 개척’의 경우 9.2%로 중요도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았음.

#### ○ 2015년도 5대 이슈 : 입·낙찰 제도 개선, 적정 공사비 확보, 부실/부적격 업체 퇴출, 지역 중소 업체 보호, 부도 방지/경영난 해소 및 주택시장 잔존 규제 완화

- 2015년도 5대 이슈는 종합심사제 등 입·낙찰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적정 공사비의 확보, 부실/부적격 업체의 건설시장 퇴출, 지역 중소 업체 보호, 부도 방지/경영난 해소와 분양가상한제 등 주택·부동산 시장 잔존 규제 완화<sup>7)</sup>로 지적됨.
- 이를 2010년 5대 이슈와 비교해보면, 2순위를 차지한 ‘적정 공사비 확보’를 제외하고는 순위에서 차이가 있을 뿐 주요 이슈는 유사함.
- 해당 시기별로 이슈가 되는 구체적인 제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2010년 이후 건설업계의 최대 이슈는 입·낙찰 제도의 합리적 개선(26.9%)임.
- 2010년 최저가낙찰제도의 확대 예정에 따라 대다수 건설업체들, 특히 공공공사를 위주로 하는 중견사를 중심으로 낙찰률 하락에 따른 경영난에 대한 우려가 높았음.
- 이후 건설업계의 경영난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최저가낙찰제도를 대체할 제도로 종합심사낙찰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7) 부도 방지/경영난 해소와 분양가상한제 등 주택 및 부동산 관련 잔존 규제 완화는 각기 9.0%로 동일한 비중을 나타냄.

- 이에 2014년에 이어 2015년에 2차 시범사업이 확대 실시됨에 따라 기존에 최저가낙찰제도시 입찰에 참여했던 대다수의 중견 이상 건설업체들은 기대 반 우려 반의 심정으로 보다 합리적인 방향의 제도 도입을 통해 동 제도가 업계의 경영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음.
- 입·낙찰 제도 못지않게 2015년에 건설업계를 달군 이슈는 적정 공사비의 확보 (25.4%)라고 할 수 있음.
  - 최저가낙찰제도와 버금가게 건설업계의 수익성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제도가 실적공사비제도임. 실적공사비제도는 그 구조상 시간이 지날수록 낙찰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받아들여져 지난 2014년 12월 17일 정부는 실적공사비제도의 전면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실적공사비를 표준시장단가로 개칭하는 한편, 현재 기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를 기초로 가격을 산정하던 것에서 벗어나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을 기초로 다양한 시장 거래가격을 반영하기로 함.
  - 표준시장단가가 제대로 적용될 경우 3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기존보다 약 2~3%의 공사비 상승이 기대됨.
  - 물론, 아직 새로운 DB 구축 및 관리 체계 개선 등에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실적공사비제도의 개선은 건설업계가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한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2010년에 조사할 때보다 순위가 한 단계 내려오기는 하였으나, 부실/부적격 업체 퇴출(11.9%)은 5년이 지난 2015년에도 여전히 중요한 이슈임.
  - 더욱이 현 정권 출범 이후 복지 예산의 증가로 SOC 투자 예산의 감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건설 물량 감소에 당면한 건설업체로서는 부실/부적격 업체 퇴출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짐.
  - 향후 중장기적으로 SOC 투자 예산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부실/부적격 업체 퇴출을 통한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요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네 번째 주요 이슈로는 현 정부의 정책 코드인 상생에 발맞춘 지역 중소기업 보호 (10.4%)가 선정됨.
- 지역 중소기업 및 중견 기업의 지원 및 보호는 건전한 산업 발전을 위한 건설산업의 저변 확대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이슈임.
- 그러나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개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를 받았으며, 지속적인 산업 구조조정 요구가 있는 것에서 나타나듯이 지역 건설기업의 보호가 모든 지역 기업을 보호하기보다는 경쟁력 있는 지역 기업이 건전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구현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건설업 부도 방지 및 경영난 해소와 주택시장 잔존 규제 완화가 각기 9.0%를 기록하며 다섯 번째로 중요한 이슈로 선정됨.
- 특히 주택시장 잔존 규제 완화는 2010년 3순위에서 2015년에는 5순위로 하락하였는데, 이는 앞서 현 정부의 주택·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현 정권 출범 이후 시행된 다수의 주택·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따른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됨.
- 반면, 건설업 부도 방지 및 경영난 해소는 2010년에 이어 여전히 5위를 차지함. 이 이슈의 경우 순위가 올라가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부도와 경영난이 우려되는 상황이 지속된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임.
- 새로이 도입되는 종합심사제도, 표준시장단가, 주택·부동산 규제 완화의 실효성이 담보되어 향후 조사에서는 부도나 경영난에 대한 우려가 5대 이슈에서 사라지는 시기가 올 수 있기를 기대해봄.

<표 IV-1> 건설산업 이슈의 변화(1996~2015)

순위	1996년	2006년	2010년	2015년
1	국내 건설시장의 개방	주택/부동산 규제 완화	최저가낙찰제 등 입낙찰 제도의 합리적 개선	종합심사낙찰제 등 입낙찰 제도의 합리적 개선
2	건설업 부도	최저가낙찰제 등 입낙찰 제도의 합리적 개선	대중소 업계 간 양극화 해소	적정 공사비 확보
3	건설업 담합	건설산업에 대한 규제 개혁	주택/부동산 규제 완화	부실/부적격 업체 퇴출
4	부실시공	대중소 업계 간 양극화 해소	부실·부적격 업체의 건설시장 퇴출	지역 중소 업체 보호
5	해외 건설시장 진출	해외 건설시장 진출	건설업 부도 방지 및 경영난 해소	부도 방지 및 경영난 해소 / 주택시장 잔존 규제 완화
기타	-	건설 이미지 개선/윤리경영 국내 신건설시장 개척	해외 건설시장 진출 녹색·저탄소 분야 건설시장 개척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등

주 : 본 표는 박용석·이홍일·최석인(2010), 전게서, p.36의 표에 2015년 조사 결과를 보완한 것임. 이하 동일.

## 2. 주요 이슈에 대한 인식의 변화

### ○ 건설산업(시장)의 미래 전망 : 긍정적 → 부정적 → 중도적 → 부정적

- 국내 건설시장 규모에 대해 응답 건설 CEO들의 인식을 보면, 최근 수년간 시장이 축소될 것이라는 예측이 더욱 강해진 것으로 파악됨.
- 이를 시기별로 비교해보면, 1996년부터 2010년까지는 매우 낙관적이거나 낙관적(시장 규모의 확대 추세)이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30~50% 내외를 차지하였음.
- 그러나, 2015년의 조사에서는 시장의 확대 추세를 전망하는 CEO는 9%에 지나지 않으며, 총 응답자의 73.1%는 시장이 축소될 것이라고 응답함.
- 국내 건설시장의 규모에 대한 이와 같은 부정적인 전망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나타나므로써 향후 산업 구조조정, 신사업 개발 및 해외 시장 진출 등 수주 확보를 위

한 요구 및 기업의 노력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

<표 IV-2> 건설산업(시장)의 미래 전망(1996~2015)

(단위 : %)

구분	1996년	2006년	2010년	구분	2015년
매우 낙관적이다	11.5	0.0	0.0	중기적으로 현재 규모 유지 후 확대	1.5
낙관적이다	52.3	20.0	33.0	완만한 성장세 지속	7.5
그저 그렇다	15.5	48.0	41.0	현재 시장 규모 유지/정체	17.9
비관적이다	17.8	30.0	25.0	중기적으로 현재 규모 유지 후 축소	55.2
매우 비관적이다	2.9	2.0	1.0	지속적인 규모 축소	17.9
계	100.0	100.0	100.0	계	100.0

주 : 2015년의 경우 지문 문항이 달라져 2015년 지문 문항을 기존의 5점 척도에 맞추어 재배열함.

○ 건설기업 생존 전략 :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 여전히 중요하나 비중 낮아져, ‘원가 절감’도 수익성 못지않게 중요

- 무한 경쟁 시대를 맞이하여 향후 5년 간 생존 전략으로는 여전히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가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선정됨.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생산성 향상을 통한 원가 절감도 중요한 전략으로 지적되어 ‘수익성’이 향후 건설업체의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임을 드러냄.
- 그러나 공격적 수주를 하겠다는 응답도 여전히 10%대를 보이고 있어 수주 확보는 건설업계에서 중요한 이슈임을 알 수 있음.
- 해외 시장 진출은 2010년 조사에서와 두드러지게 차이가 있어 2010년의 경우 20.2%를 차지하던 응답률이 2015년에는 7.5%에 불과하여 무려 12.7%p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이 해외 시장 진출 의지가 경감한 것은 2012년 이후 저가 수주에 따른 어닝 쇼크와 최근 주택시장의 재부상에 따른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됨.

### <표 IV-3> 건설기업 생존 전략에 대한 시기별 응답 결과

(단위 : %)

구 분	2001년	2010년	2015년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	63.4	40.4	37.3
해외 시장 진출	3.0	20.2	7.5
생산성 향상을 통한 원가 절감 <sup>1)</sup>	10.9	16.2	31.3
공격적 수주	13.2	10.1	10.4
기술 개발	5.0	7.1	9.0
조직 슬림화	4.0	4.0	1.5
우수한 인재의 확보 <sup>2)</sup>	-	-	1.5
기타	0.5	2.0	1.5

주 : 1) 2006년과 2010년 조사의 지문 문항은 ‘인력 개발 및 교육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었음.

2) 우수한 인재의 확보는 2015년에 새로 추가된 문항임.

#### ○ 건설 CEO의 자긍심 :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 변함없이 가장 큰 보람

- 건설 최고 경영자로서 가장 자랑스러웠을 때에 대한 응답은 15년 동안 변함없이 흑자 시현으로 회사가 성장하였을 때이며, 이러한 응답은 미미하나마 비중이 더욱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는 지난 수년간 건설업계의 경영 악화로 인해 수익성이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수익성 시현을 통한 업체의 성장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로 볼 수 있음.
- 다음 2, 3, 4위가 모두 국내외 완공 시설물에 대한 입주민과 대중의 감사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건설 CEO로서의 자긍심은 본인 자신의 직위에 대한 만족감보다는 자신이 CEO로 있는 기업이 수행한 ‘일’에 대한 보람이 곧 자긍심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시사함.
- 사회적으로 일부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사 결과는 대다수의 건설 CEO들이 본업에 충실하여 기업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음.

<표 IV-4> 건설 CEO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때에 대한 시기별 응답 결과

(단위 : %)

구 분	2001년	2010년	2015년
흑자 시현으로 회사 규모가 확대되었을 때	37.6	41.4	43.3
완공 시설물의 입주자들로부터 감사와 격려를 받았을 때	35.6	35.4	31.3
완공한 시설물을 일반 대중이 활용했을 때	18.8	16.2	16.4
해외 수주 시설물을 적기 완공했을 때	1.0	4.0	4.5
건설 CEO로서 훈·포장을 수상했을 때	4.0	3.0	4.5
기타	3.0	-	-



## <부록 1> 설문조사 결과

<부표-1> CEO 취임 후 라이프 스타일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

		사례수	CEO 취임 후 라이프 스타일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						합계
		N	업무량 및 업무시간 증가	업무상대 혹은 각종 모임의 증가	건강관리 에 각별히 유의	자기개발 시간의 증가	경제, 금융에 대한 관심 증대	기타	%
			%	%	%	%	%	%	
전체		(67)	17.9	32.8	7.5	4.5	35.8	1.5	100.0
연 령	50세 미만	(11)	18.2	54.5	0.0	9.1	18.2	0.0	100.0
	50세 이상 60세 미만	(32)	15.6	34.4	6.3	3.1	40.6	0.0	100.0
	60세 이상	(24)	20.8	20.8	12.5	4.2	37.5	4.2	100.0
회사의 관계	창업 경영인	(24)	20.8	16.7	8.3	4.2	45.8	4.2	100.0
	2, 3세 경영인	(15)	13.3	33.3	6.7	6.7	40.0	0.0	100.0
	외부 영입 경영인	(10)	20.0	50.0	0.0	10.0	20.0	0.0	100.0
	자체 승진 경영인	(18)	16.7	44.4	11.1	0.0	27.8	0.0	100.0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1~100위	(18)	27.8	44.4	0.0	0.0	27.8	0.0	100.0
	101~200위	(17)	11.8	29.4	17.6	5.9	35.3	0.0	100.0
	201~300위	(12)	25.0	33.3	8.3	8.3	25.0	0.0	100.0
	301~400위	(10)	10.0	30.0	0.0	0.0	50.0	10.0	100.0
	401~500위	(10)	10.0	20.0	10.0	10.0	50.0	0.0	100.0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2	1~100위	(18)	27.8	44.4	0.0	0.0	27.8	0.0	100.0
	101~200위	(17)	11.8	29.4	17.6	5.9	35.3	0.0	100.0
	201~300위	(12)	25.0	33.3	8.3	8.3	25.0	0.0	100.0
	300순위 초과	(20)	10.0	25.0	5.0	5.0	50.0	5.0	100.0
기업소재지	수도권	(25)	20.0	32.0	8.0	8.0	32.0	0.0	100.0
	충청권	(13)	23.1	38.5	23.1	0.0	15.4	0.0	100.0
	호남권	(11)	18.2	18.2	0.0	0.0	54.5	9.1	100.0
	영남권	(18)	11.1	38.9	0.0	5.6	44.4	0.0	100.0

〈부표-2〉 건설 CEO로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때

		사례수	건설 CEO로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때					합계
		N	해외수주 시설물의 적기 완공	완공한 시설물을 일반 대중이 활용했을 때	완공 시설물의 입주자들 로부터 받은 감사와 격려	건설 CEO로서 훈, 포장 수상	흑자 시현으로 회사 규모가 확대되었 을 때	%
전체		(67)	4.5	16.4	31.3	4.5	43.3	100.0
연령	50세 미만	(11)	9.1	9.1	18.2	0.0	63.6	100.0
	50세 이상 60세 미만	(32)	3.1	18.8	28.1	9.4	40.6	100.0
	60세 이상	(24)	4.2	16.7	41.7	0.0	37.5	100.0
회사의 관계	창업 경영인	(24)	4.2	12.5	37.5	8.3	37.5	100.0
	2, 3세 경영인	(15)	6.7	13.3	46.7	0.0	33.3	100.0
	외부 영입 경영인	(10)	0.0	30.0	10.0	0.0	60.0	100.0
	자체 승진 경영인	(18)	5.6	16.7	22.2	5.6	50.0	100.0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1~100위	(18)	5.6	11.1	27.8	0.0	55.6	100.0
	101~200위	(17)	5.9	11.8	23.5	5.9	52.9	100.0
	201~300위	(12)	0.0	16.7	25.0	0.0	58.3	100.0
	301~400위	(10)	10.0	20.0	60.0	0.0	10.0	100.0
	401~500위	(10)	0.0	30.0	30.0	20.0	20.0	100.0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2	1~100위	(18)	5.6	11.1	27.8	0.0	55.6	100.0
	101~200위	(17)	5.9	11.8	23.5	5.9	52.9	100.0
	201~300위	(12)	0.0	16.7	25.0	0.0	58.3	100.0
	300순위 초과	(20)	5.0	25.0	45.0	10.0	15.0	100.0
기업 소재지	수도권	(25)	12.0	20.0	28.0	4.0	36.0	100.0
	충청권	(13)	0.0	15.4	23.1	0.0	61.5	100.0
	호남권	(11)	0.0	18.2	9.1	9.1	63.6	100.0
	영남권	(18)	0.0	11.1	55.6	5.6	27.8	100.0

<부표-3> 건설 CEO의 자질(1순위)

		사례수	건설 CEO의 자질(1순위)									합계
		N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 능력	리더 십	건설 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	강한 추진력	문제 를 해결 하는 협상 능력	수주 능력	현장 경험	직원 들에 대한 배려 의식	정보화 마인드	%
			%	%	%	%	%	%	%	%	%	
전체		(67)	53.7	25.4	3.0	3.0	3.0	7.5	1.5	1.5	1.5	100.0
연 령	50세 미만	(11)	54.5	36.4	0.0	0.0	9.1	0.0	0.0	0.0	0.0	100.0
	50세 이상 60세 미만	(32)	62.5	18.8	0.0	3.1	3.1	9.4	3.1	0.0	0.0	100.0
	60세 이상	(24)	41.7	29.2	8.3	4.2	0.0	8.3	0.0	4.2	4.2	100.0
회사의 관계	창업 경영인	(24)	33.3	41.7	8.3	4.2	4.2	0.0	4.2	4.2	0.0	100.0
	2, 3세 경영인	(15)	46.7	33.3	0.0	0.0	0.0	13.3	0.0	0.0	6.7	100.0
	외부 영입 경영인	(10)	90.0	0.0	0.0	0.0	0.0	10.0	0.0	0.0	0.0	100.0
	자체 승진 경영인	(18)	66.7	11.1	0.0	5.6	5.6	11.1	0.0	0.0	0.0	100.0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1~100위	(18)	77.8	5.6	5.6	5.6	0.0	5.6	0.0	0.0	0.0	100.0
	101~200위	(17)	52.9	29.4	5.9	0.0	5.9	5.9	0.0	0.0	0.0	100.0
	201~300위	(12)	50.0	33.3	0.0	0.0	0.0	8.3	0.0	0.0	8.3	100.0
	301~400위	(10)	30.0	50.0	0.0	10.0	10.0	0.0	0.0	0.0	0.0	100.0
	401~500위	(10)	40.0	20.0	0.0	0.0	0.0	20.0	10.0	10.0	0.0	100.0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2	1~100위	(18)	77.8	5.6	5.6	5.6	0.0	5.6	0.0	0.0	0.0	100.0
	101~200위	(17)	52.9	29.4	5.9	0.0	5.9	5.9	0.0	0.0	0.0	100.0
	201~300위	(12)	50.0	33.3	0.0	0.0	0.0	8.3	0.0	0.0	8.3	100.0
	300순위 초과	(20)	35.0	35.0	0.0	5.0	5.0	10.0	5.0	5.0	0.0	100.0
기업 소재지	수도권	(25)	60.0	28.0	4.0	0.0	0.0	8.0	0.0	0.0	0.0	100.0
	충청권	(13)	53.8	23.1	0.0	7.7	0.0	15.4	0.0	0.0	0.0	100.0
	호남권	(11)	45.5	27.3	9.1	0.0	9.1	0.0	9.1	0.0	0.0	100.0
	영남권	(18)	50.0	22.2	0.0	5.6	5.6	5.6	0.0	5.6	5.6	100.0

<부표-4> 건설 CEO의 자질(1+2순위)

		사례수	건설CEO의 자질(1+2순위)								
		N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 능력	리 더 십	건설 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	강한 추진력	문제를 해결 하는 협상 능력	수주 능력	현장 경험	직원 들에 대한 배려 의식	정보화 마인드
			%	%	%	%	%	%	%	%	%
■ 전체		(67)	64.2	41.8	7.5	20.9	23.9	19.4	6.0	13.4	3.0
연 령	50세 미만	(11)	54.5	72.7	0.0	9.1	27.3	0.0	0.0	27.3	9.1
	50세 이상 60세 미만	(32)	71.9	21.9	3.1	25.0	31.3	28.1	3.1	15.6	0.0
	60세 이상	(24)	58.3	54.2	16.7	20.8	12.5	16.7	12.5	4.2	4.2
회사의 관계	창업 경영인	(24)	50.0	50.0	8.3	29.2	29.2	12.5	8.3	12.5	0.0
	2, 3세 경영인	(15)	46.7	53.3	6.7	6.7	26.7	26.7	6.7	13.3	13.3
	외부 영입 경영인	(10)	90.0	20.0	0.0	10.0	30.0	20.0	0.0	30.0	0.0
	자체 승진 경영인	(18)	83.3	33.3	11.1	27.8	11.1	22.2	5.6	5.6	0.0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1~100위	(18)	94.4	27.8	5.6	27.8	16.7	22.2	0.0	5.6	0.0
	101~200위	(17)	64.7	58.8	5.9	0.0	23.5	17.6	5.9	17.6	5.9
	201~300위	(12)	50.0	50.0	8.3	25.0	25.0	8.3	8.3	16.7	8.3
	301~400위	(10)	50.0	50.0	10.0	50.0	20.0	10.0	10.0	0.0	0.0
	401~500위	(10)	40.0	20.0	10.0	10.0	40.0	40.0	10.0	30.0	0.0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2	1~100위	(18)	94.4	27.8	5.6	27.8	16.7	22.2	0.0	5.6	0.0
	101~200위	(17)	64.7	58.8	5.9	0.0	23.5	17.6	5.9	17.6	5.9
	201~300위	(12)	50.0	50.0	8.3	25.0	25.0	8.3	8.3	16.7	8.3
	300순위 초과	(20)	45.0	35.0	10.0	30.0	30.0	25.0	10.0	15.0	0.0
기업 소재지	수도권	(25)	76.0	52.0	8.0	16.0	16.0	16.0	0.0	12.0	4.0
	충청권	(13)	61.5	38.5	7.7	30.8	7.7	30.8	15.4	7.7	0.0
	호남권	(11)	54.5	36.4	9.1	45.5	27.3	9.1	9.1	9.1	0.0
	영남권	(18)	55.6	33.3	5.6	5.6	44.4	22.2	5.6	22.2	5.6

<부표-5> 2015년의 가장 중요한 경영 방침

		사례수	2015년 경영방침						합계	
			N	개발 사업 등 투자 사업 자제	자금 관리의 강화	지속적인 사업 포트 폴리오 조정 추진	핵심 부서 위주의 조직 개편 및 인력 슬림화	현장 관리 역량의 강화		기타
전체		(67)	4.5	17.9	31.3	11.9	31.3	3.0	100.0	
연 령	50세 미만	(11)	9.1	27.3	9.1	9.1	36.4	9.1	100.0	
	50세 이상 60세 미만	(32)	3.1	18.8	43.8	6.3	28.1	0.0	100.0	
	60세 이상	(24)	4.2	12.5	25.0	20.8	33.3	4.2	100.0	
회사의 관계	창업 경영인	(24)	8.3	20.8	29.2	8.3	29.2	4.2	100.0	
	2, 3세 경영인	(15)	6.7	13.3	33.3	20.0	20.0	6.7	100.0	
	외부 영입 경영인	(10)	0.0	10.0	30.0	20.0	40.0	0.0	100.0	
	자체 승진 경영인	(18)	0.0	22.2	33.3	5.6	38.9	0.0	100.0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1~100위	(18)	0.0	22.2	38.9	16.7	22.2	0.0	100.0	
	101~200위	(17)	0.0	11.8	17.6	17.6	47.1	5.9	100.0	
	201~300위	(12)	8.3	16.7	33.3	8.3	25.0	8.3	100.0	
	301~400위	(10)	10.0	10.0	50.0	0.0	30.0	0.0	100.0	
	401~500위	(10)	10.0	30.0	20.0	10.0	30.0	0.0	100.0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2	1~100위	(18)	0.0	22.2	38.9	16.7	22.2	0.0	100.0	
	101~200위	(17)	0.0	11.8	17.6	17.6	47.1	5.9	100.0	
	201~300위	(12)	8.3	16.7	33.3	8.3	25.0	8.3	100.0	
	300순위 초과	(20)	10.0	20.0	35.0	5.0	30.0	0.0	100.0	
기업 소재지	수도권	(25)	0.0	8.0	28.0	16.0	44.0	4.0	100.0	
	충청권	(13)	7.7	38.5	7.7	0.0	46.2	0.0	100.0	
	호남권	(11)	9.1	9.1	36.4	18.2	18.2	9.1	100.0	
	영남권	(18)	5.6	22.2	50.0	11.1	11.1	0.0	100.0	

<부표-6> 향후 5년간 건설업체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전략

		사례수	향후 5년간 건설업체 생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전략								합계
		N	공격적 수주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	기술 개발	조직 슬림화	생산성 향상을 통한 원가절감	해외 시장 진출	우수한 인재의 확보	기타	%
			%	%	%	%	%	%	%	%	
전체		(67)	10.4	37.3	9.0	1.5	31.3	7.5	1.5	1.5	100.0
연 령	50세 미만	(11)	27.3	18.2	0.0	0.0	54.5	0.0	0.0	0.0	100.0
	50세 이상 60세 미만	(32)	9.4	43.8	12.5	0.0	31.3	3.1	0.0	0.0	100.0
	60세 이상	(24)	4.2	37.5	8.3	4.2	20.8	16.7	4.2	4.2	100.0
회사의 관계	창업 경영인	(24)	8.3	20.8	12.5	4.2	37.5	12.5	4.2	0.0	100.0
	2, 3세 경영인	(15)	20.0	33.3	6.7	0.0	40.0	0.0	0.0	0.0	100.0
	외부 영입 경영인	(10)	0.0	70.0	10.0	0.0	20.0	0.0	0.0	0.0	100.0
	자체 승진 경영인	(18)	11.1	44.4	5.6	0.0	22.2	11.1	0.0	5.6	100.0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1~100위	(18)	0.0	66.7	5.6	5.6	5.6	11.1	0.0	5.6	100.0
	101~200위	(17)	0.0	29.4	11.8	0.0	52.9	5.9	0.0	0.0	100.0
	201~300위	(12)	41.7	16.7	8.3	0.0	33.3	0.0	0.0	0.0	100.0
	301~400위	(10)	20.0	30.0	0.0	0.0	30.0	20.0	0.0	0.0	100.0
	401~500위	(10)	0.0	30.0	20.0	0.0	40.0	0.0	10.0	0.0	100.0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2	1~100위	(18)	0.0	66.7	5.6	5.6	5.6	11.1	0.0	5.6	100.0
	101~200위	(17)	0.0	29.4	11.8	0.0	52.9	5.9	0.0	0.0	100.0
	201~300위	(12)	41.7	16.7	8.3	0.0	33.3	0.0	0.0	0.0	100.0
	300순위 초과	(20)	10.0	30.0	10.0	0.0	35.0	10.0	5.0	0.0	100.0
기업 소재지	수도권	(25)	0.0	48.0	4.0	0.0	28.0	16.0	0.0	4.0	100.0
	충청권	(13)	7.7	46.2	23.1	0.0	15.4	7.7	0.0	0.0	100.0
	호남권	(11)	36.4	0.0	18.2	9.1	36.4	0.0	0.0	0.0	100.0
	영남권	(18)	11.1	38.9	0.0	0.0	44.4	0.0	5.6	0.0	100.0

### <부표-7> 향후 사업 및 조직 구조조정 계획

		사례수	향후 사업 및 구조조정 계획 여부		합계
			있다	없다	
			%	%	
전체		(67)	17.9	82.1	100.0
연 령	50세 미만	(11)	9.1	90.9	100.0
	50세 이상 60세 미만	(32)	18.8	81.3	100.0
	60세 이상	(24)	20.8	79.2	100.0
회사의 관계	창업 경영인	(24)	16.7	83.3	100.0
	2, 3세 경영인	(15)	20.0	80.0	100.0
	외부 영입 경영인	(10)	10.0	90.0	100.0
	자체 승진 경영인	(18)	22.2	77.8	100.0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100위	(18)	22.2	77.8	100.0
	101~200위	(17)	17.6	82.4	100.0
	201~300위	(12)	25.0	75.0	100.0
	301~400위	(10)	0.0	100.0	100.0
	401~500위	(10)	20.0	80.0	100.0
시공능력평가액 순위2	1~100위	(18)	22.2	77.8	100.0
	101~200위	(17)	17.6	82.4	100.0
	201~300위	(12)	25.0	75.0	100.0
	300순위 초과	(20)	10.0	90.0	100.0
기업 소재지	수도권	(25)	16.0	84.0	100.0
	충청권	(13)	7.7	92.3	100.0
	호남권	(11)	54.5	45.5	100.0
	영남권	(18)	5.6	94.4	100.0

<부표-8> 확대하고자 하는 부서

		사례수	건설CEO의 자질					합계
		N	주택사업 부서	개발사업 부서	비주거 건축사업 부서	해외사업 부서	민자사업 부서	%
			%	%	%	%	%	
전체		(12)	58.3	50.0	8.3	8.3	8.3	100.0
연 령	50세 미만	(1)	0.0	100.0	0.0	0.0	0.0	100.0
	50세 이상 60세 미만	(6)	66.7	50.0	0.0	16.7	0.0	100.0
	60세 이상	(5)	60.0	40.0	20.0	0.0	20.0	100.0
회사의 관계	창업 경영인	(4)	100.0	0.0	0.0	0.0	0.0	100.0
	2, 3세 경영인	(3)	0.0	100.0	0.0	0.0	0.0	100.0
	외부 영입 경영인	(1)	100.0	100.0	0.0	100.0	0.0	100.0
	자체 승진 경영인	(4)	50.0	50.0	25.0	0.0	25.0	100.0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1~100위	(4)	75.0	75.0	0.0	25.0	25.0	100.0
	101~200위	(3)	33.3	66.7	0.0	0.0	0.0	100.0
	201~300위	(3)	33.3	33.3	33.3	0.0	0.0	100.0
	401~500위	(2)	100.0	0.0	0.0	0.0	0.0	100.0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2	1~100위	(4)	75.0	75.0	0.0	25.0	25.0	100.0
	101~200위	(3)	33.3	66.7	0.0	0.0	0.0	100.0
	201~300위	(3)	33.3	33.3	33.3	0.0	0.0	100.0
	300순위 초과	(2)	100.0	0.0	0.0	0.0	0.0	100.0
기업 소재지	수도권	(4)	75.0	75.0	0.0	25.0	25.0	100.0
	충청권	(1)	0.0	0.0	100.0	0.0	0.0	100.0
	호남권	(6)	66.7	33.3	0.0	0.0	0.0	100.0
	영남권	(1)	0.0	100.0	0.0	0.0	0.0	100.0



<부표-9> 축소하고자 하는 부서

		사례수	축소하고자 하는 부서					합계
		N	공공사업 부서	플랜트 사업 부서	비주거 건축사업 부서	민자사업 부서	없음	%
			%	%	%	%	%	
전체		(11)	45.5	9.1	9.1	18.2	18.2	100.0
연 령	50세 미만	(1)	0.0	0.0	0.0	100.0	0.0	100.0
	50세 이상 60세 미만	(5)	60.0	0.0	20.0	0.0	20.0	100.0
	60세 이상	(5)	40.0	20.0	0.0	20.0	20.0	100.0
회사의 관계	창업 경영인	(3)	0.0	33.3	0.0	33.3	33.3	100.0
	2, 3세 경영인	(3)	66.7	0.0	0.0	33.3	0.0	100.0
	외부 영입 경영인	(1)	100.0	0.0	0.0	0.0	0.0	100.0
	자체 승진 경영인	(4)	50.0	0.0	25.0	0.0	25.0	100.0
시공능력평 가액 순위	1~100위	(4)	75.0	0.0	0.0	25.0	0.0	100.0
	101~200위	(3)	66.7	0.0	33.3	0.0	0.0	100.0
	201~300위	(3)	0.0	33.3	0.0	33.3	33.3	100.0
	401~500위	(1)	0.0	0.0	0.0	0.0	100.0	100.0
시공능력평 가액 순위2	1~100위	(4)	75.0	0.0	0.0	25.0	0.0	100.0
	101~200위	(3)	66.7	0.0	33.3	0.0	0.0	100.0
	201~300위	(3)	0.0	33.3	0.0	33.3	33.3	100.0
	300순위 초과	(1)	0.0	0.0	0.0	0.0	100.0	100.0
기업 소재지	수도권	(4)	75.0	0.0	25.0	0.0	0.0	100.0
	충청권	(1)	0.0	0.0	0.0	0.0	100.0	100.0
	호남권	(5)	40.0	20.0	0.0	20.0	20.0	100.0
	영남권	(1)	0.0	0.0	0.0	100.0	0.0	100.0

<부표-10> 통폐합하고자 하는 부서

		사례수	통폐합하고자 하는 부서					합계
		N	공공사업 부서	개발사업 부서	플랜트 사업 부서	민자사업 부서	없음	%
			%	%	%	%	%	
전체		(11)	9.1	18.2	18.2	9.1	45.5	100.0
연 령	50세 미만	(1)	0.0	0.0	0.0	0.0	100.0	100.0
	50세 이상 60세 미만	(5)	20.0	20.0	40.0	0.0	20.0	100.0
	60세 이상	(5)	0.0	20.0	0.0	20.0	60.0	100.0
회사의 관계	창업 경영인	(3)	0.0	33.3	0.0	33.3	33.3	100.0
	2, 3세 경영인	(3)	0.0	0.0	33.3	0.0	66.7	100.0
	외부 영입 경영인	(1)	100.0	0.0	0.0	0.0	0.0	100.0
	자체 승진 경영인	(4)	0.0	25.0	25.0	0.0	50.0	100.0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1~100위	(4)	25.0	25.0	25.0	0.0	25.0	100.0
	101~200위	(3)	0.0	33.3	33.3	0.0	33.3	100.0
	201~300위	(3)	0.0	0.0	0.0	33.3	66.7	100.0
	401~500위	(1)	0.0	0.0	0.0	0.0	100.0	100.0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2	1~100위	(4)	25.0	25.0	25.0	0.0	25.0	100.0
	101~200위	(3)	0.0	33.3	33.3	0.0	33.3	100.0
	201~300위	(3)	0.0	0.0	0.0	33.3	66.7	100.0
	300순위 초과	(1)	0.0	0.0	0.0	0.0	100.0	100.0
기업 소재지	수도권	(4)	25.0	25.0	25.0	0.0	25.0	100.0
	충청권	(1)	0.0	0.0	0.0	0.0	100.0	100.0
	호남권	(5)	0.0	20.0	20.0	20.0	40.0	100.0
	영남권	(1)	0.0	0.0	0.0	0.0	100.0	100.0

<부표-11> 폐지 또는 분리하고자 하는 부서

		사례수	폐지 또는 분리하고자 하는 부서					합계
		N	공공사업 부서	플랜트 사업 부서	해외사업 부서	기타	없음	%
			%	%	%	%	%	
전체		(11)	18.2	9.1	36.4	9.1	27.3	100.0
연 령	50세 미만	(1)	100.0	0.0	0.0	0.0	0.0	100.0
	50세 이상 60세 미만	(5)	20.0	0.0	60.0	0.0	20.0	100.0
	60세 이상	(5)	0.0	20.0	20.0	20.0	40.0	100.0
회사의 관계	창업 경영인	(3)	0.0	33.3	33.3	0.0	33.3	100.0
	2, 3세 경영인	(3)	33.3	0.0	33.3	0.0	33.3	100.0
	외부 영입 경영인	(1)	100.0	0.0	0.0	0.0	0.0	100.0
	자체 승진 경영인	(4)	0.0	0.0	50.0	25.0	25.0	100.0
시공능력평 가액 순위	1~100위	(4)	25.0	25.0	25.0	0.0	25.0	100.0
	101~200위	(3)	0.0	0.0	66.7	0.0	33.3	100.0
	201~300위	(3)	33.3	0.0	33.3	33.3	0.0	100.0
	401~500위	(1)	0.0	0.0	0.0	0.0	100.0	100.0
시공능력평 가액 순위2	1~100위	(4)	25.0	25.0	25.0	0.0	25.0	100.0
	101~200위	(3)	0.0	0.0	66.7	0.0	33.3	100.0
	201~300위	(3)	33.3	0.0	33.3	33.3	0.0	100.0
	300순위 초과	(1)	0.0	0.0	0.0	0.0	100.0	100.0
기업 소재지	수도권	(4)	25.0	0.0	50.0	0.0	25.0	100.0
	충청권	(1)	0.0	0.0	0.0	100.0	0.0	100.0
	호남권	(5)	0.0	20.0	40.0	0.0	40.0	100.0
	영남권	(1)	100.0	0.0	0.0	0.0	0.0	100.0

<부표-12> 향후 건설산업을 주도할 건설기술 혁신

		사례수	향후 5년 간 건설산업을 주도할 건설기술 혁신							합계
		N	첨단시설 건축기술 (초고층 시설, 초장대교 량 등)	신공법 및 생산 프로 세스 기술	녹색 건설 기술	기계화, 자동화, 모듈화 등 기술	BIM, PMIS 등 첨단 정보화 기술	안전, 보건 등 기술	기타	%
			%	%	%	%	%	%	%	
전체		(67)	11.9	23.9	32.8	4.5	10.4	13.4	3.0	100.0
연 령	50세 미만	(11)	0.0	27.3	54.5	0.0	9.1	9.1	0.0	100.0
	50세 이상 60세 미만	(32)	18.8	25.0	31.3	6.3	6.3	9.4	3.1	100.0
	60세 이상	(24)	8.3	20.8	25.0	4.2	16.7	20.8	4.2	100.0
회사의 관계	창업 경영인	(24)	8.3	20.8	37.5	4.2	0.0	20.8	8.3	100.0
	2, 3세 경영인	(15)	6.7	26.7	40.0	0.0	20.0	6.7	0.0	100.0
	외부 영입 경영인	(10)	10.0	30.0	40.0	10.0	10.0	0.0	0.0	100.0
	자체 승진 경영인	(18)	22.2	22.2	16.7	5.6	16.7	16.7	0.0	100.0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1~100위	(18)	16.7	27.8	11.1	11.1	33.3	0.0	0.0	100.0
	101~200위	(17)	5.9	35.3	35.3	0.0	0.0	17.6	5.9	100.0
	201~300위	(12)	8.3	25.0	50.0	0.0	8.3	8.3	0.0	100.0
	301~400위	(10)	20.0	10.0	10.0	10.0	0.0	40.0	10.0	100.0
	401~500위	(10)	10.0	10.0	70.0	0.0	0.0	10.0	0.0	100.0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2	1~100위	(18)	16.7	27.8	11.1	11.1	33.3	0.0	0.0	100.0
	101~200위	(17)	5.9	35.3	35.3	0.0	0.0	17.6	5.9	100.0
	201~300위	(12)	8.3	25.0	50.0	0.0	8.3	8.3	0.0	100.0
	300순위 초과	(20)	15.0	10.0	40.0	5.0	0.0	25.0	5.0	100.0
기업 소재지	수도권	(25)	12.0	28.0	28.0	8.0	12.0	4.0	8.0	100.0
	충청권	(13)	23.1	23.1	30.8	7.7	0.0	15.4	0.0	100.0
	호남권	(11)	0.0	27.3	36.4	0.0	9.1	27.3	0.0	100.0
	영남권	(18)	11.1	16.7	38.9	0.0	16.7	16.7	0.0	100.0

<부표-13> 건설기술 개발시 장애가 되는 요인

		사례수	건설기술 개발 시 장애가 되는 요인									합계
		N	실패에 대한 부담	R&D 투자에 대한 사내 인식 저조	산업 기준과 제도의 문제	장기 간에 걸친 투자 회수 부담	낮은 ROI	기술 개발을 반영 하지 못하는 입찰 방식	변화에 대한 조직 내 두려움	고객 (발주자, 투자자 등)의 인식 부족	기타	%
			%	%	%	%	%	%	%	%	%	
전체		(67)	11.9	3.0	17.9	38.8	1.5	14.9	1.5	7.5	3.0	100.0
연 령	50세 미만	(11)	18.2	0.0	9.1	18.2	0.0	27.3	9.1	9.1	9.1	100.0
	50세 이상 60세 미만	(32)	15.6	0.0	18.8	43.8	3.1	6.3	0.0	9.4	3.1	100.0
	60세 이상	(24)	4.2	8.3	20.8	41.7	0.0	20.8	0.0	4.2	0.0	100.0
회사의 관계	창업 경영인	(24)	20.8	0.0	16.7	50.0	0.0	4.2	0.0	8.3	0.0	100.0
	2, 3세 경영인	(15)	6.7	6.7	13.3	26.7	0.0	20.0	6.7	13.3	6.7	100.0
	외부 영입 경영인	(10)	10.0	0.0	20.0	20.0	10.0	20.0	0.0	10.0	10.0	100.0
	자체 승진 경영인	(18)	5.6	5.6	22.2	44.4	0.0	22.2	0.0	0.0	0.0	100.0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1~100위	(18)	5.6	5.6	16.7	38.9	5.6	16.7	0.0	5.6	5.6	100.0
	101~200위	(17)	11.8	5.9	23.5	17.6	0.0	35.3	0.0	5.9	0.0	100.0
	201~300위	(12)	8.3	0.0	16.7	50.0	0.0	8.3	0.0	8.3	8.3	100.0
	301~400위	(10)	10.0	0.0	20.0	60.0	0.0	0.0	0.0	10.0	0.0	100.0
	401~500위	(10)	30.0	0.0	10.0	40.0	0.0	0.0	10.0	10.0	0.0	100.0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2	1~100위	(18)	5.6	5.6	16.7	38.9	5.6	16.7	0.0	5.6	5.6	100.0
	101~200위	(17)	11.8	5.9	23.5	17.6	0.0	35.3	0.0	5.9	0.0	100.0
	201~300위	(12)	8.3	0.0	16.7	50.0	0.0	8.3	0.0	8.3	8.3	100.0
	300순위 초과	(20)	20.0	0.0	15.0	50.0	0.0	0.0	5.0	10.0	0.0	100.0
기업 소재지	수도권	(25)	12.0	4.0	24.0	40.0	0.0	12.0	0.0	4.0	4.0	100.0
	충청권	(13)	7.7	0.0	7.7	46.2	0.0	23.1	0.0	15.4	0.0	100.0
	호남권	(11)	9.1	0.0	9.1	54.5	0.0	18.2	0.0	0.0	9.1	100.0
	영남권	(18)	16.7	5.6	22.2	22.2	5.6	11.1	5.6	11.1	0.0	100.0

**<부표-14> 현 정부 출범 이후 시행된 건설산업의  
각 분야별 정책에 대한 평가\_입낙찰 관련 정책**

		사례수	현 정부 출범 이후 시행된 건설산업의 각 분야별 정책에 대한 평가_입낙찰 관련 정책				합계	5점 평균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N	%	%	%	%	%	
전체		(67)	10.4	47.8	32.8	9.0	100.0	2.60
연 령	50세 미만	(11)	0.0	63.6	27.3	9.1	100.0	2.55
	50세 이상 60세 미만	(32)	12.5	46.9	28.1	12.5	100.0	2.59
	60세 이상	(24)	12.5	41.7	41.7	4.2	100.0	2.63
회사의 관계	창업 경영인	(24)	12.5	54.2	25.0	8.3	100.0	2.71
	2, 3세 경영인	(15)	6.7	40.0	40.0	13.3	100.0	2.40
	외부 영입 경영인	(10)	20.0	50.0	30.0	0.0	100.0	2.90
	자체 승진 경영인	(18)	5.6	44.4	38.9	11.1	100.0	2.44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1~100위	(18)	22.2	22.2	44.4	11.1	100.0	2.56
	101~200위	(17)	11.8	64.7	17.6	5.9	100.0	2.82
	201~300위	(12)	0.0	33.3	50.0	16.7	100.0	2.17
	301~400위	(10)	10.0	80.0	10.0	0.0	100.0	3.00
	401~500위	(10)	0.0	50.0	40.0	10.0	100.0	2.40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2	1~100위	(18)	22.2	22.2	44.4	11.1	100.0	2.56
	101~200위	(17)	11.8	64.7	17.6	5.9	100.0	2.82
	201~300위	(12)	0.0	33.3	50.0	16.7	100.0	2.17
	300순위 초과	(20)	5.0	65.0	25.0	5.0	100.0	2.70
기업 소재지	수도권	(25)	20.0	52.0	24.0	4.0	100.0	2.88
	충청권	(13)	15.4	61.5	23.1	0.0	100.0	2.92
	호남권	(11)	0.0	27.3	36.4	36.4	100.0	1.91
	영남권	(18)	0.0	44.4	50.0	5.6	100.0	2.39

**<부표-15> 현 정부 출범 이후 시행된 건설산업의  
각 분야별 정책에 대한 평가\_적정공사비 확보 관련 정책**

		사례수	현 정부 출범 이후 시행된 건설산업의 각 분야별 정책에 대한 평가_적정공사비 확보 관련 정책				합계	5점 평균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N	%	%	%	%	%	
전체		(67)	9.0	46.3	32.8	11.9	100.0	2.52
연 령	50세 미만	(11)	9.1	54.5	27.3	9.1	100.0	2.64
	50세 이상	(32)	9.4	43.8	28.1	18.8	100.0	2.44
	60세 미만	(24)	8.3	45.8	41.7	4.2	100.0	2.58
	60세 이상	(24)	4.2	58.3	20.8	16.7	100.0	2.50
회사의 관계	창업 경영인	(15)	13.3	20.0	60.0	6.7	100.0	2.40
	2, 3세 경영인	(10)	10.0	60.0	20.0	10.0	100.0	2.70
	외부 영입 경영인	(18)	11.1	44.4	33.3	11.1	100.0	2.56
	자체 승진 경영인	(18)	22.2	27.8	33.3	16.7	100.0	2.56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1~100위	(17)	5.9	58.8	35.3	0.0	100.0	2.71
	101~200위	(12)	0.0	33.3	50.0	16.7	100.0	2.17
	201~300위	(10)	0.0	80.0	10.0	10.0	100.0	2.70
	301~400위	(10)	10.0	40.0	30.0	20.0	100.0	2.40
	401~500위	(18)	22.2	27.8	33.3	16.7	100.0	2.56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2	1~100위	(17)	5.9	58.8	35.3	0.0	100.0	2.71
	101~200위	(12)	0.0	33.3	50.0	16.7	100.0	2.17
	201~300위	(20)	5.0	60.0	20.0	15.0	100.0	2.55
	300순위 초과	(25)	8.0	56.0	32.0	4.0	100.0	2.68
기업 소재지	수도권	(13)	23.1	46.2	15.4	15.4	100.0	2.77
	충청권	(11)	0.0	27.3	45.5	27.3	100.0	2.00
	호남권	(18)	5.6	44.4	38.9	11.1	100.0	2.44
	영남권	(24)	4.2	58.3	20.8	16.7	100.0	2.50

**<부표-16> 현 정부 출범 이후 시행된 건설산업의  
각 분야별 정책에 대한 평가\_산업 구조조정 관련 정책**

		사례수	현 정부 출범 이후 시행된 건설산업의 각 분야별 정책에 대한 평가_산업 구조조정 관련 정책				합계	5점 평균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N	%	%	%	%	%	
전체		(67)	6.0	62.7	29.9	1.5	100.0	2.73
연 령	50세 미만	(11)	0.0	54.5	45.5	0.0	100.0	2.55
	50세 이상 60세 미만	(32)	6.3	56.3	34.4	3.1	100.0	2.66
	60세 이상	(24)	8.3	75.0	16.7	0.0	100.0	2.92
회사의 관계	창업 경영인	(24)	0.0	70.8	25.0	4.2	100.0	2.67
	2, 3세 경영인	(15)	6.7	33.3	60.0	0.0	100.0	2.47
	외부 영입 경영인	(10)	10.0	80.0	10.0	0.0	100.0	3.00
	자체 승진 경영인	(18)	11.1	66.7	22.2	0.0	100.0	2.89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1~100위	(18)	5.6	66.7	27.8	0.0	100.0	2.78
	101~200위	(17)	5.9	64.7	29.4	0.0	100.0	2.76
	201~300위	(12)	8.3	50.0	41.7	0.0	100.0	2.67
	301~400위	(10)	10.0	60.0	30.0	0.0	100.0	2.80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2	401~500위	(10)	0.0	70.0	20.0	10.0	100.0	2.60
	1~100위	(18)	5.6	66.7	27.8	0.0	100.0	2.78
	101~200위	(17)	5.9	64.7	29.4	0.0	100.0	2.76
	201~300위	(12)	8.3	50.0	41.7	0.0	100.0	2.67
기업 소재지	300순위 초과	(20)	5.0	65.0	25.0	5.0	100.0	2.70
	수도권	(25)	4.0	60.0	36.0	0.0	100.0	2.68
	충청권	(13)	0.0	92.3	7.7	0.0	100.0	2.92
	호남권	(11)	9.1	36.4	45.5	9.1	100.0	2.45
	영남권	(18)	11.1	61.1	27.8	0.0	100.0	2.83



**<부표-17> 현 정부 출범 이후 시행된 건설산업의  
각 분야별 정책에 대한 평가\_주택/부동산 관련 정책**

		사례수	현 정부 출범 이후 시행된 건설산업의 각 분야별 정책에 대한 평가_주택/부동산 관련 정책					합계	5점 평균		
			N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
전체		(67)	1.5	22.4	55.2	16.4	4.5	100.0	3.00		
연 령	50세 미만	(11)	0.0	18.2	45.5	36.4	0.0	100.0	2.82		
	50세 이상 60세 미만	(32)	3.1	9.4	62.5	15.6	9.4	100.0	2.81		
	60세 이상	(24)	0.0	41.7	50.0	8.3	0.0	100.0	3.33		
회사의 관계	창업 경영인	(24)	0.0	12.5	66.7	12.5	8.3	100.0	2.83		
	2, 3세 경영인	(15)	6.7	26.7	40.0	26.7	0.0	100.0	3.13		
	외부 영입 경영인	(10)	0.0	10.0	80.0	10.0	0.0	100.0	3.00		
	자체 승진 경영인	(18)	0.0	38.9	38.9	16.7	5.6	100.0	3.11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1~100위	(18)	5.6	38.9	44.4	11.1	0.0	100.0	3.39		
	101~200위	(17)	0.0	17.6	58.8	17.6	5.9	100.0	2.88		
	201~300위	(12)	0.0	25.0	50.0	25.0	0.0	100.0	3.00		
	301~400위	(10)	0.0	10.0	70.0	20.0	0.0	100.0	2.90		
	401~500위	(10)	0.0	10.0	60.0	10.0	20.0	100.0	2.60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2	1~100위	(18)	5.6	38.9	44.4	11.1	0.0	100.0	3.39		
	101~200위	(17)	0.0	17.6	58.8	17.6	5.9	100.0	2.88		
	201~300위	(12)	0.0	25.0	50.0	25.0	0.0	100.0	3.00		
	300순위 초과	(20)	0.0	10.0	65.0	15.0	10.0	100.0	2.75		
기업 소재지	수도권	(25)	0.0	28.0	52.0	20.0	0.0	100.0	3.08		
	충청권	(13)	0.0	23.1	76.9	0.0	0.0	100.0	3.23		
	호남권	(11)	9.1	9.1	36.4	36.4	9.1	100.0	2.73		
	영남권	(18)	0.0	22.2	55.6	11.1	11.1	100.0	2.89		

<부표-18> 우리나라 건설업계 최대 이슈(1순위)

		사례수	우리나라 건설업계 최대 이슈(1순위)										합계	
			N	종합 심사제 등 입찰 제도의 합리적 개선	대중소, 지역 중소 업체 보호	건설 업체 부도 방지 및 경영난 해소	부실, 부적격 업체의 건설시 장 퇴출	주 계약자 공동 도급, 지역 의무 공동 도급 등 개선	건설 업역 제한 폐지 (시공, 설계 겸업 금지, 전기/ 통신 분리 발주 등)	분양가 상한제 등 주택, 부동산 관련 잔존 규제 완화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의 지속	민간 투자 제도 (BTO, BTL 등) 개선		해외 건설 시장 진출
				%	%	%	%	%	%	%	%	%		%
전체		(67)	26.9	10.4	9.0	11.9	1.5	1.5	9.0	25.4	1.5	3.0	100.0	
연 령	50세 미만	(11)	45.5	9.1	18.2	0.0	0.0	9.1	9.1	9.1	0.0	0.0	100.0	
	50세 이상	(32)	18.8	12.5	3.1	9.4	0.0	0.0	12.5	37.5	3.1	3.1	100.0	
	60세 미만	(24)	29.2	8.3	12.5	20.8	4.2	0.0	4.2	16.7	0.0	4.2	100.0	
	60세 이상	(24)	29.2	8.3	12.5	20.8	4.2	0.0	4.2	16.7	0.0	4.2	100.0	
회사의 관계	창업 경영인	(24)	20.8	25.0	8.3	12.5	0.0	0.0	4.2	25.0	4.2	0.0	100.0	
	2, 3세 경영인	(15)	40.0	6.7	6.7	0.0	6.7	0.0	13.3	26.7	0.0	0.0	100.0	
	외부 영입 경영인	(10)	20.0	0.0	10.0	10.0	0.0	0.0	0.0	40.0	0.0	20.0	100.0	
	자체 승진 경영인	(18)	27.8	0.0	11.1	22.2	0.0	5.6	16.7	16.7	0.0	0.0	100.0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	1~100위	(18)	33.3	0.0	11.1	5.6	0.0	0.0	5.6	33.3	0.0	11.1	100.0	
	101~200위	(17)	17.6	0.0	17.6	11.8	5.9	5.9	23.5	17.6	0.0	0.0	100.0	
	201~300위	(12)	50.0	25.0	0.0	16.7	0.0	0.0	0.0	8.3	0.0	0.0	100.0	
	301~400위	(10)	10.0	20.0	10.0	20.0	0.0	0.0	0.0	40.0	0.0	0.0	100.0	
	401~500위	(10)	20.0	20.0	0.0	10.0	0.0	0.0	10.0	30.0	10.0	0.0	100.0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2	1~100위	(18)	33.3	0.0	11.1	5.6	0.0	0.0	5.6	33.3	0.0	11.1	100.0	
	101~200위	(17)	17.6	0.0	17.6	11.8	5.9	5.9	23.5	17.6	0.0	0.0	100.0	
	201~300위	(12)	50.0	25.0	0.0	16.7	0.0	0.0	0.0	8.3	0.0	0.0	100.0	
	300순위 초과	(20)	15.0	20.0	5.0	15.0	0.0	0.0	5.0	35.0	5.0	0.0	100.0	
기업 소재지	수도권	(25)	8.0	0.0	20.0	12.0	0.0	4.0	12.0	40.0	0.0	4.0	100.0	
	충청권	(13)	53.8	15.4	0.0	15.4	0.0	0.0	0.0	7.7	0.0	7.7	100.0	
	호남권	(11)	18.2	36.4	0.0	9.1	9.1	0.0	9.1	9.1	9.1	0.0	100.0	
	영남권	(18)	38.9	5.6	5.6	11.1	0.0	0.0	11.1	27.8	0.0	0.0	100.0	

<부표-19> 우리나라 건설업계 최대 이슈(1+2순위)

		사례수	우리나라 건설업계 최대 이슈(1+2순위)												
		N	종합 심사제 등 입찰제도의 합리적 개선	대중소, 지역 중소 업체 보호	건설 업체 부도 방지 및 경영상 해소	부실, 부적격 업체의 건설 시장 퇴출	주 계약자 공동 도급, 지역 의무 공동 도급 등 개선	건설 업역 제한 폐지( 시공, 설계 겸업 금지, 전기/ 통신 분리 발주 등)	분양가 상한제 등 주택, 부동산 관련 잔존 규제 완화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의 지속	민간 투자 제도 (BTO, BTL 등) 개선	해외 건설 시장 진출	녹색, 저탄소 분야 건설 시장 개척	건설 이미지 개선 및 윤리 경영 실천	유능한 건설 기술 및 기능 인력의 양성 및 확보
			%	%	%	%	%	%	%	%	%	%	%	%	%
전체		(67)	37.3	23.9	17.9	23.9	3.0	4.5	11.9	52.2	3.0	4.5	1.5	6.0	10.4
연 령	50세 미만	(11)	45.5	18.2	27.3	27.3	0.0	9.1	9.1	36.4	0.0	0.0	0.0	18.2	9.1
	50세 이상 60세 미만	(32)	31.3	21.9	12.5	25.0	3.1	0.0	12.5	62.5	3.1	3.1	3.1	6.3	15.6
	60세 이상	(24)	41.7	29.2	20.8	20.8	4.2	8.3	12.5	45.8	4.2	8.3	0.0	0.0	4.2
회사의 관계	창업 경영인	(24)	41.7	37.5	16.7	20.8	4.2	4.2	4.2	41.7	8.3	0.0	0.0	4.2	16.7
	2, 3세 경영인	(15)	46.7	20.0	20.0	26.7	6.7	0.0	13.3	60.0	0.0	0.0	0.0	6.7	0.0
	외부 영입 경영인	(10)	30.0	20.0	10.0	20.0	0.0	0.0	0.0	50.0	0.0	20.0	10.0	20.0	20.0
	자체 승진 경영인	(18)	27.8	11.1	22.2	27.8	0.0	11.1	27.8	61.1	0.0	5.6	0.0	0.0	5.6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	1~100위	(18)	44.4	5.6	22.2	11.1	0.0	5.6	11.1	66.7	0.0	16.7	0.0	5.6	11.1
	101~200위	(17)	23.5	17.6	23.5	23.5	5.9	5.9	29.4	47.1	0.0	0.0	0.0	5.9	17.6
	201~300위	(12)	50.0	33.3	16.7	41.7	0.0	0.0	0.0	41.7	0.0	0.0	8.3	0.0	8.3
	301~400위	(10)	30.0	40.0	10.0	30.0	0.0	10.0	0.0	50.0	10.0	0.0	0.0	10.0	10.0
	401~500위	(10)	40.0	40.0	10.0	20.0	10.0	0.0	10.0	50.0	10.0	0.0	0.0	10.0	0.0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2	1~100위	(18)	44.4	5.6	22.2	11.1	0.0	5.6	11.1	66.7	0.0	16.7	0.0	5.6	11.1
	101~200위	(17)	23.5	17.6	23.5	23.5	5.9	5.9	29.4	47.1	0.0	0.0	0.0	5.9	17.6
	201~300위	(12)	50.0	33.3	16.7	41.7	0.0	0.0	0.0	41.7	0.0	0.0	8.3	0.0	8.3
	300순위 초과	(20)	35.0	40.0	10.0	25.0	5.0	5.0	5.0	50.0	10.0	0.0	0.0	10.0	5.0
기업 소재지	수도권	(25)	20.0	8.0	28.0	20.0	0.0	8.0	16.0	68.0	0.0	8.0	0.0	8.0	16.0
	충청권	(13)	61.5	38.5	7.7	30.8	0.0	0.0	0.0	38.5	0.0	7.7	0.0	7.7	7.7
	호남권	(11)	27.3	36.4	9.1	18.2	18.2	9.1	9.1	54.5	9.1	0.0	0.0	0.0	9.1
	영남권	(18)	50.0	27.8	16.7	27.8	0.0	0.0	16.7	38.9	5.6	0.0	5.6	5.6	5.6

<부표-20> 건설산업의 장기 비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1순위)

		사례수	건설산업의 장기 비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1순위)							합계
		N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민간의 창의성이 확보될 수 있는 건설 산업 방향 모색	인적자원 육성 및 지식 공유에 초점을 둔 산업 혁신 유도	R&D 투자 확대 및 연구와 혁신의 연계 강조	건전하고 일방의 손실을 강요하지 않는 사업 환경 조성(제값 주고 제값 받기 등)	양극화 해소 및 상생발전 : 대/중/소 상생협력 및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녹색건설, 초장대교량 등 성장가능성 높은 건설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	%
			%	%	%	%	%	%	%	
전체		(67)	11.9	10.4	4.5	4.5	43.3	23.9	1.5	100.0
연 령	50세 미만	(11)	9.1	18.2	9.1	0.0	27.3	36.4	0.0	100.0
	50세 이상	(32)	6.3	6.3	6.3	6.3	43.8	28.1	3.1	100.0
	60세 미만	(24)	20.8	12.5	0.0	4.2	50.0	12.5	0.0	100.0
	60세 이상	(24)	20.8	12.5	0.0	4.2	50.0	12.5	0.0	100.0
회사의 관계	창업 경영인	(24)	25.0	4.2	8.3	0.0	25.0	37.5	0.0	100.0
	2, 3세 경영인	(15)	6.7	26.7	6.7	6.7	33.3	20.0	0.0	100.0
	외부 영입 경영인	(10)	10.0	10.0	0.0	0.0	80.0	0.0	0.0	100.0
	자체 승진 경영인	(18)	0.0	5.6	0.0	11.1	55.6	22.2	5.6	100.0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	1~100위	(18)	5.6	11.1	0.0	5.6	72.2	5.6	0.0	100.0
	101~200위	(17)	17.6	5.9	5.9	5.9	23.5	41.2	0.0	100.0
	201~300위	(12)	0.0	16.7	0.0	0.0	33.3	50.0	0.0	100.0
	301~400위	(10)	10.0	0.0	20.0	0.0	50.0	10.0	10.0	100.0
	401~500위	(10)	30.0	20.0	0.0	10.0	30.0	10.0	0.0	100.0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2	1~100위	(18)	5.6	11.1	0.0	5.6	72.2	5.6	0.0	100.0
	101~200위	(17)	17.6	5.9	5.9	5.9	23.5	41.2	0.0	100.0
	201~300위	(12)	0.0	16.7	0.0	0.0	33.3	50.0	0.0	100.0
	300순위 초과	(20)	20.0	10.0	10.0	5.0	40.0	10.0	5.0	100.0
기업 소재지	수도권	(25)	8.0	4.0	12.0	8.0	48.0	20.0	0.0	100.0
	충청권	(13)	15.4	15.4	0.0	0.0	46.2	23.1	0.0	100.0
	호남권	(11)	27.3	9.1	0.0	0.0	36.4	27.3	0.0	100.0
	영남권	(18)	5.6	16.7	0.0	5.6	38.9	27.8	5.6	100.0

<부표-21> 건설산업의 장기 비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1+2순위)

		사례수	건설산업의 장기 비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1+2순위)						
		N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민간의 창의성이 확보될 수 있는 건설 산업 방향 모색	인적자원 육성 및 지식 공유에 초점을 둔 산업 혁신 유도	R&D 투자 확대 및 연구와 혁신의 연계 강조	건전하고 일방의 손실을 강요하지 않는 사업 환경 조성(제값 주고 제값 받기 등)	양극화 해소 및 상생발전 : 대/중/소 상생협력 및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녹색건설 , 초장대교량 등 성장가능성 높은 건설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
			%	%	%	%	%	%	%
전체		(67)	26.9	29.9	11.9	7.5	58.2	55.2	10.4
연 령	50세 미만	(11)	9.1	36.4	18.2	9.1	36.4	63.6	27.3
	50세 이상	(32)	28.1	21.9	15.6	9.4	62.5	56.3	6.3
	60세 미만								
	60세 이상	(24)	33.3	37.5	4.2	4.2	62.5	50.0	8.3
회사의 관계	창업 경영인	(24)	37.5	29.2	12.5	0.0	41.7	66.7	12.5
	2, 3세 경영인	(15)	20.0	33.3	13.3	6.7	46.7	60.0	20.0
	외부 영입 경영인	(10)	20.0	20.0	10.0	10.0	90.0	50.0	0.0
	자체 승진 경영인	(18)	22.2	33.3	11.1	16.7	72.2	38.9	5.6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	1~100위	(18)	22.2	33.3	5.6	5.6	88.9	44.4	0.0
	101~200위	(17)	41.2	17.6	11.8	11.8	41.2	58.8	17.6
	201~300위	(12)	8.3	25.0	16.7	0.0	41.7	83.3	25.0
	301~400위	(10)	20.0	30.0	20.0	10.0	70.0	40.0	10.0
	401~500위	(10)	40.0	50.0	10.0	10.0	40.0	50.0	0.0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2	1~100위	(18)	22.2	33.3	5.6	5.6	88.9	44.4	0.0
	101~200위	(17)	41.2	17.6	11.8	11.8	41.2	58.8	17.6
	201~300위	(12)	8.3	25.0	16.7	0.0	41.7	83.3	25.0
	300순위 초과	(20)	30.0	40.0	15.0	10.0	55.0	45.0	5.0
기업 소재지	수도권	(25)	28.0	32.0	20.0	12.0	68.0	32.0	8.0
	충청권	(13)	15.4	23.1	15.4	0.0	53.8	84.6	7.7
	호남권	(11)	45.5	27.3	0.0	9.1	54.5	45.5	18.2
	영남권	(18)	22.2	33.3	5.6	5.6	50.0	72.2	11.1

<부표-22> 국내 건설시장 규모의 중장기적 전망

		사례수	국내 건설시장에 규모에 대한 중장기적 전망					합계
		N	완만한 성장세 지속	현재 시장규모 유지하며 정체될 것	지속적인 시장규모 축소 예상	중기적(5 년)으로 현재 규모 유지 후 장기적으 로 축소	중기적(5 년)으로 현재 규모 유지 후 장기적으 로 확대	%
			%	%	%	%	%	
전체		(67)	7.5	17.9	17.9	55.2	1.5	100.0
연 령	50세 미만	(11)	27.3	9.1	27.3	36.4	0.0	100.0
	50세 이상 60세 미만	(32)	0.0	18.8	18.8	59.4	3.1	100.0
	60세 이상	(24)	8.3	20.8	12.5	58.3	0.0	100.0
회사의 관계	창업 경영인	(24)	0.0	20.8	25.0	54.2	0.0	100.0
	2, 3세 경영인	(15)	6.7	6.7	20.0	66.7	0.0	100.0
	외부 영입 경영인	(10)	10.0	20.0	20.0	50.0	0.0	100.0
	자체 승진 경영인	(18)	16.7	22.2	5.6	50.0	5.6	100.0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	1~100위	(18)	5.6	16.7	22.2	55.6	0.0	100.0
	101~200위	(17)	17.6	17.6	11.8	52.9	0.0	100.0
	201~300위	(12)	8.3	16.7	8.3	58.3	8.3	100.0
	301~400위	(10)	0.0	20.0	20.0	60.0	0.0	100.0
	401~500위	(10)	0.0	20.0	30.0	50.0	0.0	100.0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2	1~100위	(18)	5.6	16.7	22.2	55.6	0.0	100.0
	101~200위	(17)	17.6	17.6	11.8	52.9	0.0	100.0
	201~300위	(12)	8.3	16.7	8.3	58.3	8.3	100.0
	300순위 초과	(20)	0.0	20.0	25.0	55.0	0.0	100.0
기업 소재지	수도권	(25)	8.0	20.0	16.0	56.0	0.0	100.0
	충청권	(13)	15.4	23.1	15.4	46.2	0.0	100.0
	호남권	(11)	0.0	0.0	27.3	63.6	9.1	100.0
	영남권	(18)	5.6	22.2	16.7	55.6	0.0	100.0

<부표-23> 국내 건설 수주 회복세의 지속세에 대한 전망

		사례수	최근 회복세의 지속 기간 예상					합계		
			N	2015년 까지 회복세 지속, 이후 회복세 주춤	2016년 까지 회복세 지속, 이후 회복세 주춤	2017년 까지 회복세 지속, 이후 회복세 주춤	2018년 까지 회복세 지속, 이후 회복세 주춤		2019년 까지 회복세 지속, 이후 회복세 주춤	%
				%	%	%	%		%	
전체		(67)	38.8	32.8	20.9	3.0	4.5	100.0		
연 령	50세 미만	(11)	36.4	36.4	27.3	0.0	0.0	100.0		
	50세 이상 60세 미만	(32)	34.4	40.6	21.9	3.1	0.0	100.0		
	60세 이상	(24)	45.8	20.8	16.7	4.2	12.5	100.0		
회사의 관계	창업 경영인	(24)	45.8	20.8	29.2	4.2	0.0	100.0		
	2, 3세 경영인	(15)	46.7	26.7	20.0	0.0	6.7	100.0		
	외부 영입 경영인	(10)	20.0	80.0	0.0	0.0	0.0	100.0		
	자체 승진 경영인	(18)	33.3	27.8	22.2	5.6	11.1	100.0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	1~100위	(18)	38.9	61.1	0.0	0.0	0.0	100.0		
	101~200위	(17)	35.3	23.5	29.4	0.0	11.8	100.0		
	201~300위	(12)	16.7	33.3	41.7	0.0	8.3	100.0		
	301~400위	(10)	30.0	30.0	20.0	20.0	0.0	100.0		
	401~500위	(10)	80.0	0.0	20.0	0.0	0.0	100.0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2	1~100위	(18)	38.9	61.1	0.0	0.0	0.0	100.0		
	101~200위	(17)	35.3	23.5	29.4	0.0	11.8	100.0		
	201~300위	(12)	16.7	33.3	41.7	0.0	8.3	100.0		
	300순위 초과	(20)	55.0	15.0	20.0	10.0	0.0	100.0		
기업 소재지	수도권	(25)	32.0	44.0	20.0	0.0	4.0	100.0		
	충청권	(13)	30.8	23.1	23.1	7.7	15.4	100.0		
	호남권	(11)	54.5	9.1	27.3	9.1	0.0	100.0		
	영남권	(18)	44.4	38.9	16.7	0.0	0.0	100.0		

〈부표-24〉 향후 건설 수주액의 최고치 경신 가능성

		사례수	향후 건설 수주액의 최고치 경신 가능성				합계
		N	향후 초과할 가능성 매우 낮음	향후 초과할 가능성 낮음	보통	향후 초과할 가능성 높음	%
			%	%	%	%	
전체		(67)	22.4	46.3	19.4	11.9	100.0
연 령	50세 미만	(11)	9.1	45.5	27.3	18.2	100.0
	50세 이상 60세 미만	(32)	25.0	53.1	15.6	6.3	100.0
	60세 이상	(24)	25.0	37.5	20.8	16.7	100.0
회사의 관계	창업 경영인	(24)	12.5	58.3	16.7	12.5	100.0
	2, 3세 경영인	(15)	40.0	33.3	20.0	6.7	100.0
	외부 영입 경영인	(10)	30.0	50.0	0.0	20.0	100.0
	자체 승진 경영인	(18)	16.7	38.9	33.3	11.1	100.0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	1~100위	(18)	33.3	44.4	16.7	5.6	100.0
	101~200위	(17)	17.6	29.4	29.4	23.5	100.0
	201~300위	(12)	0.0	58.3	25.0	16.7	100.0
	301~400위	(10)	20.0	50.0	20.0	10.0	100.0
	401~500위	(10)	40.0	60.0	0.0	0.0	100.0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2	1~100위	(18)	33.3	44.4	16.7	5.6	100.0
	101~200위	(17)	17.6	29.4	29.4	23.5	100.0
	201~300위	(12)	0.0	58.3	25.0	16.7	100.0
	300순위 초과	(20)	30.0	55.0	10.0	5.0	100.0
기업 소재지	수도권	(25)	32.0	36.0	16.0	16.0	100.0
	충청권	(13)	0.0	46.2	30.8	23.1	100.0
	호남권	(11)	27.3	63.6	9.1	0.0	100.0
	영남권	(18)	22.2	50.0	22.2	5.6	100.0



<부표-25> 공공 건설시장 규모의 변화 예측

		사례수	중장기적으로 향후 공공 건설시장 규모의 변화 예측					합계
		N	향후 지속적으로 공공시장 규모 축소 예상	현재의 공공시장 규모가 유지될 것	단기적으로 공공 시장 규모 유지 이후 차기 정부에서 시장 규모 축소 예상	단기적으로 공공 시장 규모 축소 이후 차기 정부에서 시장 규모 증가 예상	기타	%
			%	%	%	%	%	
전체		(67)	25.4	23.9	40.3	7.5	3.0	100.0
연 령	50세 미만	(11)	27.3	36.4	18.2	9.1	9.1	100.0
	50세 이상							
	60세 미만	(32)	31.3	9.4	43.8	12.5	3.1	100.0
	60세 이상	(24)	16.7	37.5	45.8	0.0	0.0	100.0
회사의 관계	창업 경영인	(24)	25.0	20.8	41.7	12.5	0.0	100.0
	2, 3세 경영인	(15)	33.3	13.3	40.0	6.7	6.7	100.0
	외부 영입 경영인	(10)	40.0	20.0	30.0	0.0	10.0	100.0
	자체 승진 경영인	(18)	11.1	38.9	44.4	5.6	0.0	100.0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	1~100위	(18)	16.7	16.7	61.1	0.0	5.6	100.0
	101~200위	(17)	35.3	35.3	23.5	5.9	0.0	100.0
	201~300위	(12)	8.3	33.3	33.3	16.7	8.3	100.0
	301~400위	(10)	20.0	10.0	60.0	10.0	0.0	100.0
	401~500위	(10)	50.0	20.0	20.0	10.0	0.0	100.0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2	1~100위	(18)	16.7	16.7	61.1	0.0	5.6	100.0
	101~200위	(17)	35.3	35.3	23.5	5.9	0.0	100.0
	201~300위	(12)	8.3	33.3	33.3	16.7	8.3	100.0
	300순위 초과	(20)	35.0	15.0	40.0	10.0	0.0	100.0
기업 소재지	수도권	(25)	32.0	16.0	40.0	8.0	4.0	100.0
	충청권	(13)	23.1	46.2	30.8	0.0	0.0	100.0
	호남권	(11)	9.1	18.2	54.5	9.1	9.1	100.0
	영남권	(18)	27.8	22.2	38.9	11.1	0.0	100.0

**<부표-26> 5년 후 국내 건설시장에서 공공 시장의  
비중 변화에 대한 예상**

		사례수	향후 5년 후 국내 건설시장에서 공공 시장의 비중 변화 예상					합계
		N	약 50% 내외 수준으로 비중 확대	약 40% 내외 수준으로 비중 확대	약 30% 내외 수준으로 비중 유지	약 20% 내외 수준으로 비중 축소	약 10% 내외 수준으로 비중 축소	%
			%	%	%	%	%	
전체		(67)	4.5	11.9	64.2	17.9	1.5	100.0
연 령	50세 미만	(11)	9.1	27.3	27.3	27.3	9.1	100.0
	50세이상 60세미만	(32)	6.3	12.5	62.5	18.8	0.0	100.0
	60세 이상	(24)	0.0	4.2	83.3	12.5	0.0	100.0
회사의 관계	창업 경영인	(24)	4.2	16.7	70.8	8.3	0.0	100.0
	2, 3세 경영인	(15)	6.7	13.3	40.0	33.3	6.7	100.0
	외부 영입 경영인	(10)	0.0	10.0	70.0	20.0	0.0	100.0
	자체 승진 경영인	(18)	5.6	5.6	72.2	16.7	0.0	100.0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	1~100위	(18)	0.0	0.0	77.8	22.2	0.0	100.0
	101~200위	(17)	11.8	11.8	64.7	11.8	0.0	100.0
	201~300위	(12)	0.0	16.7	66.7	8.3	8.3	100.0
	301~400위	(10)	0.0	20.0	70.0	10.0	0.0	100.0
	401~500위	(10)	10.0	20.0	30.0	40.0	0.0	100.0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2	1~100위	(18)	0.0	0.0	77.8	22.2	0.0	100.0
	101~200위	(17)	11.8	11.8	64.7	11.8	0.0	100.0
	201~300위	(12)	0.0	16.7	66.7	8.3	8.3	100.0
	300순위 초과	(20)	5.0	20.0	50.0	25.0	0.0	100.0
기업 소재지	수도권	(25)	8.0	4.0	72.0	16.0	0.0	100.0
	충청권	(13)	0.0	15.4	76.9	7.7	0.0	100.0
	호남권	(11)	0.0	27.3	45.5	18.2	9.1	100.0
	영남권	(18)	5.6	11.1	55.6	27.8	0.0	100.0

<부표-27> 향후 5년 간 민자시장에 대한 전망

		사례수	향후 5년간 민자시장의 전망				합계
		N	향후 5년 동안 침체 예상	단기적 침체 지속, 2~3년 후 회복세 시작	2016년부터 회복세 시작	올해부터 회복세 시작	%
			%	%	%	%	
전체		(67)	34.3	37.3	20.9	7.5	100.0
연 령	50세 미만	(11)	45.5	9.1	36.4	9.1	100.0
	50세 이상 60세 미만	(32)	28.1	46.9	21.9	3.1	100.0
	60세 이상	(24)	37.5	37.5	12.5	12.5	100.0
회사의 관계	창업 경영인	(24)	37.5	37.5	20.8	4.2	100.0
	2, 3세 경영인	(15)	53.3	13.3	26.7	6.7	100.0
	외부 영입 경영인	(10)	30.0	30.0	20.0	20.0	100.0
	자체 승진 경영인	(18)	16.7	61.1	16.7	5.6	100.0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	1~100위	(18)	22.2	61.1	11.1	5.6	100.0
	101~200위	(17)	29.4	29.4	23.5	17.6	100.0
	201~300위	(12)	41.7	16.7	33.3	8.3	100.0
	301~400위	(10)	40.0	30.0	30.0	0.0	100.0
	401~500위	(10)	50.0	40.0	10.0	0.0	100.0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2	1~100위	(18)	22.2	61.1	11.1	5.6	100.0
	101~200위	(17)	29.4	29.4	23.5	17.6	100.0
	201~300위	(12)	41.7	16.7	33.3	8.3	100.0
	300순위 초과	(20)	45.0	35.0	20.0	0.0	100.0
기업 소재지	수도권	(25)	16.0	56.0	20.0	8.0	100.0
	충청권	(13)	23.1	38.5	15.4	23.1	100.0
	호남권	(11)	54.5	18.2	27.3	0.0	100.0
	영남권	(18)	55.6	22.2	22.2	0.0	100.0

<부표-28> 향후 5년 후 민자 건설시장 규모에 대한 예상

		사례수	향후 5년 후 민자 건설시장 규모 예측			합계
		N	현재의 침체된 시장 규모 지속	시장 규모 소폭 회복	MRG 폐지 이전 수준까지 회복	%
			%	%	%	
전체		(67)	41.8	44.8	13.4	100.0
연 령	50세 미만	(11)	45.5	27.3	27.3	100.0
	50세 이상 60세 미만	(32)	37.5	50.0	12.5	100.0
	60세 이상	(24)	45.8	45.8	8.3	100.0
회사의 관계	창업 경영인	(24)	33.3	50.0	16.7	100.0
	2, 3세 경영인	(15)	66.7	13.3	20.0	100.0
	외부 영입 경영인	(10)	50.0	40.0	10.0	100.0
	자체 승진 경영인	(18)	27.8	66.7	5.6	100.0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	1~100위	(18)	38.9	55.6	5.6	100.0
	101~200위	(17)	41.2	29.4	29.4	100.0
	201~300위	(12)	33.3	41.7	25.0	100.0
	301~400위	(10)	50.0	50.0	0.0	100.0
	401~500위	(10)	50.0	50.0	0.0	100.0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2	1~100위	(18)	38.9	55.6	5.6	100.0
	101~200위	(17)	41.2	29.4	29.4	100.0
	201~300위	(12)	33.3	41.7	25.0	100.0
	300순위 초과	(20)	50.0	50.0	0.0	100.0
기업 소재지	수도권	(25)	32.0	52.0	16.0	100.0
	충청권	(13)	38.5	46.2	15.4	100.0
	호남권	(11)	45.5	54.5	0.0	100.0
	영남권	(18)	55.6	27.8	16.7	100.0

### <부표-29> 국내 주택 건설시장의 추이 전망

		사례수	국내 주택 건설시장의 향후 추이 예상				합계
		N	2015년 상반기까지 회복세 지속, 이후 주춤	2015년 연말까지 회복세 지속, 이후 주춤	2016년까지 회복세 지속, 이후 주춤	2017년까지 회복세 지속, 이후 주춤	%
			%	%	%	%	
전체		(67)	9.0	34.3	41.8	14.9	100.0
연 령	50세 미만	(11)	27.3	36.4	27.3	9.1	100.0
	50세 이상 60세 미만	(32)	0.0	37.5	43.8	18.8	100.0
	60세 이상	(24)	12.5	29.2	45.8	12.5	100.0
회사의 관계	창업 경영인	(24)	8.3	45.8	33.3	12.5	100.0
	2, 3세 경영인	(15)	20.0	26.7	46.7	6.7	100.0
	외부 영입 경영인	(10)	0.0	50.0	20.0	30.0	100.0
	자체 승진 경영인	(18)	5.6	16.7	61.1	16.7	100.0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	1~100위	(18)	5.6	38.9	50.0	5.6	100.0
	101~200위	(17)	0.0	35.3	47.1	17.6	100.0
	201~300위	(12)	16.7	25.0	33.3	25.0	100.0
	301~400위	(10)	20.0	30.0	30.0	20.0	100.0
	401~500위	(10)	10.0	40.0	40.0	10.0	100.0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2	1~100위	(18)	5.6	38.9	50.0	5.6	100.0
	101~200위	(17)	0.0	35.3	47.1	17.6	100.0
	201~300위	(12)	16.7	25.0	33.3	25.0	100.0
	300순위 초과	(20)	15.0	35.0	35.0	15.0	100.0
기업 소재지	수도권	(25)	4.0	32.0	52.0	12.0	100.0
	충청권	(13)	15.4	23.1	53.8	7.7	100.0
	호남권	(11)	9.1	45.5	18.2	27.3	100.0
	영남권	(18)	11.1	38.9	33.3	16.7	100.0

**<부표-30> 주택 건설시장의 회복세 지속을 방해하는  
부정적 요인(1순위)**

		사례수	주택 건설시장의 회복세 지속을 방해하는 부정적 요인(1순위)								합계
		N	가계 부채 문제	소득 대비 높은 주택 가격	국내 거시 경제의 회복세 부진, 저성장 지속	정부 주택/ 부동산 정책의 미흡	주택 건설 업계의 신규 주택 공급 (분양) 의 단기적 집중 및 과잉	미분양 주택 적재 (준공 후 미분양 포함)	베이비 부머 은퇴 시작 등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주택 수요 위축	주택보 급률 100% 초과	%
전체		(67)	25.4	13.4	19.4	13.4	9.0	1.5	11.9	6.0	100.0
연 령	50세 미만	(11)	36.4	9.1	9.1	27.3	9.1	0.0	0.0	9.1	100.0
	50세 이상 60세 미만	(32)	18.8	12.5	31.3	15.6	6.3	3.1	12.5	0.0	100.0
	60세 이상	(24)	29.2	16.7	8.3	4.2	12.5	0.0	16.7	12.5	100.0
회사의 관계	창업 경영인	(24)	29.2	16.7	20.8	4.2	16.7	4.2	4.2	4.2	100.0
	2, 3세 경영인	(15)	20.0	26.7	6.7	20.0	6.7	0.0	6.7	13.3	100.0
	외부 영입 경영인	(10)	40.0	10.0	40.0	10.0	0.0	0.0	0.0	0.0	100.0
	자체 승진 경영인	(18)	16.7	0.0	16.7	22.2	5.6	0.0	33.3	5.6	100.0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	1~100위	(18)	22.2	0.0	33.3	5.6	5.6	0.0	33.3	0.0	100.0
	101~200위	(17)	23.5	17.6	11.8	17.6	5.9	0.0	5.9	17.6	100.0
	201~300위	(12)	25.0	25.0	16.7	16.7	16.7	0.0	0.0	0.0	100.0
	301~400위	(10)	30.0	20.0	30.0	10.0	10.0	0.0	0.0	0.0	100.0
	401~500위	(10)	30.0	10.0	0.0	20.0	10.0	10.0	10.0	10.0	100.0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2	1~100위	(18)	22.2	0.0	33.3	5.6	5.6	0.0	33.3	0.0	100.0
	101~200위	(17)	23.5	17.6	11.8	17.6	5.9	0.0	5.9	17.6	100.0
	201~300위	(12)	25.0	25.0	16.7	16.7	16.7	0.0	0.0	0.0	100.0
	300순위 초과	(20)	30.0	15.0	15.0	15.0	10.0	5.0	5.0	5.0	100.0
기업 소재지	수도권	(25)	24.0	12.0	24.0	16.0	4.0	0.0	16.0	4.0	100.0
	충청권	(13)	38.5	15.4	23.1	7.7	0.0	0.0	7.7	7.7	100.0
	호남권	(11)	9.1	9.1	9.1	18.2	36.4	0.0	9.1	9.1	100.0
	영남권	(18)	27.8	16.7	16.7	11.1	5.6	5.6	11.1	5.6	100.0

**<부표-31> 주택 건설시장의 회복세 지속을 방해하는  
부정적 요인(1+2순위)**

		사례수	주택 건설시장의 회복세 지속을 방해하는 부정적 요인(1+2순위)							
		N	가계부채 문제	소득 대비 높은 주택가격	국내 거시경제의 회복세 부진, 저성장 지속	정부 주택/부동산 정책의 미흡	주택건설업계의 신규주택공급(분양)의 단기적 집중 및 과잉	미분양 주택 적체(준공 후 미분양 포함)	베이비부머 은퇴 시작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주택수요 위축	주택보급률 100% 초과
			%	%	%	%	%	%	%	%
전체		(67)	35.8	32.8	32.8	19.4	25.4	10.4	29.9	11.9
연 령	50세 미만	(11)	45.5	18.2	36.4	36.4	27.3	27.3	0.0	9.1
	50세 이상 60세 미만	(32)	28.1	34.4	43.8	21.9	21.9	12.5	31.3	3.1
	60세 이상	(24)	41.7	37.5	16.7	8.3	29.2	0.0	41.7	25.0
회사의 관계	창업 경영인	(24)	41.7	41.7	33.3	8.3	29.2	16.7	25.0	4.2
	2, 3세 경영인	(15)	26.7	33.3	13.3	26.7	33.3	13.3	20.0	33.3
	외부 영입 경영인	(10)	60.0	30.0	70.0	10.0	10.0	0.0	20.0	0.0
	자체 승진 경영인	(18)	22.2	22.2	27.8	33.3	22.2	5.6	50.0	11.1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	1~100위	(18)	44.4	0.0	44.4	11.1	27.8	5.6	61.1	5.6
	101~200위	(17)	41.2	47.1	29.4	29.4	17.6	5.9	5.9	23.5
	201~300위	(12)	25.0	50.0	25.0	16.7	33.3	25.0	16.7	8.3
	301~400위	(10)	30.0	30.0	50.0	20.0	20.0	0.0	40.0	0.0
	401~500위	(10)	30.0	50.0	10.0	20.0	30.0	20.0	20.0	20.0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2	1~100위	(18)	44.4	0.0	44.4	11.1	27.8	5.6	61.1	5.6
	101~200위	(17)	41.2	47.1	29.4	29.4	17.6	5.9	5.9	23.5
	201~300위	(12)	25.0	50.0	25.0	16.7	33.3	25.0	16.7	8.3
	300순위 초과	(20)	30.0	40.0	30.0	20.0	25.0	10.0	30.0	10.0
기업 소재지	수도권	(25)	40.0	24.0	36.0	28.0	24.0	0.0	32.0	16.0
	충청권	(13)	46.2	46.2	46.2	7.7	0.0	15.4	23.1	15.4
	호남권	(11)	18.2	36.4	18.2	18.2	45.5	27.3	18.2	9.1
	영남권	(18)	33.3	33.3	27.8	16.7	33.3	11.1	38.9	5.6

<부표-32>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

		사례수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의 참여 가능성				합계
		N	사업 참여 검토 안함	사업 참여 가능성 낮음	사업 참여 가능성 높음	사업 참여 검토 후 참여 여부 미정	%
			%	%	%	%	
전체		(67)	49.3	17.9	10.4	22.4	100.0
연 령	50세 미만	(11)	54.5	9.1	9.1	27.3	100.0
	50세 이상 60세 미만	(32)	50.0	18.8	6.3	25.0	100.0
	60세 이상	(24)	45.8	20.8	16.7	16.7	100.0
회사의 관계	창업 경영인	(24)	50.0	29.2	0.0	20.8	100.0
	2, 3세 경영인	(15)	60.0	13.3	13.3	13.3	100.0
	외부 영입 경영인	(10)	40.0	10.0	20.0	30.0	100.0
	자체 승진 경영인	(18)	44.4	11.1	16.7	27.8	100.0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	1~100위	(18)	27.8	16.7	22.2	33.3	100.0
	101~200위	(17)	58.8	5.9	5.9	29.4	100.0
	201~300위	(12)	58.3	25.0	8.3	8.3	100.0
	301~400위	(10)	50.0	30.0	10.0	10.0	100.0
	401~500위	(10)	60.0	20.0	0.0	20.0	100.0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2	1~100위	(18)	27.8	16.7	22.2	33.3	100.0
	101~200위	(17)	58.8	5.9	5.9	29.4	100.0
	201~300위	(12)	58.3	25.0	8.3	8.3	100.0
	300순위 초과	(20)	55.0	25.0	5.0	15.0	100.0
기업 소재지	수도권	(25)	40.0	20.0	16.0	24.0	100.0
	충청권	(13)	76.9	0.0	0.0	23.1	100.0
	호남권	(11)	45.5	18.2	9.1	27.3	100.0
	영남권	(18)	44.4	27.8	11.1	16.7	100.0



<부표-33> 향후 유지보수시장의 규모에 대한 예측

		사례수	유지보수 시장의 규모에 대한 중장기적 전망					합계
		N	중장기적으로 현재의 규모 유지 및 정체	중장기적으로 완만한 증가세	중장기적으로 빠른 증가세	중기적으로(5년) 정체, 이후 빠른 증가세	중기적으로(5년) 완만한 증가, 이후 빠른 증가세	%
			%	%	%	%	%	
전체		(67)	7.5	64.2	16.4	7.5	4.5	100.0
연 령	50세 미만	(11)	9.1	63.6	27.3	0.0	0.0	100.0
	50세 이상 60세 미만	(32)	6.3	65.6	15.6	6.3	6.3	100.0
	60세 이상	(24)	8.3	62.5	12.5	12.5	4.2	100.0
회사의 관계	창업 경영인	(24)	12.5	50.0	20.8	8.3	8.3	100.0
	2, 3세 경영인	(15)	13.3	66.7	20.0	0.0	0.0	100.0
	외부 영입 경영인	(10)	0.0	60.0	20.0	20.0	0.0	100.0
	자체 승진 경영인	(18)	0.0	83.3	5.6	5.6	5.6	100.0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	1~100위	(18)	0.0	66.7	11.1	16.7	5.6	100.0
	101~200위	(17)	0.0	64.7	23.5	11.8	0.0	100.0
	201~300위	(12)	8.3	75.0	8.3	0.0	8.3	100.0
	301~400위	(10)	10.0	50.0	30.0	0.0	10.0	100.0
	401~500위	(10)	30.0	60.0	10.0	0.0	0.0	100.0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2	1~100위	(18)	0.0	66.7	11.1	16.7	5.6	100.0
	101~200위	(17)	0.0	64.7	23.5	11.8	0.0	100.0
	201~300위	(12)	8.3	75.0	8.3	0.0	8.3	100.0
	300순위 초과	(20)	20.0	55.0	20.0	0.0	5.0	100.0
기업 소재지	수도권	(25)	0.0	52.0	20.0	20.0	8.0	100.0
	충청권	(13)	7.7	84.6	7.7	0.0	0.0	100.0
	호남권	(11)	9.1	72.7	18.2	0.0	0.0	100.0
	영남권	(18)	16.7	61.1	16.7	0.0	5.6	100.0

<부표-34> 성장 가능성이 높은 건설상품(1순위)

		사례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건설상품(1순위)											합계
			신기술 접목 대규모 토목사 업(초 장대교 량, 대심도 터널 등)	고속 철도 등 최첨단 교통 시설	첨단 건축 사업 (인텔 리전 트 빌딩, 초고 층빌 딩 등)	녹색 에너지 사업( 원자력 / 조력 / 풍력 등)	녹색 빌딩 / 주택 사업	재 개발 / 재 건축 사업	공동 주택 / 오피스 빌딩 리모 델링	개발 사업 (도시 개발, 관광 / 레저 단지 개발 등)	석유 / 천연 가스 관련 화학 플랜트	물 관련 사업 (상하 수도 처리, 담수 화 등)	환경 복원 사업 (청계 천 복원, 오염 토지 복원 등)	
전체		(67)	9.0	13.4	10.4	22.4	3.0	16.4	7.5	10.4	1.5	4.5	1.5	100.0
연 령	50세 미만	(11)	18.2	9.1	0.0	18.2	0.0	18.2	0.0	18.2	0.0	9.1	9.1	100.0
	50세 이상 60세 미만	(32)	6.3	15.6	9.4	31.3	3.1	6.3	9.4	12.5	3.1	3.1	0.0	100.0
	60세 이상	(24)	8.3	12.5	16.7	12.5	4.2	29.2	8.3	4.2	0.0	4.2	0.0	100.0
회사의 관계	창업 경영인	(24)	8.3	8.3	12.5	25.0	8.3	16.7	8.3	8.3	0.0	4.2	0.0	100.0
	2, 3세 경영인	(15)	13.3	20.0	6.7	6.7	0.0	20.0	6.7	6.7	0.0	13.3	6.7	100.0
	외부 영입 경영인	(10)	0.0	0.0	0.0	40.0	0.0	10.0	0.0	40.0	10.0	0.0	0.0	100.0
	자체 승진 경영인	(18)	11.1	22.2	16.7	22.2	0.0	16.7	11.1	0.0	0.0	0.0	0.0	100.0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	1~100위	(18)	5.6	11.1	11.1	27.8	0.0	22.2	5.6	5.6	5.6	5.6	0.0	100.0
	101~200위	(17)	11.8	11.8	5.9	23.5	5.9	23.5	11.8	5.9	0.0	0.0	0.0	100.0
	201~300위	(12)	8.3	25.0	8.3	25.0	0.0	8.3	0.0	16.7	0.0	0.0	8.3	100.0
	301~400위	(10)	0.0	20.0	20.0	0.0	10.0	10.0	20.0	20.0	0.0	0.0	0.0	100.0
	401~500위	(10)	20.0	0.0	10.0	30.0	0.0	10.0	0.0	10.0	0.0	20.0	0.0	100.0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2	1~100위	(18)	5.6	11.1	11.1	27.8	0.0	22.2	5.6	5.6	5.6	5.6	0.0	100.0
	101~200위	(17)	11.8	11.8	5.9	23.5	5.9	23.5	11.8	5.9	0.0	0.0	0.0	100.0
	201~300위	(12)	8.3	25.0	8.3	25.0	0.0	8.3	0.0	16.7	0.0	0.0	8.3	100.0
	300순위 초과	(20)	10.0	10.0	15.0	15.0	5.0	10.0	10.0	15.0	0.0	10.0	0.0	100.0
기업 소재지	수도권	(25)	4.0	8.0	8.0	28.0	8.0	24.0	16.0	4.0	0.0	0.0	0.0	100.0
	충청권	(13)	15.4	23.1	0.0	15.4	0.0	15.4	0.0	23.1	7.7	0.0	0.0	100.0
	호남권	(11)	18.2	18.2	9.1	18.2	0.0	18.2	9.1	0.0	0.0	0.0	9.1	100.0
	영남권	(18)	5.6	11.1	22.2	22.2	0.0	5.6	0.0	16.7	0.0	16.7	0.0	100.0

<부표-35> 성장 가능성이 높은 건설상품(1+2순위)

		사례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건설상품(1+2순위)											
			N	신기술 접목 대규모 토목 사업 (초장 대교량 , 대심 도터널 등)	고속 철도 등 최첨단 교통 시설	첨단 건축 사업 (인텔 리전트 빌딩, 초고층 빌딩 등)	녹색 에너지 사업 (원자 력/조 력/풍 력 등)	녹색 빌딩 / 주택 사업	재개발 / 재건축 사업	공동 주택 / 오피스 빌딩 리모 델링	개발 사업 (도시 개발, 관광/ 레저 단지 개발 등)	석유/ 천연 가스 관련 화학 플랜트	물 관련 사업 (상하 수도 처리, 담수 화 등)	환경 복원 사업 (청계천 복원, 오염 토지 복원 등)
				%	%	%	%	%	%	%	%	%	%	%
전체		(67)	11.9	20.9	16.4	34.3	10.4	37.3	13.4	28.4	1.5	16.4	9.0	
연  령	50세 미만	(11)	18.2	18.2	9.1	18.2	0.0	63.6	0.0	45.5	0.0	9.1	18.2	
	50세 이상 60세 미만	(32)	9.4	21.9	15.6	46.9	15.6	15.6	18.8	25.0	3.1	18.8	9.4	
	60세 이상	(24)	12.5	20.8	20.8	25.0	8.3	54.2	12.5	25.0	0.0	16.7	4.2	
회사의 관계	창업 경영인	(24)	16.7	16.7	12.5	45.8	16.7	37.5	8.3	16.7	0.0	20.8	8.3	
	2, 3세 경영인	(15)	13.3	26.7	13.3	6.7	0.0	53.3	20.0	26.7	0.0	20.0	20.0	
	외부 영입 경영인	(10)	0.0	0.0	10.0	40.0	10.0	30.0	20.0	60.0	10.0	20.0	0.0	
	자체 승진 경영인	(18)	11.1	33.3	27.8	38.9	11.1	27.8	11.1	27.8	0.0	5.6	5.6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	1~100위	(18)	5.6	16.7	22.2	44.4	11.1	33.3	11.1	33.3	5.6	11.1	5.6	
	101~200위	(17)	11.8	29.4	17.6	23.5	5.9	41.2	11.8	35.3	0.0	17.6	5.9	
	201~300위	(12)	16.7	25.0	8.3	41.7	0.0	41.7	0.0	33.3	0.0	16.7	16.7	
	301~400위	(10)	10.0	20.0	20.0	20.0	40.0	40.0	20.0	20.0	0.0	10.0	0.0	
	401~500위	(10)	20.0	10.0	10.0	40.0	0.0	30.0	30.0	10.0	0.0	30.0	20.0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2	1~100위	(18)	5.6	16.7	22.2	44.4	11.1	33.3	11.1	33.3	5.6	11.1	5.6	
	101~200위	(17)	11.8	29.4	17.6	23.5	5.9	41.2	11.8	35.3	0.0	17.6	5.9	
	201~300위	(12)	16.7	25.0	8.3	41.7	0.0	41.7	0.0	33.3	0.0	16.7	16.7	
	300순위 초과	(20)	15.0	15.0	15.0	30.0	20.0	35.0	25.0	15.0	0.0	20.0	10.0	
기업 소재지	수도권	(25)	8.0	8.0	16.0	28.0	24.0	40.0	24.0	36.0	0.0	12.0	4.0	
	충청권	(13)	15.4	38.5	7.7	38.5	0.0	23.1	0.0	46.2	7.7	15.4	7.7	
	호남권	(11)	27.3	45.5	18.2	27.3	0.0	54.5	9.1	0.0	0.0	0.0	18.2	
	영남권	(18)	5.6	11.1	22.2	44.4	5.6	33.3	11.1	22.2	0.0	33.3	11.1	

<부표-36> 성장 가능성이 높은 건설상품(1+2+3순위)

		사례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건설상품(1+2+3순위)											
			N	신기술 접목 대규모 토목 사업 (초장대 교량, 대심도 터널 등)	고속 철도 등 최첨단 교통 시설	첨단 건축 사업 (인텔 리전트 빌딩, 초고층 빌딩 등)	녹색 에너지 사업 (원자 력 /조력/ 풍력 등)	녹색 빌딩 / 주택 사업	재개발 / 재건축 사업	공동 주택 / 오피스 빌딩 리모델 링	개발 사업 (도시 개발, 관광/ 레저 단지 개발 등)	석유/ 천연 가스 관련 화학 플랜트	물 관련 사업 (상하 수도 처리, 담수화 등)	환경 복원 사업( 청계천 복원, 오염 토지 복원 등)
				%	%	%	%	%	%	%	%	%	%	%
전체		(67)	17.9	28.4	23.9	40.3	19.4	47.8	17.9	40.3	6.0	28.4	26.9	
연 령	50세 미만	(11)	27.3	18.2	27.3	27.3	9.1	63.6	9.1	45.5	0.0	36.4	27.3	
	50세 이상 60세 미만	(32)	12.5	31.3	21.9	46.9	28.1	34.4	21.9	40.6	9.4	25.0	28.1	
	60세 이상	(24)	20.8	29.2	25.0	37.5	12.5	58.3	16.7	37.5	4.2	29.2	25.0	
회사의 관계	창업 경영인	(24)	20.8	20.8	16.7	50.0	33.3	50.0	16.7	25.0	0.0	33.3	33.3	
	2, 3세 경영인	(15)	13.3	40.0	26.7	26.7	6.7	53.3	20.0	46.7	0.0	33.3	20.0	
	외부 영입 경영인	(10)	10.0	10.0	20.0	40.0	10.0	50.0	30.0	60.0	10.0	30.0	30.0	
	자체 승진 경영인	(18)	22.2	38.9	33.3	38.9	16.7	38.9	11.1	44.4	16.7	16.7	22.2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	1~100위	(18)	11.1	22.2	27.8	50.0	11.1	44.4	16.7	38.9	22.2	33.3	22.2	
	101~200위	(17)	23.5	41.2	17.6	35.3	23.5	41.2	17.6	52.9	0.0	29.4	17.6	
	201~300위	(12)	25.0	33.3	25.0	41.7	8.3	50.0	0.0	41.7	0.0	25.0	33.3	
	301~400위	(10)	10.0	30.0	20.0	30.0	40.0	70.0	30.0	30.0	0.0	10.0	30.0	
	401~500위	(10)	20.0	10.0	30.0	40.0	20.0	40.0	30.0	30.0	0.0	40.0	40.0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2	1~100위	(18)	11.1	22.2	27.8	50.0	11.1	44.4	16.7	38.9	22.2	33.3	22.2	
	101~200위	(17)	23.5	41.2	17.6	35.3	23.5	41.2	17.6	52.9	0.0	29.4	17.6	
	201~300위	(12)	25.0	33.3	25.0	41.7	8.3	50.0	0.0	41.7	0.0	25.0	33.3	
	300순위 초과	(20)	15.0	20.0	25.0	35.0	30.0	55.0	30.0	30.0	0.0	25.0	35.0	
기업 소재지	수도권	(25)	12.0	24.0	16.0	32.0	36.0	48.0	32.0	48.0	4.0	24.0	24.0	
	충청권	(13)	38.5	38.5	30.8	46.2	0.0	30.8	0.0	46.2	23.1	30.8	7.7	
	호남권	(11)	27.3	45.5	27.3	36.4	0.0	54.5	18.2	27.3	0.0	18.2	45.5	
	영남권	(18)	5.6	16.7	27.8	50.0	22.2	55.6	11.1	33.3	0.0	38.9	33.3	

<부표-37> 해외 건설시장 진출 의향

		사례수	향후 해외 건설시장에 진출할 의향			합계	2014 기준 수주 비중 평균
		N	진출 계획이 없다	진출 계획이 있다	이미 진출하고 있다	%	
			%	%	%		
전체		(67)	71.6	14.9	13.4	100.0	21.66
연 령	50세 미만	(11)	90.9	0.0	9.1	100.0	14.90
	50세 이상 60세 미만	(32)	71.9	15.6	12.5	100.0	6.75
	60세 이상	(24)	62.5	20.8	16.7	100.0	38.25
회사의 관계	창업 경영인	(24)	83.3	8.3	8.3	100.0	6.50
	2, 3세 경영인	(15)	86.7	6.7	6.7	100.0	14.90
	외부 영입 경영인	(10)	40.0	50.0	10.0	100.0	6.00
	자체 승진 경영인	(18)	61.1	11.1	27.8	100.0	32.20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	1~100위	(18)	33.3	33.3	33.3	100.0	27.83
	101~200위	(17)	76.5	11.8	11.8	100.0	11.45
	201~300위	(12)	91.7	8.3	0.0	100.0	.
	301~400위	(10)	80.0	10.0	10.0	100.0	5.00
	401~500위	(10)	100.0	0.0	0.0	100.0	.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2	1~100위	(18)	33.3	33.3	33.3	100.0	27.83
	101~200위	(17)	76.5	11.8	11.8	100.0	11.45
	201~300위	(12)	91.7	8.3	0.0	100.0	.
	300순위 초과	(20)	90.0	5.0	5.0	100.0	5.00
기업 소재지	수도권	(25)	48.0	24.0	28.0	100.0	25.84
	충청권	(13)	76.9	7.7	15.4	100.0	7.00
	호남권	(11)	100.0	0.0	0.0	100.0	.
	영남권	(18)	83.3	16.7	0.0	100.0	.

〈부표-38〉 가장 먼저 진출하려는 국가(1순위)

		사례수	가장 먼저 진출하려는 국가(1+2순위)						합계
		N	중국	동남 아시아	인도 및 중앙 아시아	중동지역	중앙 및 남 아메리카	서유럽	%
			%	%	%	%	%	%	
전체		(11)	9.1	45.5	18.2	9.1	9.1	9.1	100.0
연 령	50세 이상 60세 미만	(6)	0.0	50.0	16.7	16.7	16.7	0.0	100.0
	60세 이상	(5)	20.0	40.0	20.0	0.0	0.0	20.0	100.0
회사의 관계	창업 경영인	(3)	0.0	66.7	33.3	0.0	0.0	0.0	100.0
	2, 3세 경영인	(1)	0.0	0.0	0.0	0.0	0.0	100.0	100.0
	외부 영입 경영인	(5)	0.0	60.0	0.0	20.0	20.0	0.0	100.0
	자체 승진 경영인	(2)	50.0	0.0	50.0	0.0	0.0	0.0	100.0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	1~100위	(6)	0.0	33.3	16.7	16.7	16.7	16.7	100.0
	101~200위	(2)	50.0	50.0	0.0	0.0	0.0	0.0	100.0
	201~300위	(1)	0.0	100.0	0.0	0.0	0.0	0.0	100.0
	301~400위	(1)	0.0	100.0	0.0	0.0	0.0	0.0	100.0
	401~500위	(1)	0.0	0.0	100.0	0.0	0.0	0.0	100.0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2	1~100위	(6)	0.0	33.3	16.7	16.7	16.7	16.7	100.0
	101~200위	(2)	50.0	50.0	0.0	0.0	0.0	0.0	100.0
	201~300위	(1)	0.0	100.0	0.0	0.0	0.0	0.0	100.0
	300순위 초과	(2)	0.0	50.0	50.0	0.0	0.0	0.0	100.0
기업 소재지	수도권	(6)	16.7	50.0	16.7	0.0	16.7	0.0	100.0
	충청권	(1)	0.0	0.0	0.0	100.0	0.0	0.0	100.0
	호남권	(1)	0.0	0.0	100.0	0.0	0.0	0.0	100.0
	영남권	(3)	0.0	66.7	0.0	0.0	0.0	33.3	100.0

<부표-39> 가장 먼저 진출하려는 국가(1+2순위)

		사례수	가장 먼저 진출하려는 국가(1+2순위)								
			N	중국	동남 아시아	인도 및 중앙 아시아	러시아 및 동유럽	중동 지역	아프리 카	중앙 및 남아메 리카	서유럽
				%	%	%	%	%	%	%	%
전체		(11)	18.2	63.6	27.3	9.1	18.2	18.2	18.2	9.1	
연 령	50세 이상 60세 미만	(6)	16.7	66.7	16.7	16.7	33.3	33.3	16.7	0.0	
	60세 이상	(5)	20.0	60.0	40.0	0.0	0.0	0.0	20.0	20.0	
회사의 관계	창업 경영인	(3)	0.0	66.7	33.3	33.3	0.0	0.0	0.0	0.0	
	2, 3세 경영인	(1)	0.0	0.0	0.0	0.0	0.0	0.0	100.0	100.0	
	외부 영입 경영인	(5)	20.0	80.0	0.0	0.0	40.0	40.0	20.0	0.0	
	자체 승진 경영인	(2)	50.0	50.0	100.0	0.0	0.0	0.0	0.0	0.0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	1~100위	(6)	0.0	66.7	16.7	0.0	33.3	33.3	33.3	16.7	
	101~200위	(2)	50.0	50.0	50.0	0.0	0.0	0.0	0.0	0.0	
	201~300위	(1)	100.0	100.0	0.0	0.0	0.0	0.0	0.0	0.0	
	301~400위	(1)	0.0	100.0	0.0	0.0	0.0	0.0	0.0	0.0	
	401~500위	(1)	0.0	0.0	100.0	100.0	0.0	0.0	0.0	0.0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2	1~100위	(6)	0.0	66.7	16.7	0.0	33.3	33.3	33.3	16.7	
	101~200위	(2)	50.0	50.0	50.0	0.0	0.0	0.0	0.0	0.0	
	201~300위	(1)	100.0	100.0	0.0	0.0	0.0	0.0	0.0	0.0	
	300순위 초과	(2)	0.0	50.0	50.0	50.0	0.0	0.0	0.0	0.0	
기업 소재지	수도권	(6)	16.7	83.3	33.3	0.0	16.7	16.7	16.7	0.0	
	충청권	(1)	0.0	0.0	0.0	0.0	100.0	100.0	0.0	0.0	
	호남권	(1)	0.0	0.0	100.0	100.0	0.0	0.0	0.0	0.0	
	영남권	(3)	33.3	66.7	0.0	0.0	0.0	0.0	33.3	33.3	

**<부표-40> 새롭게 개척하려는 해외 시장(1순위)**

		사례수	새롭게 개척하려는 해외시장(1)				합계
		N	동남아시아	인도 및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앙 및 남아메리카	%
			%	%	%	%	
전체		(9)	55.6	22.2	11.1	11.1	100.0
연 령	50세 미만	(1)	0.0	100.0	0.0	0.0	100.0
	50세 이상 60세 미만	(4)	50.0	25.0	25.0	0.0	100.0
	60세 이상	(4)	75.0	0.0	0.0	25.0	100.0
회사의 관계	창업 경영인	(2)	50.0	0.0	50.0	0.0	100.0
	2, 3세 경영인	(1)	0.0	100.0	0.0	0.0	100.0
	외부 영입 경영인	(1)	100.0	0.0	0.0	0.0	100.0
	자체 승진 경영인	(5)	60.0	20.0	0.0	20.0	100.0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	1~100위	(6)	66.7	16.7	0.0	16.7	100.0
	101~200위	(2)	0.0	50.0	50.0	0.0	100.0
	301~400위	(1)	100.0	0.0	0.0	0.0	100.0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2	1~100위	(6)	66.7	16.7	0.0	16.7	100.0
	101~200위	(2)	0.0	50.0	50.0	0.0	100.0
	300순위 초과	(1)	100.0	0.0	0.0	0.0	100.0
기업 소재지	수도권	(7)	57.1	14.3	14.3	14.3	100.0
	충청권	(2)	50.0	50.0	0.0	0.0	100.0



<부표-41> 새롭게 개척하려는 해외 시장(1+2순위)

		사례수	새롭게 개척하려는 해외시장 (1+2순위)					
		N	동남 아시아	인도 및 중앙 아시아	러시아 및 동유럽	중동지역	아프리카	중앙 및 남아메리 카
			%	%	%	%	%	%
전체		(9)	66.7	66.7	22.2	22.2	11.1	11.1
연 령	50세 미만	(1)	0.0	100.0	100.0	0.0	0.0	0.0
	50세 이상 60세 미만	(4)	75.0	75.0	0.0	25.0	25.0	0.0
	60세 이상	(4)	75.0	50.0	25.0	25.0	0.0	25.0
회사의 관계	창업 경영인	(2)	100.0	50.0	0.0	0.0	50.0	0.0
	2, 3세 경영인	(1)	0.0	100.0	100.0	0.0	0.0	0.0
	외부 영입 경영인	(1)	100.0	100.0	0.0	0.0	0.0	0.0
	자체 승진 경영인	(5)	60.0	60.0	20.0	40.0	0.0	20.0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	1~100위	(6)	66.7	66.7	16.7	33.3	0.0	16.7
	101~200위	(2)	50.0	50.0	50.0	0.0	50.0	0.0
	301~400위	(1)	100.0	100.0	0.0	0.0	0.0	0.0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2	1~100위	(6)	66.7	66.7	16.7	33.3	0.0	16.7
	101~200위	(2)	50.0	50.0	50.0	0.0	50.0	0.0
	300순위 초과	(1)	100.0	100.0	0.0	0.0	0.0	0.0
기업 소재지	수도권	(7)	71.4	57.1	28.6	14.3	14.3	14.3
	충청권	(2)	50.0	100.0	0.0	50.0	0.0	0.0

〈부표-42〉 중동 시장의 퇴조 시기에 대한 예상

		사례수	중동시장의 퇴조 시기 예상					합계
		N	1~2년 이내	3년 이내	5년 이내	5~10년 이내	10년 이후	%
			%	%	%	%	%	
전체		(67)	7.5	16.4	29.9	38.8	7.5	100.0
연 령	50세 미만	(11)	9.1	36.4	27.3	18.2	9.1	100.0
	50세 이상 60세 미만	(32)	9.4	9.4	34.4	40.6	6.3	100.0
	60세 이상	(24)	4.2	16.7	25.0	45.8	8.3	100.0
회사의 관 계	창업 경영인	(24)	4.2	4.2	29.2	50.0	12.5	100.0
	2, 3세 경영인	(15)	0.0	46.7	33.3	20.0	0.0	100.0
	외부 영입 경영인	(10)	10.0	0.0	40.0	40.0	10.0	100.0
	자체 승진 경영인	(18)	16.7	16.7	22.2	38.9	5.6	100.0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	1~100위	(18)	5.6	11.1	33.3	44.4	5.6	100.0
	101~200위	(17)	11.8	11.8	29.4	29.4	17.6	100.0
	201~300위	(12)	0.0	41.7	41.7	16.7	0.0	100.0
	301~400위	(10)	20.0	10.0	20.0	40.0	10.0	100.0
	401~500위	(10)	0.0	10.0	20.0	70.0	0.0	100.0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2	1~100위	(18)	5.6	11.1	33.3	44.4	5.6	100.0
	101~200위	(17)	11.8	11.8	29.4	29.4	17.6	100.0
	201~300위	(12)	0.0	41.7	41.7	16.7	0.0	100.0
	300순위 초과	(20)	10.0	10.0	20.0	55.0	5.0	100.0
기업 소재지	수도권	(25)	8.0	4.0	28.0	44.0	16.0	100.0
	충청권	(13)	7.7	30.8	23.1	38.5	0.0	100.0
	호남권	(11)	0.0	9.1	36.4	45.5	9.1	100.0
	영남권	(18)	11.1	27.8	33.3	27.8	0.0	100.0

**<부표-43> 해외 건설시장에 대한 국내 건설기업의  
전략 변화에 대한 생각**

		사례수	해외 건설시장에 대한 국내 건설기업의 전략					합계
		N	수주 및 매출 확대 전략 지속	지역(중동) 및 상품 (플랜트) 편중에서 공중과 지역의 다변화 전략 모색	수주 보다는 수익성 확보 전략으로 방향 전환	도급사업 이외에 다양한 사업 포트 폴리오 구축 (개발사업, EDCF 사업, 제조업과 동반 진출 등)	PM, 엔지니어 링 등의 역량 확보를 통한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 강화	%
			%	%	%	%	%	
전체		(67)	10.4	25.4	40.3	16.4	7.5	100.0
연 령	50세 미만	(11)	27.3	36.4	18.2	18.2	0.0	100.0
	50세 이상 60세 미만	(32)	9.4	21.9	37.5	18.8	12.5	100.0
	60세 이상	(24)	4.2	25.0	54.2	12.5	4.2	100.0
회사의 관 계	창업 경영인	(24)	12.5	20.8	29.2	20.8	16.7	100.0
	2, 3세 경영인	(15)	20.0	20.0	40.0	20.0	0.0	100.0
	외부 영입 경영인	(10)	10.0	40.0	40.0	0.0	10.0	100.0
	자체 승진 경영인	(18)	0.0	27.8	55.6	16.7	0.0	100.0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	1~100위	(18)	0.0	44.4	44.4	5.6	5.6	100.0
	101~200위	(17)	11.8	29.4	29.4	23.5	5.9	100.0
	201~300위	(12)	8.3	8.3	58.3	16.7	8.3	100.0
	301~400위	(10)	30.0	10.0	20.0	30.0	10.0	100.0
	401~500위	(10)	10.0	20.0	50.0	10.0	10.0	100.0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2	1~100위	(18)	0.0	44.4	44.4	5.6	5.6	100.0
	101~200위	(17)	11.8	29.4	29.4	23.5	5.9	100.0
	201~300위	(12)	8.3	8.3	58.3	16.7	8.3	100.0
	300순위 초과	(20)	20.0	15.0	35.0	20.0	10.0	100.0
기업 소재지	수도권	(25)	12.0	32.0	28.0	24.0	4.0	100.0
	충청권	(13)	15.4	15.4	69.2	0.0	0.0	100.0
	호남권	(11)	0.0	27.3	36.4	27.3	9.1	100.0
	영남권	(18)	11.1	22.2	38.9	11.1	16.7	100.0

<부표-44> 해외 시장에서 가장 유망한 상품(1순위)

		사례수	해외 건설시장에서 가장 유망한 상품(1순위)										합계
		N	주택	석유 화학 플랜 트	발전소	철도/ 전철 등	도로/ 교량	공항	항만	신 도시 개발	상업용 시설 (호텔, 오피스 등)	그린 시설	%
			%	%	%	%	%	%	%	%	%	%	
전체		(67)	7.5	25.4	20.9	7.5	11.9	1.5	3.0	7.5	7.5	7.5	100.0
연 령	50세 미만	(11)	9.1	45.5	9.1	0.0	18.2	0.0	0.0	9.1	0.0	9.1	100.0
	50세 이상 60세 미만	(32)	6.3	21.9	15.6	6.3	12.5	3.1	6.3	12.5	6.3	9.4	100.0
	60세 이상	(24)	8.3	20.8	33.3	12.5	8.3	0.0	0.0	0.0	12.5	4.2	100.0
회사의 관 계	창업 경영인	(24)	8.3	20.8	0.0	12.5	16.7	4.2	0.0	12.5	12.5	12.5	100.0
	2, 3세 경영인	(15)	20.0	33.3	20.0	0.0	13.3	0.0	0.0	6.7	0.0	6.7	100.0
	외부 영입 경영인	(10)	0.0	20.0	30.0	20.0	10.0	0.0	10.0	10.0	0.0	0.0	100.0
	자체 승진 경영인	(18)	0.0	27.8	44.4	0.0	5.6	0.0	5.6	0.0	11.1	5.6	100.0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	1~100위	(18)	0.0	33.3	33.3	11.1	11.1	0.0	5.6	5.6	0.0	0.0	100.0
	101~200위	(17)	5.9	29.4	29.4	5.9	5.9	0.0	0.0	0.0	11.8	11.8	100.0
	201~300위	(12)	16.7	33.3	0.0	16.7	8.3	0.0	0.0	8.3	8.3	8.3	100.0
	301~400위	(10)	10.0	10.0	10.0	0.0	10.0	10.0	10.0	10.0	20.0	10.0	100.0
	401~500위	(10)	10.0	10.0	20.0	0.0	30.0	0.0	0.0	20.0	0.0	10.0	100.0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2	1~100위	(18)	0.0	33.3	33.3	11.1	11.1	0.0	5.6	5.6	0.0	0.0	100.0
	101~200위	(17)	5.9	29.4	29.4	5.9	5.9	0.0	0.0	0.0	11.8	11.8	100.0
	201~300위	(12)	16.7	33.3	0.0	16.7	8.3	0.0	0.0	8.3	8.3	8.3	100.0
	300순위 초과	(20)	10.0	10.0	15.0	0.0	20.0	5.0	5.0	15.0	10.0	10.0	100.0
기업 소재지	수도권	(25)	4.0	20.0	32.0	4.0	16.0	4.0	4.0	4.0	8.0	4.0	100.0
	충청권	(13)	0.0	46.2	15.4	0.0	7.7	0.0	0.0	7.7	23.1	0.0	100.0
	호남권	(11)	0.0	0.0	27.3	18.2	9.1	0.0	0.0	9.1	0.0	36.4	100.0
	영남권	(18)	22.2	33.3	5.6	11.1	11.1	0.0	5.6	11.1	0.0	0.0	100.0

<부표-45> 해외 시장에서 가장 유망한 상품(1+2순위)

		사례수	해외 건설시장에서 가장 유망한 상품(1+2순위)											
			N	주택	석유 화학 플랜트	발전소	철도 / 전철 등	도로 / 교량	공항	항만	신 도시 개발	상업용 시설 (호텔, 오피스 등)	그린 시설	물 산 업
전체		(67)	11.9	35.8	31.3	23.9	37.3	3.0	6.0	19.4	11.9	9.0	9.0	
연 령	50세 미만	(11)	9.1	63.6	9.1	18.2	45.5	0.0	9.1	27.3	0.0	9.1	9.1	
	50세 이상 60세 미만	(32)	9.4	28.1	28.1	21.9	34.4	3.1	9.4	21.9	15.6	12.5	12.5	
	60세 이상	(24)	16.7	33.3	45.8	29.2	37.5	4.2	0.0	12.5	12.5	4.2	4.2	
회사의 관 계	창업 경영인	(24)	12.5	25.0	16.7	12.5	54.2	4.2	4.2	25.0	20.8	16.7	8.3	
	2, 3세 경영인	(15)	20.0	40.0	26.7	33.3	26.7	0.0	6.7	26.7	0.0	6.7	13.3	
	외부 영입 경영인	(10)	10.0	50.0	30.0	30.0	30.0	0.0	10.0	20.0	10.0	0.0	10.0	
	자체 승진 경영인	(18)	5.6	38.9	55.6	27.8	27.8	5.6	5.6	5.6	11.1	5.6	5.6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	1~100위	(18)	5.6	50.0	44.4	33.3	33.3	0.0	5.6	11.1	5.6	0.0	11.1	
	101~200위	(17)	11.8	35.3	35.3	23.5	35.3	5.9	0.0	17.6	11.8	11.8	11.8	
	201~300위	(12)	16.7	33.3	16.7	41.7	33.3	0.0	8.3	25.0	8.3	8.3	8.3	
	301~400위	(10)	10.0	20.0	20.0	0.0	50.0	10.0	20.0	20.0	30.0	10.0	0.0	
	401~500위	(10)	20.0	30.0	30.0	10.0	40.0	0.0	0.0	30.0	10.0	20.0	10.0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2	1~100위	(18)	5.6	50.0	44.4	33.3	33.3	0.0	5.6	11.1	5.6	0.0	11.1	
	101~200위	(17)	11.8	35.3	35.3	23.5	35.3	5.9	0.0	17.6	11.8	11.8	11.8	
	201~300위	(12)	16.7	33.3	16.7	41.7	33.3	0.0	8.3	25.0	8.3	8.3	8.3	
	300순위 초과	(20)	15.0	25.0	25.0	5.0	45.0	5.0	10.0	25.0	20.0	15.0	5.0	
기업 소재지	수도권	(25)	12.0	32.0	32.0	28.0	44.0	8.0	8.0	8.0	16.0	4.0	8.0	
	충청권	(13)	0.0	53.8	53.8	15.4	23.1	0.0	7.7	23.1	23.1	0.0	0.0	
	호남권	(11)	0.0	0.0	36.4	27.3	27.3	0.0	0.0	36.4	0.0	36.4	27.3	
	영남권	(18)	27.8	50.0	11.1	22.2	44.4	0.0	5.6	22.2	5.6	5.6	5.6	

<부표-46> 해외 시장에서 가장 유망한 상품(1+2+3순위)

		사례수	해외 건설시장에서 가장 유망한 상품(1+2+3순위)											
			N	주택	석유 화학 플랜트	발 전 소	철도 / 전철 등	도로 / 교량	공항	항만	신도 시 개발	상업용 시설 (호텔, 오피스 등)	그린 시설	물 산 업
전체		(67)	26.9	40.3	34.3	34.3	43.3	6.0	10.4	44.8	16.4	14.9	23.9	
연 령	50세 미만	(11)	18.2	63.6	9.1	18.2	63.6	0.0	9.1	63.6	18.2	18.2	9.1	
	50세 이상 60세 미만	(32)	31.3	31.3	34.4	37.5	34.4	6.3	15.6	40.6	15.6	18.8	28.1	
	60세 이상	(24)	25.0	41.7	45.8	37.5	45.8	8.3	4.2	41.7	16.7	8.3	25.0	
회사의 관계	창업 경영인	(24)	33.3	25.0	16.7	33.3	58.3	4.2	16.7	41.7	25.0	20.8	25.0	
	2, 3세 경영인	(15)	33.3	40.0	26.7	33.3	33.3	6.7	6.7	66.7	6.7	20.0	20.0	
	외부 영입 경영인	(10)	10.0	50.0	50.0	30.0	50.0	0.0	10.0	60.0	10.0	0.0	30.0	
	자체 승진 경영인	(18)	22.2	55.6	55.6	38.9	27.8	11.1	5.6	22.2	16.7	11.1	22.2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	1~100위	(18)	11.1	61.1	55.6	44.4	38.9	5.6	5.6	50.0	5.6	0.0	22.2	
	101~200위	(17)	29.4	41.2	35.3	29.4	47.1	11.8	5.9	29.4	23.5	17.6	29.4	
	201~300위	(12)	25.0	33.3	16.7	50.0	41.7	0.0	8.3	58.3	8.3	16.7	33.3	
	301~400위	(10)	40.0	20.0	20.0	10.0	50.0	10.0	30.0	30.0	40.0	20.0	10.0	
	401~500위	(10)	40.0	30.0	30.0	30.0	40.0	0.0	10.0	60.0	10.0	30.0	20.0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2	1~100위	(18)	11.1	61.1	55.6	44.4	38.9	5.6	5.6	50.0	5.6	0.0	22.2	
	101~200위	(17)	29.4	41.2	35.3	29.4	47.1	11.8	5.9	29.4	23.5	17.6	29.4	
	201~300위	(12)	25.0	33.3	16.7	50.0	41.7	0.0	8.3	58.3	8.3	16.7	33.3	
	300순위 초과	(20)	40.0	25.0	25.0	20.0	45.0	5.0	20.0	45.0	25.0	25.0	15.0	
기업 소재지	수도권	(25)	28.0	36.0	32.0	36.0	52.0	16.0	12.0	28.0	24.0	16.0	20.0	
	충청권	(13)	0.0	69.2	61.5	38.5	23.1	0.0	7.7	61.5	23.1	0.0	15.4	
	호남권	(11)	36.4	0.0	36.4	27.3	36.4	0.0	9.1	45.5	0.0	45.5	45.5	
	영남권	(18)	38.9	50.0	16.7	33.3	50.0	0.0	11.1	55.6	11.1	5.6	22.2	

<부표-47>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할 기술역량(1순위)

		사례수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할 기술역량(1순위)								합계
		N	시공 능력	프로 젝트 기획 및 관리 능력	사업 창출 능력	자금 조달 능력	기술 개발	인력 관리 능력	신속한 해외 정보의 확보	협력 체계의 구축 (현지 화 등)	%
			%	%	%	%	%	%	%	%	
전체		(67)	14.9	49.3	14.9	3.0	3.0	3.0	4.5	7.5	100.0
연 령	50세 미만	(11)	18.2	18.2	18.2	9.1	0.0	0.0	9.1	27.3	100.0
	50세 이상 60세 미만	(32)	9.4	53.1	18.8	3.1	6.3	0.0	3.1	6.3	100.0
	60세 이상	(24)	20.8	58.3	8.3	0.0	0.0	8.3	4.2	0.0	100.0
회사의 관계	창업 경영인	(24)	12.5	45.8	16.7	4.2	4.2	8.3	4.2	4.2	100.0
	2, 3세 경영인	(15)	26.7	40.0	6.7	6.7	0.0	0.0	13.3	6.7	100.0
	외부 영입 경영인	(10)	10.0	60.0	10.0	0.0	0.0	0.0	0.0	20.0	100.0
	자체 승진 경영인	(18)	11.1	55.6	22.2	0.0	5.6	0.0	0.0	5.6	100.0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	1~100위	(18)	5.6	72.2	11.1	0.0	0.0	0.0	5.6	5.6	100.0
	101~200위	(17)	11.8	47.1	5.9	0.0	5.9	5.9	11.8	11.8	100.0
	201~300위	(12)	33.3	33.3	25.0	0.0	0.0	0.0	0.0	8.3	100.0
	301~400위	(10)	30.0	30.0	30.0	10.0	0.0	0.0	0.0	0.0	100.0
	401~500위	(10)	0.0	50.0	10.0	10.0	10.0	10.0	0.0	10.0	100.0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2	1~100위	(18)	5.6	72.2	11.1	0.0	0.0	0.0	5.6	5.6	100.0
	101~200위	(17)	11.8	47.1	5.9	0.0	5.9	5.9	11.8	11.8	100.0
	201~300위	(12)	33.3	33.3	25.0	0.0	0.0	0.0	0.0	8.3	100.0
	300순위 초과	(20)	15.0	40.0	20.0	10.0	5.0	5.0	0.0	5.0	100.0
기업 소재지	수도권	(25)	12.0	64.0	4.0	0.0	4.0	4.0	8.0	4.0	100.0
	충청권	(13)	38.5	30.8	15.4	7.7	0.0	0.0	0.0	7.7	100.0
	호남권	(11)	0.0	54.5	27.3	0.0	0.0	0.0	0.0	18.2	100.0
	영남권	(18)	11.1	38.9	22.2	5.6	5.6	5.6	5.6	5.6	100.0

<부표-48>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할 기술 역량(1+2순위)

		사례수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할 기술역량(1+2순위)											
			N	시공 능력	프로 젝트 기획 및 관리 능력	사업 창출 능력	글로벌 화 능력 (언어/ 문화)	설계 및 구매 능력	자금 조달 능력	기술 개발	인력 관리 능력	신속한 해외정 보의 확보	협력 체계의 구축 (현지 화 등)	M&A 능력
전체		(67)	19.4	61.2	26.9	6.0	9.0	22.4	7.5	9.0	7.5	26.9	3.0	
연 령	50세 미만	(11)	27.3	36.4	27.3	0.0	9.1	45.5	0.0	9.1	9.1	36.4	0.0	
	50세 이상 60세 미만	(32)	15.6	71.9	31.3	9.4	0.0	15.6	15.6	0.0	6.3	25.0	6.3	
	60세 이상	(24)	20.8	58.3	20.8	4.2	20.8	20.8	0.0	20.8	8.3	25.0	0.0	
회사의 관계	창업 경영인	(24)	20.8	50.0	25.0	0.0	4.2	20.8	12.5	16.7	8.3	37.5	4.2	
	2, 3세 경영인	(15)	26.7	60.0	20.0	6.7	6.7	40.0	0.0	13.3	13.3	13.3	0.0	
	외부 영입 경영인	(10)	10.0	80.0	20.0	10.0	0.0	40.0	10.0	0.0	0.0	30.0	0.0	
	자체 승진 경영인	(18)	16.7	66.7	38.9	11.1	22.2	0.0	5.6	0.0	5.6	22.2	5.6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	1~100위	(18)	5.6	83.3	33.3	16.7	11.1	16.7	5.6	0.0	5.6	22.2	0.0	
	101~200위	(17)	23.5	52.9	5.9	5.9	11.8	29.4	5.9	11.8	17.6	23.5	11.8	
	201~300위	(12)	33.3	50.0	41.7	0.0	16.7	16.7	0.0	16.7	0.0	25.0	0.0	
	301~400위	(10)	40.0	30.0	40.0	0.0	0.0	10.0	20.0	10.0	10.0	30.0	0.0	
	401~500위	(10)	0.0	80.0	20.0	0.0	0.0	40.0	10.0	10.0	0.0	40.0	0.0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2	1~100위	(18)	5.6	83.3	33.3	16.7	11.1	16.7	5.6	0.0	5.6	22.2	0.0	
	101~200위	(17)	23.5	52.9	5.9	5.9	11.8	29.4	5.9	11.8	17.6	23.5	11.8	
	201~300위	(12)	33.3	50.0	41.7	0.0	16.7	16.7	0.0	16.7	0.0	25.0	0.0	
	300순위 초과	(20)	20.0	55.0	30.0	0.0	0.0	25.0	15.0	10.0	5.0	35.0	0.0	
기업 소재지	수도권	(25)	16.0	72.0	16.0	8.0	8.0	24.0	8.0	8.0	12.0	24.0	4.0	
	충청권	(13)	38.5	38.5	23.1	0.0	30.8	30.8	15.4	15.4	0.0	7.7	0.0	
	호남권	(11)	9.1	72.7	45.5	9.1	0.0	18.2	0.0	0.0	0.0	36.4	0.0	
	영남권	(18)	16.7	55.6	33.3	5.6	0.0	16.7	5.6	11.1	11.1	38.9	5.6	



<부표-49> 북한 건설시장에 대한 진출 계획

		사례수	북한 건설시장 진출 계획		합계
		N	북한 건설시장에 대한 진출 계획 없음	북한 건설시장 진출을 검토하고 있음	%
			%	%	
전체		(67)	53.7	46.3	100.0
연 령	50세 미만	(11)	81.8	18.2	100.0
	50세 이상 60세 미만	(32)	56.3	43.8	100.0
	60세 이상	(24)	37.5	62.5	100.0
회사의 관계	창업 경영인	(24)	58.3	41.7	100.0
	2, 3세 경영인	(15)	53.3	46.7	100.0
	외부 영입 경영인	(10)	50.0	50.0	100.0
	자체 승진 경영인	(18)	50.0	50.0	100.0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	1~100위	(18)	27.8	72.2	100.0
	101~200위	(17)	70.6	29.4	100.0
	201~300위	(12)	50.0	50.0	100.0
	301~400위	(10)	60.0	40.0	100.0
	401~500위	(10)	70.0	30.0	100.0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2	1~100위	(18)	27.8	72.2	100.0
	101~200위	(17)	70.6	29.4	100.0
	201~300위	(12)	50.0	50.0	100.0
	300순위 초과	(20)	65.0	35.0	100.0
기업 소재지	수도권	(25)	40.0	60.0	100.0
	충청권	(13)	61.5	38.5	100.0
	호남권	(11)	36.4	63.6	100.0
	영남권	(18)	77.8	22.2	100.0

<부표-50> 북한 건설시장 진출시 유망 분야(1순위)

		사례수	북한 건설시장 진출시 유망 분야(1순위)									합계
		N	도로	철도 / 전철	산업 단지 조성	발전소, 송전시설	농업 기반 시설	주택	관광 시설	도시 재개발, 신도시개발	다자간 개발 (북중러 접경 지역)	%
			%	%	%	%	%	%	%	%	%	
전체		(67)	56.7	6.0	6.0	7.5	1.5	7.5	3.0	9.0	3.0	100.0
연 령	50세 미만	(11)	27.3	0.0	9.1	9.1	9.1	18.2	9.1	18.2	0.0	100.0
	50세 이상 60세 미만	(32)	68.8	3.1	9.4	6.3	0.0	6.3	0.0	6.3	0.0	100.0
	60세 이상	(24)	54.2	12.5	0.0	8.3	0.0	4.2	4.2	8.3	8.3	100.0
회사의 관계	창업 경영인	(24)	58.3	0.0	8.3	12.5	0.0	4.2	0.0	12.5	4.2	100.0
	2, 3세 경영인	(15)	46.7	0.0	0.0	0.0	6.7	20.0	6.7	13.3	6.7	100.0
	외부 영입 경영인	(10)	70.0	10.0	10.0	0.0	0.0	0.0	0.0	10.0	0.0	100.0
	자체 승진 경영인	(18)	55.6	16.7	5.6	11.1	0.0	5.6	5.6	0.0	0.0	100.0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	1~100위	(18)	61.1	11.1	0.0	5.6	0.0	0.0	5.6	5.6	11.1	100.0
	101~200위	(17)	52.9	11.8	5.9	11.8	5.9	0.0	0.0	11.8	0.0	100.0
	201~300위	(12)	66.7	0.0	0.0	0.0	0.0	16.7	8.3	8.3	0.0	100.0
	301~400위	(10)	70.0	0.0	10.0	0.0	0.0	10.0	0.0	10.0	0.0	100.0
	401~500위	(10)	30.0	0.0	20.0	20.0	0.0	20.0	0.0	10.0	0.0	100.0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2	1~100위	(18)	61.1	11.1	0.0	5.6	0.0	0.0	5.6	5.6	11.1	100.0
	101~200위	(17)	52.9	11.8	5.9	11.8	5.9	0.0	0.0	11.8	0.0	100.0
	201~300위	(12)	66.7	0.0	0.0	0.0	0.0	16.7	8.3	8.3	0.0	100.0
	300순위 초과	(20)	50.0	0.0	15.0	10.0	0.0	15.0	0.0	10.0	0.0	100.0
기업 소재지	수도권	(25)	64.0	16.0	4.0	4.0	4.0	0.0	0.0	8.0	0.0	100.0
	충청권	(13)	61.5	0.0	7.7	7.7	0.0	0.0	7.7	7.7	7.7	100.0
	호남권	(11)	45.5	0.0	9.1	18.2	0.0	18.2	0.0	9.1	0.0	100.0
	영남권	(18)	50.0	0.0	5.6	5.6	0.0	16.7	5.6	11.1	5.6	100.0

<부표-51> 북한 건설시장 진출시 유망 분야(1+2순위)

		사례수	북한 건설시장에서 가장 유망한 상품												
		N	도로	철도 / 전철	항만	공항	산업 단지 조성	발전 소, 송전 시설	농업 기반 시설	주택	관광 시설	통신 시설	도시 재개 발, 신도 시개 발	다자 간 개발 (북중 러 접경 지역)	남북 접경 지역 개발
			%	%	%	%	%	%	%	%	%	%	%	%	%
전체		(67)	71.6	31.3	4.5	1.5	11.9	20.9	13.4	14.9	3.0	1.5	17.9	3.0	3.0
연 령	50세 미만	(11)	45.5	9.1	0.0	9.1	18.2	27.3	18.2	27.3	9.1	0.0	36.4	0.0	0.0
	50세 이상	(32)	78.1	37.5	3.1	0.0	18.8	12.5	15.6	18.8	0.0	0.0	12.5	0.0	3.1
	60세 미만	(32)	78.1	37.5	3.1	0.0	18.8	12.5	15.6	18.8	0.0	0.0	12.5	0.0	3.1
	60세 이상	(24)	75.0	33.3	8.3	0.0	0.0	29.2	8.3	4.2	4.2	4.2	16.7	8.3	4.2
회사의 관계	창업 경영인	(24)	75.0	16.7	8.3	0.0	8.3	16.7	12.5	20.8	0.0	4.2	25.0	4.2	4.2
	2, 3세 경영인	(15)	66.7	20.0	0.0	6.7	6.7	20.0	20.0	20.0	6.7	0.0	20.0	6.7	6.7
	외부 영입 경영인	(10)	80.0	50.0	0.0	0.0	10.0	10.0	20.0	10.0	0.0	0.0	20.0	0.0	0.0
	자체 승진 경영인	(18)	66.7	50.0	5.6	0.0	22.2	33.3	5.6	5.6	5.6	0.0	5.6	0.0	0.0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	1~100위	(18)	72.2	50.0	11.1	0.0	0.0	22.2	5.6	0.0	5.6	0.0	16.7	11.1	5.6
	101~200위	(17)	64.7	35.3	0.0	0.0	17.6	35.3	11.8	5.9	0.0	5.9	17.6	0.0	0.0
	201~300위	(12)	66.7	25.0	0.0	8.3	0.0	16.7	25.0	25.0	8.3	0.0	25.0	0.0	0.0
	301~400위	(10)	80.0	10.0	0.0	0.0	30.0	0.0	20.0	30.0	0.0	0.0	20.0	0.0	10.0
	401~500위	(10)	80.0	20.0	10.0	0.0	20.0	20.0	10.0	30.0	0.0	0.0	10.0	0.0	0.0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2	1~100위	(18)	72.2	50.0	11.1	0.0	0.0	22.2	5.6	0.0	5.6	0.0	16.7	11.1	5.6
	101~200위	(17)	64.7	35.3	0.0	0.0	17.6	35.3	11.8	5.9	0.0	5.9	17.6	0.0	0.0
	201~300위	(12)	66.7	25.0	0.0	8.3	0.0	16.7	25.0	25.0	8.3	0.0	25.0	0.0	0.0
	300순위 초과	(20)	80.0	15.0	5.0	0.0	25.0	10.0	15.0	30.0	0.0	0.0	15.0	0.0	5.0
기업 소재지	수도권	(25)	76.0	48.0	4.0	0.0	12.0	16.0	12.0	4.0	0.0	4.0	16.0	0.0	4.0
	충청권	(13)	69.2	30.8	0.0	7.7	7.7	30.8	7.7	23.1	7.7	0.0	7.7	7.7	0.0
	호남권	(11)	63.6	18.2	9.1	0.0	18.2	36.4	9.1	18.2	0.0	0.0	27.3	0.0	0.0
	영남권	(18)	72.2	16.7	5.6	0.0	11.1	11.1	22.2	22.2	5.6	0.0	22.2	5.6	5.6

<부표-52> 북한 건설시장 진출시 유망 분야(1+2+3순위)

		사례수	북한 건설시장에서 가장 유망한 상품(1+2+3순위)													
			N	도로	철도 / 전철	항만	공항	산업 단지 조성	발전 소, 송전 시설	농업 기반 시설	주택	관광 시설	통신 시설	도시 재개 발, 신도 시개 발	다자 간 개발 (북중 러 접경 지역)	남북 접경 지역 개발
전체		(67)	79.1	38.8	11.9	1.5	29.9	34.3	13.4	28.4	10.4	3.0	31.3	7.5	7.5	
연 령	50세 미만	(11)	45.5	9.1	0.0	9.1	54.5	54.5	18.2	27.3	18.2	0.0	63.6	0.0	0.0	
	50세 이상 60세 미만	(32)	81.3	43.8	9.4	0.0	37.5	21.9	15.6	34.4	12.5	3.1	18.8	9.4	12.5	
	60세 이상	(24)	91.7	45.8	20.8	0.0	8.3	41.7	8.3	20.8	4.2	4.2	33.3	8.3	4.2	
회사의 관계	창업 경영인	(24)	83.3	33.3	8.3	0.0	29.2	20.8	12.5	37.5	4.2	4.2	37.5	4.2	16.7	
	2, 3세 경영인	(15)	66.7	20.0	6.7	6.7	13.3	53.3	20.0	26.7	20.0	0.0	46.7	13.3	6.7	
	외부 영입 경영인	(10)	80.0	50.0	20.0	0.0	40.0	20.0	20.0	20.0	10.0	0.0	20.0	20.0	0.0	
	자체 승진 경영인	(18)	83.3	55.6	16.7	0.0	38.9	44.4	5.6	22.2	11.1	5.6	16.7	0.0	0.0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	1~100위	(18)	88.9	61.1	27.8	0.0	11.1	33.3	5.6	16.7	11.1	0.0	22.2	16.7	5.6	
	101~200위	(17)	70.6	41.2	5.9	0.0	41.2	47.1	11.8	17.6	5.9	5.9	35.3	5.9	0.0	
	201~300위	(12)	66.7	25.0	8.3	8.3	33.3	41.7	25.0	25.0	16.7	0.0	50.0	0.0	0.0	
	301~400위	(10)	80.0	10.0	0.0	0.0	50.0	10.0	20.0	60.0	10.0	10.0	30.0	0.0	20.0	
	401~500위	(10)	90.0	40.0	10.0	0.0	20.0	30.0	10.0	40.0	10.0	0.0	20.0	10.0	20.0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2	1~100위	(18)	88.9	61.1	27.8	0.0	11.1	33.3	5.6	16.7	11.1	0.0	22.2	16.7	5.6	
	101~200위	(17)	70.6	41.2	5.9	0.0	41.2	47.1	11.8	17.6	5.9	5.9	35.3	5.9	0.0	
	201~300위	(12)	66.7	25.0	8.3	8.3	33.3	41.7	25.0	25.0	16.7	0.0	50.0	0.0	0.0	
	300순위 초과	(20)	85.0	25.0	5.0	0.0	35.0	20.0	15.0	50.0	10.0	5.0	25.0	5.0	20.0	
기업 소재지	수도권	(25)	84.0	56.0	12.0	0.0	20.0	40.0	12.0	20.0	4.0	4.0	24.0	8.0	8.0	
	충청권	(13)	76.9	38.5	7.7	7.7	46.2	38.5	7.7	30.8	15.4	0.0	23.1	7.7	0.0	
	호남권	(11)	72.7	27.3	18.2	0.0	36.4	45.5	9.1	45.5	9.1	0.0	36.4	0.0	0.0	
	영남권	(18)	77.8	22.2	11.1	0.0	27.8	16.7	22.2	27.8	16.7	5.6	44.4	11.1	16.7	

<부표-53> 북한 건설시장 진출시 중요 정부 지원 분야(1순위)

		사례수	북한 건설시장 진출시 중요 정부 지원 분야(1순위)						합계
		N	사업 위험성 해소를 위한 지원 (건설비의 회수 및 건설 인허가 등)	사업 (경제)성에 대한 정부의 지원 (경비 중 일부 지원, 보증 등)	북한내 건설 수주 정보의 제공	북한 건설 근로자의 확보 및 활용에 대한 지원	원활한 건설활동 수행을 위한 3통 (통행, 통관, 통신) 문제 해결	민간 투자사업 추진시 북한 당국과의 협상 및 협약사항 이행에 관한 지원	%
			%	%	%	%	%	%	
전체		(67)	65.7	9.0	3.0	3.0	14.9	4.5	100.0
연 령	50세 미만	(11)	45.5	18.2	0.0	9.1	18.2	9.1	100.0
	50세 이상								
	60세 미만	(32)	65.6	12.5	3.1	3.1	12.5	3.1	100.0
	60세 이상	(24)	75.0	0.0	4.2	0.0	16.7	4.2	100.0
회사의 관계	창업 경영인	(24)	66.7	8.3	4.2	0.0	16.7	4.2	100.0
	2, 3세 경영인	(15)	73.3	6.7	0.0	0.0	6.7	13.3	100.0
	외부 영입 경영인	(10)	60.0	10.0	10.0	10.0	10.0	0.0	100.0
	자체 승진 경영인	(18)	61.1	11.1	0.0	5.6	22.2	0.0	100.0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	1~100위	(18)	77.8	5.6	5.6	0.0	5.6	5.6	100.0
	101~200위	(17)	41.2	11.8	0.0	5.9	35.3	5.9	100.0
	201~300위	(12)	83.3	8.3	0.0	0.0	8.3	0.0	100.0
	301~400위	(10)	50.0	10.0	0.0	10.0	20.0	10.0	100.0
	401~500위	(10)	80.0	10.0	10.0	0.0	0.0	0.0	100.0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2	1~100위	(18)	77.8	5.6	5.6	0.0	5.6	5.6	100.0
	101~200위	(17)	41.2	11.8	0.0	5.9	35.3	5.9	100.0
	201~300위	(12)	83.3	8.3	0.0	0.0	8.3	0.0	100.0
	300순위 초과	(20)	65.0	10.0	5.0	5.0	10.0	5.0	100.0
기업 소재지	수도권	(25)	56.0	12.0	4.0	4.0	20.0	4.0	100.0
	충청권	(13)	69.2	7.7	0.0	0.0	15.4	7.7	100.0
	호남권	(11)	54.5	9.1	9.1	9.1	18.2	0.0	100.0
	영남권	(18)	83.3	5.6	0.0	0.0	5.6	5.6	100.0

<부표-54> 북한 건설시장 진출시 중요 정부 지원 분야(1+2순위)

		사례수	북한 건설시장 진출시 중요 정부 지원 분야(1+2순위)							합계	
			N	사업 위험성 해소를 위한 지원 (건설비의 회수 및 건설 인허가 등)	사업 (경제)성에 대한 정부의 지원 (경비 중 일부 지원, 보증 등)	북한내 건설 수주 정보의 제공	북한 건설 근로자의 확보 및 활용에 대한 지원	원활한 건설 활동 수행을 위한 3통 (통행, 통관, 통신) 문제 해결	민간 투자사업 추진시 북한 당국과의 협상 및 협약 사항 이행에 관한 지원		다자간 협력 사업 추진시 정부의 외교적 지원
전체		(67)	73.1	40.3	7.5	6.0	41.8	26.9	3.0	100.0	
연 령	50세 미만	(11)	45.5	54.5	0.0	9.1	45.5	36.4	9.1	100.0	
	50세 이상 60세 미만	(32)	68.8	53.1	6.3	6.3	34.4	31.3	0.0	100.0	
	60세 이상	(24)	91.7	16.7	12.5	4.2	50.0	16.7	4.2	100.0	
회사의 관계	창업 경영인	(24)	75.0	33.3	12.5	4.2	45.8	25.0	0.0	100.0	
	2, 3세 경영인	(15)	73.3	46.7	6.7	0.0	33.3	26.7	13.3	100.0	
	외부 영입 경영인	(10)	70.0	50.0	10.0	10.0	30.0	30.0	0.0	100.0	
	자체 승진 경영인	(18)	72.2	38.9	0.0	11.1	50.0	27.8	0.0	100.0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	1~100위	(18)	83.3	44.4	5.6	5.6	27.8	27.8	5.6	100.0	
	101~200위	(17)	58.8	47.1	5.9	5.9	52.9	23.5	0.0	100.0	
	201~300위	(12)	83.3	33.3	0.0	0.0	58.3	16.7	8.3	100.0	
	301~400위	(10)	60.0	30.0	10.0	10.0	40.0	50.0	0.0	100.0	
	401~500위	(10)	80.0	40.0	20.0	10.0	30.0	20.0	0.0	100.0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2	1~100위	(18)	83.3	44.4	5.6	5.6	27.8	27.8	5.6	100.0	
	101~200위	(17)	58.8	47.1	5.9	5.9	52.9	23.5	0.0	100.0	
	201~300위	(12)	83.3	33.3	0.0	0.0	58.3	16.7	8.3	100.0	
	300순위 초과	(20)	70.0	35.0	15.0	10.0	35.0	35.0	0.0	100.0	
기업 소재지	수도권	(25)	72.0	44.0	4.0	8.0	32.0	36.0	0.0	100.0	
	충청권	(13)	76.9	30.8	15.4	0.0	53.8	15.4	7.7	100.0	
	호남권	(11)	54.5	45.5	18.2	18.2	36.4	27.3	0.0	100.0	
	영남권	(18)	83.3	38.9	0.0	0.0	50.0	22.2	5.6	100.0	

## <부록 2> 설문조사서

## 건설 CEO, 건설 경영 및 건설 이슈 변화와 미래 성장 동력 조사

안녕하세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주)다빈치리서치코리아와 공동으로 '건설 CEO, 건설 경영 및 건설 이슈 변화와 미래 성장 동력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건설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한건설협회와 건설공제조합이 출연하여 설립한 연구기관이며, 건설 관련 제도, 정책, 경제·경영, 기술 등의 연구 사업, 건설 관련 정보 서비스 제공, 건설 관련 교육 및 연수 사업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연구원에서는 깊이 있는 현안 분석과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CERIK저널」을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CERIK저널」에서는 이번에 건설산업의 이슈 변화와 건설업 현안,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건설업 CEO들의 의식과 인식도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지난 2010년 실시하였던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지난 15년 간 건설 이슈와 기업 경영 방향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지금의 건설 현안과 미래 건설업 성장 동력에 대한 건설업 CEO들의 고충과 비전을 파악함으로써 건설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수립 방안에 일조하기 위하여 기획된 조사이며, 조사 결과는 월간지 「CERIK저널」 4월호의 특집 기획 기사와 연구보고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잠시 시간을 내시어 건설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한 솔직한 고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사의 일익 번창과 귀하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김홍수』

2015. 02.

	<b>조사 수행</b>	<b>(주)다빈치리서치코리아</b>
	서울시 서초구 반포1동 704-18번지 영보빌딩 2층 전화 : (02)6011-8866 // 팩스 : (02)518-0504 담당 연구원 : 나윤주 대리 // 실사 연구원 : 신선미 과장	

소 속 기 관		소 속 부 서	
성 명		직 급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이 메 일 주 소	@		
소 재 지 주 소			

● **건설 CEO의 경영 스타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

문1] 귀하께서 CEO 취임 후 라이프 스타일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① 업무량 및 업무시간 증가 | ② 업무 상대 혹은 각종 모임의 증가 |
| ③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  | ④ 음주·흡연 증가           |
| ⑤ 자기 계발 시간의 증가  | ⑥ 경제·금융에 대한 관심 증대    |
| ⑦ 기타( )         |                      |

문2] 귀하께서 건설 CEO로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때는 언제입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해외 수주 시설물을 적기 완공했을 때
- ② 완공한 시설물을 일반 대중이 활용했을 때
- ③ 완공 시설물의 입주자들로부터 감사와 격려를 받았을 때
- ④ 건설 CEO로서 훈·포장을 수상했을 때
- ⑤ 흑자 시현으로 회사 규모가 확대되었을 때
- ⑥ 기타( )

문3] 다음은 건설 CEO의 자질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건설 CEO로서 가장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중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 |                   |                 |
|-------------------|-----------------|
| ①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 능력 | ② 리더십           |
| ③ 건설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  | ④ 강한 추진력        |
| ⑤ 문제를 해결하는 협상 능력  | ⑥ 수주 능력         |
| ⑦ 현장 경험           | ⑧ 직원들에 대한 배려 의식 |
| ⑨ 정보화 마인드         | ⑩ 국제적 감각        |
| ⑪ 기타( )           |                 |



문4] 다음 중 2015년 귀사의 경영 방침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① 개발 사업 등 투자 사업 자제    | ② 자금 관리의 강화                   |
| ③ 지속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추진 | ④ 핵심 부서 위주의 조직 개편 및 인력<br>슬림화 |
| ⑤ 현장 관리 역량의 강화        | ⑥ 기타( )                       |

문5] 귀하께서는 향후 5년간 건설업체가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① 공격적 수주          | ②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 |
| ③ 기술 개발           | ④ 조직 슬림화        |
| ⑤ 생산성 향상을 통한 원가절감 | ⑥ 해외 시장 진출      |
| ⑦ 우수한 인재의 확보      | ⑧ 기타( )         |

문6] 귀사는 향후 사업 및 조직의 구조조정 계획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 문6-1로

② 없다 ➡ 문7로

문6-1] (문6에 ① 응답자만) 계획이 있다면, 다음 중 확대, 축소, 통폐합 및 폐지 또는 분리 (spin-off)하고자 하는 부서는 어디 어디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확대하고자 하는 부서	( )
• 축소하고자 하는 부서	( )
• 통폐합하고자 하는 부서	( )
• 폐지 또는 분리하고자 하는 부서	( )

- |              |            |
|--------------|------------|
| ① 주택사업 부서    | ② 공공사업 부서  |
| ③ 개발사업 부서    | ④ 플랜트사업 부서 |
| ⑤ 비주거건축사업 부서 | ⑥ 해외사업 부서  |
| ⑦ 민자사업 부서    | ⑧ 기타( )    |

문7] 귀하께서는 향후 5년간 건설산업을 주도할 건설기술 혁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첨단시설구축기술(초고층시설, 초장대교량 등)
- ② 신공법 및 생산 프로세스 기술
- ③ 녹색건설기술
- ④ 기계화, 자동화, 모듈화 등 기술
- ⑤ 6T기술이 적용된 첨단자재기술
- ⑥ BIM, PMIS 등 첨단 정보화 기술
- ⑦ 안전, 보건 등 기술
- ⑧기타( )

문8] 귀하께서는 건설기술 개발 시 장애가 되는 요인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실패에 대한 부담
- ② R&D 투자에 대한 사내 인식 저조
- ③ 산업기준과 제도의 문제
- ④ 장기간에 걸친 투자 회수 부담
- ⑤ 낮은 ROI
- ⑥ 기술개발을 반영하지 못하는 입찰방식
- ⑦ 변화에 대한 조직 내 두려움
- ⑧ 고객(발주자, 투자자 등)의 인식 부족
- ⑨ 기타 ( )

**● 건설산업 이슈에 관한 질문입니다. ●**

문9] 귀하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시행된 건설산업의 각 분야별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해당되는 부문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구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입낙찰 관련 정책	①	②	③	④	⑤
적정공사비 확보 관련 정책	①	②	③	④	⑤
산업 구조조정 관련 정책	①	②	③	④	⑤
주택/부동산 관련 정책	①	②	③	④	⑤

문10]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건설업계가 안고 있는 최대 현안이슈 (문제점 또는 해결해야 하는 과제 등)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 ① 종합심사제 등 입찰체계의 합리적 개선
- ② 대중소·지역 중소기업 보호
- ③ 건설업체 부도 방지 및 경영난 해소
- ④ 부실·부적격업체의 건설시장 퇴출
- ⑤ 주계약자공동도급, 지역의무공동도급 등 개선
- ⑥ 건설업영역 제한 폐지(시공·설계 겸업 금지, 전기·통신 분리 발주 등)
- ⑦ 분양가상한제 등 주택·부동산 관련 잔존 규제 완화
- ⑧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의 지속
- ⑨ 민간투자제도(BTO, BTL 등) 개선
- ⑩ 해외건설시장 진출
- ⑪ 녹색·저탄소 분야 건설시장 개척
- ⑫ 건설이미지 개선 및 윤리경영 실천
- ⑬ 유능한 건설 기술 및 기능 인력의 양성 및 확보
- ⑭ 기타( )

문11] 정부가 건설산업의 장기 비전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향후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 ①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전환
- ② 민간의 창의성이 확보될 수 있는 건설 산업 방향 모색
- ③ 인적자원 육성 및 지식 공유에 초점을 둔 산업 혁신 유도
- ④ R&D 투자 확대 및 연구와 혁신의 연계 강조
- ⑤ 건전하고 일방의 손실을 강요하지 않는 사업 환경 조성  
(제값 주고 제값 받기 등)
- ⑥ 양극화 해소 및 상생발전: 대/중/소 상생협력 및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 ⑦ 녹색건설, 초장대교량 등 성장 가능성 높은 건설 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
- ⑧ 기타( )

**● 건설시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

문12] 귀하께서는 국내 건설시장의 규모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①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다
- ② 현재 시장규모를 유지하며 정체되어 있을 것이다
- ③ 지속적으로 시장규모가 축소될 것이다
- ④ 중기적으로(약 5년 동안) 현재 시장규모를 유지한 이후 장기적으로 시장규모가 축소될 것이다
- ⑤ 중기적으로(약 5년 동안) 현재 시장규모를 유지한 이후 장기적으로 시장규모가 다시 확대될 것이다

문13] 국내 건설수주의 2014년 수주액이 전년대비 17% 증가하여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 ① 2015년까지 회복세 지속, 이후 회복세 주춤
- ② 2016년까지 회복세 지속, 이후 회복세 주춤
- ③ 2017년까지 회복세 지속, 이후 회복세 주춤
- ④ 2018년까지 회복세 지속, 이후 회복세 주춤
- ⑤ 2019년까지 회복세 지속, 이후 회복세 주춤

문14] 국내 건설수주는 2007년 127.9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향후 국내 건설수주가 127.9조원을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다시 경신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향후 127.9조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 ② 향후 127.9조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향후 127.9조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⑤ 향후 127.9조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문15] 2015년 공공 건설시장의 경우 정부 SOC 예산 증가 및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하께서는 중장기적으로 향후 공공 건설시장의 규모가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① 향후 지속적으로 공공 시장 규모가 축소될 것이다
- ② 현재의 공공 시장 규모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다
- ③ 단기적으로 공공 시장 규모가 유지되고, 차기 정부로 교체된 이후 시장 규모가 축소될 것이다
- ④ 단기적으로 공공 시장 규모가 축소되고, 차기 정부로 교체된 이후 새롭게 증가할 것이다
- ⑤ 기타( )

문16] 국내 건설시장에서 공공 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작년 수주액 기준으로 약 35%입니다. 귀하께서는 향후 5년 후 국내 건설시장에서 공공 시장의 비중이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                 |                 |
|-----------------|-----------------|
| ① 약 50% 수준으로 확대 | ② 약 40% 수준으로 확대 |
| ③ 약 30% 수준으로 유지 | ④ 약 20% 수준으로 축소 |
| ⑤ 약 10% 수준으로 축소 |                 |

문17] 최근 민자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조금씩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민자시장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① 향후 5년 동안은 침체가 지속될 것이다
- ② 단기적으로 침체가 지속되고, 2, 3년 후 회복세가 시작될 것이다
- ③ 2016년부터 회복세가 시작될 것이다
- ④ 올해부터 회복세가 시작될 것이다

문18] 향후 5년 후 민자 건설시장의 규모는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① 현재의 침체된 시장 규모가 지속 유지될 것이다
- ② 시장 규모가 소폭 회복되는데 그칠 것이다.
- ③ MRG(최소운영수입보장) 폐지 이전 수준까지 시장 규모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 ④ MRG(최소운영수입보장) 폐지 이전 수준을 넘어서 역대 최고 수준의 시장 규모로 회복될 것이다

문19]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주택 건설시장이 향후 어떤 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① 2015년 상반기까지 회복세 지속, 이후 회복세 주춤
- ② 2015년 연말까지 회복세 지속, 이후 회복세 주춤
- ③ 2016년까지 회복세 지속, 이후 회복세 주춤
- ④ 2017년까지 회복세 지속, 이후 회복세 주춤
- ⑤ 2018년까지 회복세 지속, 이후 회복세 주춤

문20] 향후 주택 건설시장의 지속적인 회복세를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되는 요인부터 순서대로 2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 ① 가계부채 문제
- ② 소득 대비 높은 주택가격
- ③ 국내 거시경제의 회복세 부진, 저성장 지속
- ④ 정부 주택/부동산 정책의 미흡
- ⑤ 주택건설업계의 신규 주택공급(분양)의 단기적 집중 및 과잉
- ⑥ 미분양 주택 적체(준공 후 미분양 포함)
- ⑦ 베이비부머 은퇴 시작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주택수요 위축
- ⑧ 주택보급률 100% 초과
- ⑨ 기타( )

문21] 귀하의 회사는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형 임대사업(뉴스테이)에 참여  
하실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입니까?

- ① 사업 참여를 검토해 본 적이 없다.
- ② 사업 참여를 검토해 본 결과,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다.
- ③ 사업 참여를 검토해 본 결과,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 ④ 사업에 참여하기로 이미 결정하고, 사업 참여를 위해 현재 준비 중이다.
- ⑤ 사업 참여를 검토해 보았으나,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해 아직은 잘 모르겠다.

문22] 최근 유지보수 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귀하께서는 향후 중장기적으로  
유지보수 시장의 규모에 대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① 중장기적으로 현재 시장규모를 유지하며 정체되어 있을 것이다
- ② 중장기적으로 시장규모가 완만하게(천천히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 ③ 중장기적으로 시장규모가 빠르게 확대될 것이다
- ④ 중기적으로는(향후 5년 동안) 시장규모가 정체되어 있다가, 장기적으로(2020년 이  
후) 빠르게 확대될 것이다
- ⑤ 중기적으로는(향후 5년 동안) 시장 규모가 완만하게 확대되다가, 장기적으로(2020년  
이후) 빠르게 확대될 것이다

문23] 귀하께서는 다음의 건설상품 중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시는 상품  
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3순위 : \_\_\_\_\_

- ① 신기술 접목 대규모 토목사업(초장대교량, 대심도터널 등)
- ② 고속철도 등 최첨단 교통시설
- ③ 첨단 건축사업(인텔리전트빌딩, 초고층빌딩 등)
- ④ 녹색 에너지 사업(원자력/조력/풍력 등)
- ⑤ 녹색 빌딩/주택사업
- ⑥ 재개발·재건축 사업
- ⑦ 공동주택/오피스빌딩 리모델링
- ⑧ 개발사업(도심개발, 관광/레저단지 개발 등)

- ⑨ 석유/천연가스 관련 화학 플랜트
- ⑩ 물 관련 사업(상하수도처리, 담수화 등)
- ⑪ 환경복원사업(청계천 복원, 오염 토지 복원 등)
- ⑫ 기타( )

**● 해외건설시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

문24] 귀사는 앞으로 해외 건설시장에 대한 진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① 진출 계획이 없다
- ② 진출 계획이 있다 ☞ 문25로 가시오
- ③ 현재 진출해 있다 (2014년 기준 수주 비중의 \_\_\_\_\_ %) ☞ 문26으로 가시오

문25] (문24에 ②응답자만) 귀사에서 가장 먼저 진출하려는 해외 시장은 어디 어디입니까?  
진출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 |              |         |              |
|--------------|---------|--------------|
| ① 중국         | ② 동남아시아 | ③ 인도 및 중앙아시아 |
| ④ 러시아 및 동유럽  | ⑤ 중동지역  | ⑥ 아프리카       |
| ⑦ 중앙 및 남아메리카 | ⑧ 북아메리카 | ⑨ 서유럽        |
| ⑩ 기타 ( )     |         |              |

문26] (문24에 ③응답자만) 귀사에서 현재 진출하고 있는 해외 시장 외에 새롭게 개척하려는 해외 시장은 어디 어디입니까?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 |             |         |              |
|-------------|---------|--------------|
| ① 중국        | ② 동남아시아 | ③ 인도 및 중앙아시아 |
| ④ 러시아 및 동유럽 | ⑤ 중동지역  | ⑥ 아프리카       |



- ⑦ 중앙 및 남아메리카      ⑧ 북아메리카      ⑨ 서유럽  
⑩ 기타 ( )

문27] 귀하께서는 현재 해외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중동시장의 퇴조 시기를 언제쯤으로 예상 하십니까?

- ① 1~2년 이내                      ② 3년 이내                      ③ 5년 이내  
④ 5~10년 이내                      ⑤ 10년 이후

문28] 최근 해외 건설 시장에 유가, 환율, 리스크 등으로 인한 사업 환경 변화의 영향력이 매우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건설기업 역시 고전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향후 5년간 해외 건설 시장에 대한 국내 건설기업의 전략이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수주 및 매출 확대 전략 지속
- ② 지역(중동) 및 상품(플랜트) 편중에서 공종과 지역의 다변화 전략 모색
- ③ 수주보다는 수익성 확보 전략으로 방향 전환
- ④ 도급사업이외에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개발사업, EDCF 사업, 제조업과 동반 진출 등)
- ⑤ PM, 엔지니어링 등의 역량 확보를 통한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 강화
- ⑥ 기타 ( )

문29] 귀하께서는 다음 중 해외 건설시장에서 가장 유망한 건설 상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3순위 : \_\_\_\_\_

- ① 주택                      ② 석유화학 플랜트                      ③ 발전소  
④ 철도/전철 등          ⑤ 도로/교량                      ⑥ 공항  
⑦ 항만                      ⑧ 신도시 개발                      ⑨ 상업용 시설  
   (호텔, 오피스 등)  
⑩ 그린 시설                ⑪ 물산업                      ⑫ 기타( )

문30] 귀하께서는 향후 10년간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어떠한 기술역량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 |                |                     |
|----------------|---------------------|
| ① 시공능력         | ② 프로젝트 기획 및 관리 능력   |
| ③ 사업 창출 능력     | ④ 글로벌화 능력(언어/문화)    |
| ⑤ 설계 및 구매 능력   | ⑥ 자금조달 능력           |
| ⑦ 기술개발         | ⑧ 인력관리 능력           |
| ⑨ 신속한 해외정보의 확보 | ⑩ 협력 체계의 구축 (현지화 등) |
| ⑪ M&A 능력       | ⑫ 기타( )             |

**● 남북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

문31] 귀하의 회사는 북한 건설시장에 대한 진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① 대북 건설사업 추진시 사업위험이 커서 향후에도 북한 건설시장에 대한 진출 계획은 없다
- ② 향후 남북관계의 개선이 예상되고, 협소한 국내 건설시장을 극복하기 위해 북한 건설시장에 대한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문32] 귀하께서는 다음 중 북한 건설시장에 진출시 가장 유망한 진출 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3순위 : \_\_\_\_\_

- |          |                 |             |
|----------|-----------------|-------------|
| ① 도로     | ② 철도/전철         | ③ 항만        |
| ④ 공항     | ⑤ 산업단지조성        | ⑥ 발전소, 송전시설 |
| ⑦ 농업기반시설 | ⑧ 주택            | ⑨ 관광시설      |
| ⑩ 통신시설   | ⑪ 도시 재개발, 신도시개발 |             |

⑫ 다자간 개발(북중러 접경지역)

⑬ 남북 접경지역 개발

⑭ 기타( )

문33] 귀하께서는 향후 건설업계가 북한 건설시장 진출시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하는 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 ① 북한 건설시장 진출시 사업위험성(건설비의 회수 및 건설인허가 등) 해소를 위한 지원
- ② 북한 건설시장 진출시 사업(경제성)성에 대한 정부의 지원(경비중 일부 지원, 보증 등)
- ③ 북한 내 건설 수주 정보의 제공
- ④ 북한 건설근로자의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지원
- ⑤ 원활한 건설 활동 수행을 위한 3통(통행, 통관, 통신)의 문제 해결
- ⑥ 민간투자사업 추진시 북한 당국과의 협상 및 협약사항 이행에 관한 지원
- ⑦ 다자간 협력사업 추진시 정부의 외교적 지원
- ⑧ 기타( )

● 다음은 통계처리를 위한 질문입니다. ●

DQ1] 실례지만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 ① 40세 이하      ② 41 ~ 49세      ③ 50 ~ 59세      ④ 60 ~ 69세
- ⑤ 70세 이상

DQ2] 귀하께서는 회사와 어떤 관계입니까?

- ① 창업 경영인      ② 2, 3세 경영인      ③ 외부 영입 경영인
- ④ 자체 승진 경영인      ⑤ 기타( )

DQ3] 귀사의 2014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는 어떻게 되십니까? \_\_\_\_\_ 위

DQ4] 귀사의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_\_\_\_\_ 시/도

**□ 설문에 끝까지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 저자 소개

**김민형**(mhkim@cerik.re.kr)

숙명여자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과 졸업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마케팅 전공)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국제경영 전공)

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국토교통부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진흥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규제개선위원회 위원

**이홍일**(hilee@cerik.re.kr)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생산관리/경영전략 전공)

한양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전략경영 전공)

대우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Arthur Andersen Korea 부장컨설턴트

PwC Consulting Korea 수석컨설턴트

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최석인**(sichoi@cerik.re.kr)

중앙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공과대학 일반대학원 건축학 석사(건설관리 전공)

중앙대학교 공과대학 일반대학원 건축학 박사(건설관리 전공)

국토교통부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